

마태복음 1 장

마태복음에 들어 가보자.

예수님이 마태를 그의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는 가버나움의 세리였다. 그를 레위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가 1 장 1 절에서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그리스도의 족보를 펼침으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 1:1).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 하셨다,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18). 그것으로 지상의 온 백성에게 축복이 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리라고 이해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메시아라고 주장하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먼저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집을 세우시며 그의 후손이 영원히 왕권을 이어 갈 것임을 약속하셨다 (사무엘하 7:12). 그리고 그 약속으로부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가지”, 그것은 물론 “다윗의 왕위에 앉는 것” 을 가리킨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주장하려면 그는 아브라함 과 또한 다윗의 후손임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정확한 족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자기가 다윗의 후손임을 족보에서 증명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들은 그들의 족보를 다 잃어 버렸다. 그러나 메시아가 벌써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마태는 여기서 예수께서 두 가지 조건, 즉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한 다윗의 후손 이어야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준다고 지적한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요셉의 족보가 아닌가? 예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면 왜 요셉의 족보가 필요한가? 그리고 16 절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이 예수의 말하지 않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로 기록되어있음에 주목하라.

이제 당신은 신약성경에 두 개의 족보가 있다는 것과 다른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을 때 족보들의 차이가 무엇인지 차이를 발견 할 것이다.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예수의 계보는 솔로몬을 거쳐 다윗에 이르나 누가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이다. 마리아 역시 다윗을 거쳐 아브라함에 이른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윗의

아들 나단을 거치게 된다. 마리아도 역시 유다족속 이며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나 솔로몬과 그의 혈통을 거치지 않고 다윗의 다른 아들 나단과 그의 혈통을 거친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실제로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당신이 유다의 왕들을 살펴볼 때 그들은 요셉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있고, 실제로 그는 다윗왕가의 자손이었으며 왕위를 이어받을 후손이었다. 그러나 요셉이 이스라엘의 왕이되는데 참으로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왕 의 혈통을 거스려 올라가볼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고 저주한 여고냐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22:30). 그래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의 줄기는 예레미야 22 장 30 절에 있는 죄 때문에 왕위에 앉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이 됴므로 여전히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왕이 되지못하도록 저주를 받은 여고냐를 거치는 후손이나 혹은 다른 어떤 후손들도 왕위에 오를 수 없다.

그래서 만일 예수가 요셉의 아들 이었다라면 예레미야 22 장에 있는 저주로 인해 다윗의 위에서 다스릴 수 없다. 그러나 나단을 통한 다윗의 후손이며 다른 줄기를 통해서 나온 그는 마리아에게서 왔으므로 왕위를 계승할 권리를 가졌다. 그렇지만 유대인의 나라에 관해서는 요셉을 왕의혈통으로 인식한다.

마태복음 1 장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레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1:1)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창 22:18)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민족들에게 축복이 될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먼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특별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대상 17:11-12)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후손, 곧 그의 족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다윗의 왕위에 앉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구약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마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메시아의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예수님은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시될 수 있는 의문은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출생했다면 왜 요셉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마태복음 1:16 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해결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셉은 예수를 낳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사실은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임)는 다윗과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Nathan)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 역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지만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의 후손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요셉으로 이어진 다윗 왕조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다윗 왕조의 씨이며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가 된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족보는 여고냐(Jeconiah)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왕족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고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렘 22:30)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왕족은 여고냐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여고냐의 계보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면, 예레미야 22 장에 기록된 저주로 인해 다윗의 왕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계보에 속한 다윗의 자손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된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은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왕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요셉의 맏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계보이므로 다윗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음에도 이 족보에는 네 명의 여자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덕스럽지 못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맨 처음 언급된 여인은 다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1:2-3)

유다는 자기의 큰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와의 목전에 악했기 때문에 자식 없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풍습에 따라 그의 동생이 다말과 결혼했으나 그도 여호와와의 징계로 인하여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로 하여금 큰 아들의 후손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미 두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유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아들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를 유혹합니다.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다에게 다말은 증거물을 요구합니다. 약조물로 유다로부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은 다말은 그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되고, 자기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유다는 크게 화를 내며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앞에 끌려 나온 다말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유다로부터 받은 약조물들을 보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시아버지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은 다말이 다윗 왕조의 족보에 나온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에 처한 다말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번째는 라합이었는데 그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지나가야 할 곳인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방어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겼다가 창을 통해 도망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라합은 이스라엘이 이 성을 취할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기를 구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수 2:1-15).

그 후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세번째 여인인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스라엘의 계보에 넣으셨습니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1:4-6a)

세번째 여인은 룻인데 그녀 또한 이방(모압)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 충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신 23:3).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여인 롯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 왕의 혈통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오벧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여인 롯을 이스라엘의 계보에 넣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1:6b)

네번째 여인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 왕과 간음하고 임신하자 다윗 왕은 음모를 꾸며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밋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밋세바로 인하여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족보에 허물 있는 여인들이 포함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실패와 흠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계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엄청난 개인적 실패를 겪은 사람,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결함과 실패로 얼룩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혈통을 포함시키신 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마태는 세대들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러라”(1:17)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14 대씩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수인 7 의 두 배가 되는 14 가 세 번 나오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완전수를 관련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1:8 과 역대서의 기록을 대조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락된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요람과 웃시야 사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아합 왕과 그의 처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의 아들들로서, 아합과 이세벨은 북쪽 왕국을 파멸로 인도한 악한 왕과 왕후였습니다. 특히 아달라는 다윗 왕의 모든 씨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이 아달라의 손아귀에서 건져져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라의 자손들이 마태의 족보에서 빠진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완전수 7 의 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족보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마태가 실수로 그들을 빠뜨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기록과 똑같은 기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1:16)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요셉의 자식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않았다는 것을 18 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1:18)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는 과정이 좀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한 쌍의 남녀가 부부가 되기까지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정혼(engagement) 이고, 둘째는 약혼(espousal)이며, 셋째는 동거(betrothal)입니다. 정혼은 어린 시절 그 어느 때라도 가능한 것으로 부모들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우리가 서로 잘 아니까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약속합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당사자들이 아직 어린 아이일지라도 부모들간에는 정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15-16 세쯤 되면 이들은 일 년 간의 약혼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서로 가까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약혼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들도 이 시기에 부모님의 결정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자신의 배우자로 인정하고 결혼 준비를 합니다. 약혼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파기하려면 이혼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혼 기간이 지나면 함께 살게 됩니다. 결혼식날 밤에 신부의 아버지는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흔적을 취해 상자에 넣어 보관합니다. 만일 사위가 결혼 후에 ‘그녀는 내가 결혼할 당시에 처녀가 아니었으므로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딸의 아버지는 그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흔적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사위가 거짓증언을 한다고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의 약혼 기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약혼기간 중의 부정, 다시 말하여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직면하게 된 문제였습니다. 마리아는 의심할 여지없이 용모도 아름다웠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극히 아름다운 영성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결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녀를 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영성의 깊이는 누가복음에서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채 서로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찬가’(눅 1:46-50)는 마리아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 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리아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으나 그녀의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이 일에 관계가 없음을 공적으로 밝히고, 그로 인해 마리아를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자 고민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습니다. 여담이지만 요셉은 예수가 장성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했던 것을 보아 요셉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돌아와 갈릴리에 정착했던 것은 틀림없으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셉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1:19-21)

21 절의 ‘예수’는 ‘여호와, 즉 야훼는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부르라고 한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분의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1:22-23)

이 구절을 볼 때 마태는 구약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신약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기록한 성경을 두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라 하였습니다. 신약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실질적인 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전 11:23)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사 7:14)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이 예언을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며 다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네시아라는 학자는 히브리어 ‘알마’를 젊은 여자(a young maiden)로 해석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번역자들도 주네시아의 이 해석을 받아들여,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젊은 여자가 잉태하는 것이 무슨 표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표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알마’를 문자 그대로 ‘처녀’의 의미로 의도하여 쓰신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주네시아와 그를 따르는 학자들은 이성적으로 추리하여 ‘알마’를 젊은 여자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학문입니다. 그는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마’를 젊은 여자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법칙을 초월할 수도 없다’는 전제 아래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200 년 전에 70 명의 학자들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 기간과 귀환 이후에 상당 부분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인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고 단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었을 뿐 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알려면 학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잃었고, 더욱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래로 헬라어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 당시 쓰이는 언어로 백성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에 70 명의 학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 번역성경을 셉투어전트(Septuagint), 즉 칠십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칠십인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탄생 200 여 년 전부터 백성들은 학자들의 도움 없이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약 200 여 년 전에 희랍과 히브리의 학자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하여 히브리 단어 ‘알마’를 오직 처녀에 대해서만 쓰이는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사실과 마태 또한 칠십인역의 이 번역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사야가 영감으로 메시아가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고, 이 사실을 신약성경이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이 원래의 의미인 ‘처녀’를 ‘젊은 여자’로 번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변경시키려는 참람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오역은 현대번역서에서도 수백 개나 발견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 감사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포하신 근본적인 진리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1:24-25)

요셉은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첫번째 아기를 낳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perpetual virgin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치 않은 소리이며, 마리아를 신의 위치로 올리려는 사람들의 조작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셉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만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계속 처녀로서 자녀들을 낳았다면 성경은 실로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 예수님의 남동생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며, 누이들도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3:55-56). 그러므로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라고 선언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 없이 만들어진 교리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교리(dogma)를 조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 장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2:1)

1 장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은 키가 120cm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모든 일은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그것은 아마 자격지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바윗돌로 거대한 요새들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벽 아래 있는 돌들은 헤롯이 성전을 짓기 전 성전대지(Temple mount)를 받쳐주는 축대로 쌓은 것이라고 전해오는데 돌 하나의 크기가 자그마치 가로 3m, 세로 3m, 길이가 약 14m, 무게는 약 170 톤이나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 거대한 바위를 옮겨 건축에 사용했습니다. 건축의 천재였던 그는 헤롯 궁전과 마사다 요새 뿐만 아니라 아직 발굴되지 않은 알렉산더 궁전과 예루살렘 큰 성전, 그리고 성전대지(Temple mount)와 가이사랴 등을 비롯한 엄청난 규모의 건설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는 연못도 호수로 만들었고 예루살렘의 급수 시설도 만들었습니다. 헤롯의 건축 계획들은 오늘날에도 놀랄만큼 큰 규모입니다.

참으로 그는 건축 방면에서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끔찍스럽게도 잔인한 편집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아내 미리암이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망상으로 모두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내 미리암이 그리워지자 그녀를 위해 거대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의 이러한 광적인 행동 때문에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여 그 속에 은신처를 둔 것도 그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내가 죽으면 모든 고위급 신하들을 처형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국민들이 애도해 주기를 바랬지만 자신도 알다시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슬퍼할 리가 없었으므로 당시 덕망을 쌓았던 중신들을 한꺼번에 죽임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인해서라도 국민들로 애도하게 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다행히 그가 죽었을 때 신하들은 이성을 되찾아 그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의 명령을 수행하겠느냐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슬퍼하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헤롯이 왕이었던 당시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묻는 이 질문이 항상 불안 속에 사는 헤롯 왕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겠는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계시뇨? 라니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그는 자신의 왕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2:2)

이 베들레헴의 별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추측과 많은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베들레헴의 별이 천문학적으로 무엇이 다르며 하늘에 어떤 특별한 표적으로 나타났는지에 대해 많은 추측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추측일 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동쪽에서 그 별을 보았다면 그별은 분명히 서쪽으로 그들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하고도 초자연적인 표적이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2:3)

왜냐하면 헤롯이 소동하면 모든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질문을 했다기보다는 다그쳐 물었을 것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이 사람들이 성경말씀을 알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말함]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2:4-6)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5:2 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메시아의 탄생지로 베들레헴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2:7-8)

나중에 나오지만, 헤롯이 아기를 찾는 이유라고 밝힌 경배라는 것은 아연실색할 집단살인극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2:9,10)

이 별을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보았던 별은 동에서 서로 향하고 있었으나 다시 본 별은 동쪽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에 있습니다. 또 9 절에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 별이 갓난 아기가 누워 있는 구유 위에 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연극이나 카드에 전형적으로 보여지듯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동방 박사들이 낙타에서 내려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치는 장면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더 극적이어서 크리스마스 행사의 절정을 이같이 장식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방박사들이 도착할 때쯤 요셉과 마리아는 벌써 마구간에서 떠나 베들레헴의 한 집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1-2 년 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쯤 조금씩 걷고 몇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마구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2:11)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보배함을 열어 황금(이것은 왕을 의미합니다)과 유향(이것은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과 몰약(이것은 매장을 위한 향료입니다)을 어린 예수께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매장할 때 쓰는 향료를 예물로 드렸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2:12)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로 인해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실로 여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2:13-15)

다시 한 번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두 다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포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2:16)

헤롯은 베들레헬과 그 지경에 있는 두 살 아래의 어린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동방박사에게 별이 처음 나타났던 때로부터 약 1-2 년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로부터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구유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롯의 어린 아이 학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2:17-18)

라헬은 베들레헬 근방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며, 그 무덤이 베들레헬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운다는 것은 헤롯에 의해 자식을 잃은 베들레헬 지역의 어머니들의 슬픔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2:19-22)

갈릴리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녀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2:23)

마태복음 3 장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3:1)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함에 있어 공백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경에 보면 어린 예수가 날개 부러진 작은 새를 고쳤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12 살 때의 사건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 살의 예수님에게는 매우 특별한 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유대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3:1-4)

여기서 메뚜기라고 한 것이 실제로 메뚜기였는지 당시에 ‘여호수아의 떡’이라고 불렀던 케립나무 열매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달팽이가 미식가들의 최고요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 판이니 메뚜기라고 먹지 말란 법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3:5-7)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당시의 성경 학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3:8)

회개했다는 사람은 많으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적습니다. 회개란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하면서 그의 삶 속에 참으로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의 회개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달라진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은 저에게 수천 달러를 사기친 사람이 와서 매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푼의 돈도 저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때 세례 요한의 말이 생각나서 그에게 자신이 뉘우쳤다는

열매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3: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은 구원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구원의 보증인 양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3:10)

요한복음 15 장에서 예수님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과실이 없으므로 예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막 11:12-14).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그 무화과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은 것을 보고서 놀라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매맺기를 바라셨습니다. 10 절에서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그 나무는 베어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 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그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해 믿지 않는 원가를 꺾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만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3:11)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그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하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3:2,3).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3:12)

당시의 타작 방법은 곡식을 가득 담은 키를 손에 들고 까보면 모든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한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계속하여 타작마당에 있는 모든 곡식의 키질이 끝나면 그곳에는 두 무더기가 남게 됩니다. 한 무더기는 알곡이고 다른 무더기는 바람에 날려가서 모인 쭉정이 무더기입니다. 그러면 알곡은

모아 공간에 들여놓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립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키가 있고 주께서 그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또 주께서 그의 알곡을 모아 공간에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3:13-15)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시므로 요한은 그분께 세례 주기를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본을 보이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벧전 2:21)고 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세례는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이 우선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영적인 삶은 육적인 삶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그분께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을 따라 육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초월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통해 주는 메세지입니다.

세례는 육적인 삶, 옛 본성, 옛 생활, 옛 야망, 옛 욕심을 죽이고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아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3:16-17)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에 대한 인정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요 8:28)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10-11 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8 절에 그룹들이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하고,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KJV 에는 ‘주의 뜻대로’ 대신 ‘주의 기뻐하심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음).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싫다고 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좌절과 패배로 이어질 뿐입니다. 반면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면 영광스러운 성취의 삶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성령이 그분께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 장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4:1)

예수님이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자 성령이 임하셨으며 하나님의 선포가 있으신 후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성령이 살아 계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은사의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보다 성령 안에서의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14 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도 바른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고 자기나름의 특이한 계시를 주장하면서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일상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물론 영적 감동으로 인한 현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체험에만 중점을 두고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하게됩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4:1-2)

저는 와일더 스미스 박사와 감각기능상실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의 정신(mind)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을 해석하느라고 매우 바쁘다고 합니다. 즉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같은 감각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뇌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1 초에 18 개의 영상을 뇌에 보내면 뇌는 진동과 색깔과 형상을 해석하며 이와 동시에 귀는 소리의 진동을 뇌에 보내고 뇌는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뇌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정보의 공급 과잉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주비행사들을 무중력 상태의 캄캄한 방에 뜨거운지 차가운지 감지할 수 없는 사람의 체온 정도 되는 따뜻한 물 속에 떠 있게 하고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적막과 캄캄함과 아무런 냄새도 없는 상태로 두는 이른바 ‘감각기능 상실’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 들어간 우주비행사들은 몸의 여러부분의 감각기관들이 뇌에 보내는 모든 메시지들을 처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환상과 영적인 경험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섯번째 감각(육감)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이 여섯번째 감각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오감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뇌에 과잉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맛, 즉 미각이 약해지는 ‘감각기능상실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하게 되면 뇌는 미각이 보내는 정보를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뇌의 오감기능이 활동하지 않게 되면, 여섯번째 감각이 열려 그것을 통하여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금식한 지 5 일이 지나면 배고픔을 잊게 되는데, 그 때부터는 생명에 큰 위험이 닥치기까지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 35 일째에서 40 일째 되는 사이에 배고픔을 느끼는 때가 바로 실제로 아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때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금식하던 40 일 동안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셨으나 그 후에는 시장하셨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배고픈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 때 다가와 유혹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4:3)

여기에서 만일(if)은 ‘...이므로’(since)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의심할 여지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부르짖어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던 일(막 3:11-12)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 능력을 사용하여 당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자주 사용하는 사단의 수법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능력으로 네 자신의 배고픔, 즉 네 자신의 욕심과 네 육신의 열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4:4)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시 119:11)”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과 싸워 이길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성경을 공부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요한은 첫번째 서신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요일 2:13)” 하였고 또다시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일 2:14)” 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4:5-6)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하시며 답하시니까 사단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성경을 왜곡하여 말하기를,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다”고 했습니다. 성경말씀을 성경말씀과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4:7)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말씀을 인용하여 “또 기록하였으되”로 답하셨습니다. 사단이 성경을 왜곡하여 유혹해 올 때는 또 다른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의 “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에 대한 흥미로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막 16:17-18)와 같은 구절입니다.

일전에 켄터키 주의 한 교회 목회자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청산염을 주며 그것을 먹고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명이 그 청산염을 먹고 죽어 그 목회자는 살인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16:18 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방울뱀을 잡다가 물려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말씀을 증명해 보이라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뛰어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성경에 천사가 보호해 주리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고 마귀는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성경 말씀으로써 사단의 두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 말씀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4:8-10)

이렇게 세 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각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4:11-13)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행하신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본문의 ‘해변’은 당시 바다라 불렸던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4:14-17)

세례 요한의 선포가 예수님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메시아가 곧 나타나리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곧 임할 수도 있었으나 저들은 메시아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4:18-20)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낚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좇으니라”(4:21-22)

마가복음 10:29-30 에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꺾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4:23-25)

북쪽에 있는 골란 지역을 넘어 다마스쿠스에까지 소문이 퍼졌고 북쪽 갈릴리 지역의 열개의 도시로부터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의 행하시는 기적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좇았습니다.

예언의 완벽한 성취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

마태는 가버나움에서 세리로 일하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레위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1:1)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니”(창 22:18)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세계 민족들에게 축복이 될 메시야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메시야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먼저 자신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특별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나는 그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대상 17:11-12)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다윗의 왕위에 앉을 메시야에 대한 예언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자신이 메시야라고 주장한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구약적 배경을 잘 알고 있는 마태는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어야 하는 메시야의 두 가지 요구 조건을 예수님은 충족시키고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족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시될 수 있는 의문은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출생했다면 왜 요셉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마태복음 1:16 을 주의깊게 살펴보면 해결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셉은 예수를 낳고”라고 되어 있지 않고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이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의 족보(사실은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임)는 다윗과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Nathan)으로 이어집니다. 마리아 역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지만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의 다른 아들인 나단의 후손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요셉으로 이어진 다윗 왕조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다윗 왕조의 씨이며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자가 된다는 사실에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족보는 여고냐(Jeconiah)를 포함하는 이스라엘 왕족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고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렘 22:30)고 저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왕족은 여고냐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에게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여고냐의 계보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오셨다면, 예레미야 22 장에 기록된 저주로 인해 다윗의 왕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계보에 속한 다윗의 자손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된 예수님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은 요셉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왕족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요셉의 만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더라도 요셉의 계보이므로 다윗 왕위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흥미로운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일반적으로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은 거의 언급되지 않음에도 이 족보에는 네 명의 여자가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의 여인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덕스럽지 못한 여인들이었습니다.

맨 처음 언급된 여인은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1:3)

유다는 자기의 큰아들을 다말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와 목전에 악했기 때문에 자식 없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풍습에 따라 그의 동생이 다말과 결혼했으나 그도 여호와와 징계로 인하여 자식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에게는 셋째 아들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로 하여금 큰 아들의 후손을 이어나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미 두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유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아들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다말은 창녀로 변장하여 유다를 유혹합니다. 다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다에게 다말은 증거물을 요구합니다. 약조물로 유다로부터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은 다말은 그와 동침하여 임신하게 되고, 자기 머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유다는 크게 화를 내며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앞에 끌려 나온 다말은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유다로부터 받은 약조물들을 보였습니다. 유다는 다말의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렇듯 시아버지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은 다말이 다윗 왕조의 족보에 나온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에 처한 다말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번째는 라합이었는데 그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지나가야 할 곳인 여리고 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의 방어태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여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은 정탐꾼들을 자기 집 지붕에 숨겼다가 창을 통해 도망치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을 보내면서 라합은 이스라엘이 이 성을 취할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기를 구했습니다. 이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과 그녀의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세번째 여인인 롯과 결혼하였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이스라엘의 계보에 넣으셨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벧을 낳고 오벧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1:5-6a)

세번째 여인은 롯인데 그녀 또한 이방(모압)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은 암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신 23:3).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압 여인 롯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 왕의 혈통을 잇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낳은 오벧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여인 롯을 이스라엘의 계보에 넣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1:6b)

네번째 여인은 이름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 왕과 간음하고 임신하자 다윗 왕은 음모를 꾸며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밋세바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밋세바로 인하여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요셉의 족보에 허물 있는 여인들이 포함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실패와 흠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그분의 계획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엄청난 개인적 실패를 겪은 사람,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결함과 실패로 얼룩진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를 14 대씩, 즉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이름을 의도적으로 생략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수인 7의 두 배가 되는 14가 세 번 나오도록 함으로써 예수님의 족보에 완전수를 관련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8과 역대상하서의 기록을 대조해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락된 이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가 요람과 웃시야 사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아합 왕과 그의 처 이세벨의 딸인 아달라의 아들로서, 아합과 이세벨은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달라는 다윗 왕의 모든 씨를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명이 아달라의 손아귀에서 건져져서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달라의 자손들이 마태의 족보에서 빠진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완전수 7의 배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을 족보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마태가 실수로 그들을 빠뜨렸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기록과 똑같은 기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보에 속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굽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1:16)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요셉의 자식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1:18)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적인 관계를 갖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음을 알려주는 과정이 좀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한 쌍의 남녀가 부부가 되기까지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는 정혼(engagement)이고, 둘째는 약혼(espousal)이며, 셋째는 동거(betrothal)입니다.

정혼은 어린 시절 그 어느 때라도 가능한 것으로 부모들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를테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우리가 서로 잘 아니까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을 결혼시키기로 약속합시다’라고 의견이 모아지면 당사자들이 아직 어린 아이일지라도 부모들간에는 정혼이 성립된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15-16 세쯤 되면 이들은 일 년 간의 약혼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서로 가까이하지 않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약혼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당사자들도 이 시기에 부모님의 결정을 받아들여 상대방을 자신의 배우자로 인정하고 결혼 준비를 합니다. 약혼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약혼을 파기하려면 이혼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혼 기간이 지나면 함께 살게 됩니다. 결혼식날 밤에 신부의 아버지는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흔적을 취해 상자에 넣어 보관합니다. 만일 사위가 결혼 후에 ‘그녀는 내가 결혼할 당시에 처녀가 아니었으므로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딸의 아버지는 그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흔적을 증거물로 제시하고 사위가 거짓증언을 한다고 기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요셉과의 약혼 기간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약혼기간 중의 부정, 다시 말하여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이 직면하게 된 문제였습니다. 마리아는 의심할 여지없이 용모도 아름다웠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극히 아름다운 영성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결하고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녀를 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영성의 깊이는 누가복음에서 그녀의 사촌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에서 잘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임신한 채 서로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마리아의 찬가’(눅 1:46-50)는 마리아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리아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으나 그녀의 갑작스런 임신으로 인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이 일에 관계가 없음을 공적으로 밝히고, 그로 인해 마리아를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일을 처리하고자 고민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습니다. 여담이지만 요셉은 예수가 장성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했던 것을 보아 요셉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돌아와 갈릴리에 정착했던 것은 틀림없으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셉은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1:19-21)

21 절의 ‘예수’는 ‘여호와, 즉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로 부르라고 한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분의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1:22)

이 구절을 볼 때 마태는 구약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으며 신약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기록한 성경을 두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라 하였습니다. 신약성경은 성경이 기록된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실질적인 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전 11:23)라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사 7:14)라고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처녀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이 예언을 그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며 다른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네시아라는 학자는 히브리어 ‘알마’를 젊은 여자(a young maiden)로 해석하면서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번역자들도 주네시아의 이 해석을 받아들여 ‘보라,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젊은 여자가 잉태하는 것이 무슨 표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표적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알마’를 문자 그대로 ‘처녀’의 의미로 의도하여 쓰신 것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주네시아와 그를 따르는 학자들은 이성적으로 추리하여 ‘알마’를 젊은 여자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학문입니다. 그는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하나의 기적이므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알마’를 젊은 여자로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연법칙을 초월할 수도 없다’는 전제 아래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200년 전에 70명의 학자들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진 성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바벨론 포로 기간과 귀환 이후에 상당 부분이 소멸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인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고 단지 학자들의 연구대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알려면 학자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잃고, 더욱이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이래로 헬라어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그 당시 쓰이는 언어로 백성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일에 70명의 학자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 번역성경을 셉투어전트(Septuagint), 즉 칠십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된 칠십인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탄생 200여 년 전부터 백성들은 학자들의 도움 없이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기 약 200여 년 전에 희랍과 히브리의 학자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해하여 히브리 단어 ‘알마’를 오직 처녀에 대해서만 쓰이는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사실과 마태 또한 칠십인역의 이 번역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사야가 영감으로 메시야가 처녀에게서 탄생할 것을 예언했고, 이 사실을 신약성경이 인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이 원래의 의미인 ‘처녀’를 ‘젊은 여자’로 번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변경시키려는 참람한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인위적인 오역은 현대번역서에서도 수백 개나 발견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 감사 드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선포하신 근본적인 진리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1:24 -25)

요셉은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첫번째 아기를 낳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기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perpetual virgin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당치 않은 소리이며, 마리아를 신의 위치로 올리려는 사람들의 조작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요셉은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만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으며 그 후에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만일 마리아가 계속 처녀로서 자녀들을 낳았다면 성경은 실로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등 예수님의 남동생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으며, 누이들도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13:55-56). 그러므로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라고 선언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 없이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교리(dogma)를 조심해야 합니다.

예언을 성취시키는 예수님의 탄생

유대인의 왕을 찾는 동방 박사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2:1)

1 장을 통해서 살펴본 예수님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은 키가 120cm 조금 넘는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진한 모든 일은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그것은 자격지심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바윗돌로 거대한 요새를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서쪽 벽 아래 있는 돌들은 헤롯이 성전을 짓기 전 성전대지(Temple mount)를 받쳐주는 축대로 쌓은 것이라고 전해오는데 돌 하나의 크기가 자그마치 가로 3m, 세로 3m, 길이가 약 14m, 무게는 약 170 톤이나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 거대한 바위를 옮겨 건축에 사용했습니다. 건축의 천재였던 그는 헤롯 궁전과 마사다 요새 뿐만 아니라 아직 발굴되지 않은 알렉산더 궁전과 예루살렘 큰 성전, 그리고 성전대지(Temple mount)와 가이사라 등을 비롯한 엄청난 규모의 건설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베들레헴 가까이 있는 연못도 호수로 만들었고 예루살렘의 급수시설도 만들었습니다. 헤롯의 건축 계획들은 오늘날에도 놀랄만큼 큰 규모입니다.

참으로 그는 건축 방면에서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끔찍스럽게도 잔인한 편집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과 아내 미리암이 반역의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망상으로 모두 죽여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시 아내 미리암이 그리워지자 그녀를 위해 거대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의 이러한 광적인 행동 때문에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 그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요새를 건설하여 그 속에 은신처를 둔 것도 그러한 불안정한 심리상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을 때 슬퍼하지 않을 것이 염려되어 “내가 죽으면 모든 고위급 신하들을 처형하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국민들이 애도해 주기를 바랬지만 자신도 알다시피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슬퍼할 리가 없었으므로 당시 덕망을 쌓았던 중신들을 한꺼번에 죽임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인해서라도 국민들로 애도하게 하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다행히 그가 죽었을 때 신하들은 이성을 되찾아 그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의 명령을 수행하겠느냐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슬퍼하는 사람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2:2)

이러한 헤롯이 왕이었던 당시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하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이 항상 불안 속에 사는 헤롯 왕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겠는지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그들은 계속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헤롯은 이 말을 듣고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모든 대체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질문을 했다가보다는 다그쳐 물었을 것입니다.

“왕이 모든 대체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2:4-6)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가서 5:2 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로 선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메시아의 탄생지로 베들레헴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2:7-8)

나중에 나오지만, 헤롯이 아기를 찾는 이유라고 밝힌 경배라는 것은 아연실색할 집단살인극이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2:9)

이 별을 자연적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보았던 별은 동에서 서로 향하고 있었으나 다시 본 별은 동쪽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에 있습니다. 또 9 절에 그 별이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다고 했는데 이 말은 그 별이 갓난 아기가 누워 있는 구유 위에 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 연극이나 카드에 전형적으로 보여지듯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방문하는 동방 박사들이 낙타에서 내려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치는 장면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더 극적이어서 크리스마스 행사의 절정을 이같이 장식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동방박사들이 도착할 때쯤 요셉과 마리아는 벌써 마구간에서 떠나 베들레헴의 한 집에 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1~2년 후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쯤 조금씩 걷고 몇 마디 말을 하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였을 것입니다. 박사들은 마구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느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르러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2:11)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보배함을 열어 황금(이것은 왕을 의미합니다)과 유향(이것은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과 몰약(이것은 매장을 위한 향료입니다)을 어린 예수께 드렸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매장할 때 쓰는 향료를 예물로 드렸다는 점은 상당히 의미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2:12)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로 인해 박사들은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실로 여전히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간 예수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2:13-15)

다시 한 번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들이 모두 다 선지자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헬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포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2:16)

헤롯은 베들레헬과 그 지경에 있는 두 살 아래의 어린 사내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동방박사에게 별이 처음 나타났던 때로부터 약 1~2년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이 사실로부터 동방박사들이 예수께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구유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롯의 어린 아이 학살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2:17-18)

라헬은 베들레헬 근방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며, 그 무덤이 베들레헬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 운다는 것은 헤롯에 의해 자식을 잃은 베들레헬 지역의 어머니들의 슬픔을 예언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야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 됄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2:19-22)

갈릴리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그녀가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곳입니다. 그 곳에서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2:23)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으신 예수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3:1)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함에 있어 공백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즉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경에 보면 어린 예수가 날개 부러진 작은 새를 고쳤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니다. 예외적으로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12 살 때의 사건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2 살의 예수님에게는 매우 특별한 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따름입니다. 성경이 말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유대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살펴봅시다.

“그 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3:1-4)

여기서 메뚜기라고 한 것이 실제로 메뚜기였는지 당시에 ‘여호수아의 떡’이라고 불렀던 케립나무 열매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달팽이가 미식가들의 최고요리로 호평을 받고 있는 판이니 메뚜기라고 먹지 말란 법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3:5-7)

여기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당시의 성경 학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3:8)

회개했다는 사람은 많으나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적습니다. 회개란 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하면서 그의 삶 속에 참으로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그의 회개의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달라진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은 저에게 수천 달러를 사기친 사람이 와서 매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푼의 돈도 저에게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그 때 세례 요한의 말이 생각나서 그에게 자신이 뉘우쳤다는 열매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행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3:9)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는 말은 구원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구원의 보증인 양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들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3:10)

요한복음 15 장에서 예수님은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나무 있는 곳으로 갔을 때, 과실이 없으므로 예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막 11:12-14).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그 무화과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라 죽은 것을 보고서 놀라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열매맺기를 바라셨습니다. 10 절에서 세례 요한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그 나무는 베어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1 장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믿는 자들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그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도록 하기 위해 믿지 않는 원가지를 꺾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한 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길만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듣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3:11)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자신을 증거하지 않고 그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3:3)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이 흥미로운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3:12)고 증거합니다. 당시의 타작 방법은 손에 키를 들고 곡식을 넣어 놓은 멍석 위를 이 키로 두들김으로써 쭉정이를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3:13 -15)

예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분이시므로 요한은 그분께 세례 주기를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본을 보이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벧전 2:21)고 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을 뜻합니까? 세례는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이 우선되어야 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영적인 삶은 육적인 삶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이것 때문에 그분께 분노했습니다.

세례는 육적인 삶, 옛 본성, 옛 생활, 옛 야망, 옛 욕심을 죽이고 장사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아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3:16-17)

하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아들에 대한 인정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요 8:28)라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10-11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KJV에는 ‘주의 뜻대로’ 대신 ‘주의 기뻐하심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음).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싫다고 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좌절과 패배로 이어질 뿐입니다. 반면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르는 삶을 살면 영광스러운 성취의 삶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시자 성령이 그분께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예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신약성경은 성령이 살아 계시며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역사 또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은사의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보다 성령 안에서의 생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14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도 바른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나치게 흥분하고 자기나름의 특이한 계시를 주장하면서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은 일상의 삶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물론 영적 감동으로 인한 현상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삶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고 영적인 현상을 경험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시험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예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4:1-2)

저는 와일더 스미스 박사와 감각기능상실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참으로 흥미로웠습니다. 우리의 정신(mind)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것들을 해석하느라고 매우 바쁘다고 합니다. 즉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같은 감각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뇌에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눈이 1 초에 18 개의 영상을 뇌에 보내면 뇌는 진동과 색깔과 형상을 해석하며 이와 동시에 귀는 소리의 진동을 뇌에 보내고 뇌는 이것을 해석합니다. 이렇게 뇌는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뇌는 정보의 공급과잉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주비행사들이 훈련 중 종종 이른바 ‘감각기능상실현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비행사들을 물이 차 있는 캄캄한 방에 떠 있게 하면 그러한 상태에서는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의 체온 정도 되는 따뜻한 물 속에서는 뜨거움이나 차가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물이 가득 차 있는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냄새도 느껴지지 않는 고요한 방에 들어가 있으면 ‘감각기능상실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감각기관들에 의해 입력되는 모든 메시지들을 처리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간 우주비행사들은 환상과 영적인 경험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섯번째 감각인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엔 이 여섯번째 감각이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정보가 뇌에 과잉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맛, 즉 미각이 약해지는 ‘감각기능상실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하게 되면 뇌는 미각이 보내는 정보를 해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뇌의 오감기능이 활동하지 않게 되면, 여섯번째 감각이 열려 그것을 통하여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금식한 지 5 일이 지나면 배고픔을 잊게 되는데, 그 때부터는 생명에 큰 위험이 닥치기까지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금식 35 일째에서 40 일째 되는 사이에 배고픔을 느끼는 때가 바로 실제로 아사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 때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배가 고프셨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금식하던 40 일 동안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으셨으나 그 후에는 시장하셨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배고픈 상태에 있음을 알고 이 때 다가와 유혹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4:3)

여기에서 만일(if)은 ‘...이므로’(since)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마귀는 의심할 여지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어느 때든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부르짖어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던 일(막 3:11-12)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그 능력을 사용하여 당신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자주 사용하는 사단의 수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네 자신의 배고픔, 즉 네 자신의 욕심과 네 육신의 열망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4:4)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과 싸워 이길 우리의 힘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성경을 공부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만 합니다.

요한은 첫번째 서신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하였고 또다시 “청년들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KJV)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4:5-6)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말씀을 인용하여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성경을 왜곡하여 유혹해 올 때는 또 다른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또 기록되었으되”의 “또”가 중요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에 대한 흥미로운 구절들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막 16:17-18)와 같은 구절입니다.

일전에 켄터키 주의 한 교회 목회자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청산염을 주며 그것을 먹고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명이 그 청산염을 먹고 죽어 그 목회자는 살인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마가복음 16:18의 말씀에 근거하여 방울뱀을 잡다가 물려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말씀을 증명해 보이려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뛰어 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여라! 성경에 천사가 보호해 주리라고 쓰여 있지 않느냐’고 마귀는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성경 말씀으로써 사단의 두번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 말씀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4:8-10)

이렇게 세 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각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드디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4:12-13)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행하신 중요한 지역입니다. 또 본문의 ‘해변’은 당시 바다라 불렸던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4:14-17)

세례 요한의 선포가 예수님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메시야가 곧
나타나리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곧 임할 수도 있었으나 저들은 메시야를 영접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좃으니라”(4:18-20)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베드로와 안드레는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부친 세베대와 한가지로 배에서 그물 잡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 두고 예수를 좃으니라”(4:21-22)

마가복음 10:29-30 에 보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꺾박을 곁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4:23-25)

산상보훈 -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여덟 가지 복

성경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구절이 기록된 부분이 마태복음 5 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5:1-2)

우선적으로 강조해야 할 점은 이 산상보훈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르쳐진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한 제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떠나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 때 제자들이 나아왔으며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선생은 앉았고 학생들은 서서 배웠습니다.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날은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 앞에 선다는 것은 진리의 전령으로서 메시지를 전하거나 선포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7 장에는 예수님이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이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팔 복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즉 제자들을 땅의 사람들이 아닌 하늘나라의 자녀로 묘사합니다. 또 나중에는 실제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너희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회 것임이요”(5:3)

산상보훈에서 “복이 있나니”의 본래 의미는 “오, 행복하여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 행복하여라”라는 말이 됩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입니까? 일반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행복한 자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십니다.

근래에 이 말씀을 “가난한 자들은 심령에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번역은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매우 악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가난 자체가 기쁨이나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적 가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은 교만과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또 심령의 가난은 사람이 하나님과 만났을 때 예외없이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하다거나 건방지다면 그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 장에 보면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 환상이 나옵니다. 영광중에 거하시는 주를 뵈고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모든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여호와를 뵈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라고 했으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교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비교할 때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정결함, 거룩함, 의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오,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요, 사람의 눈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자신에 대한 진정한 평가입니다. 자신의 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게 되는 그 순간 ‘오, 하나님, 저를 구해 주소서’라는 탄식이 저절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회개의 진정한 출발점, 즉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5:4)

애통하는 자가 행복하다니, 참으로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올바르게 보게 되면, 즉 심령의 가난에 이르게 되면 자신의 상태로 인하여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자신의 부패함을 보고서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되었고 진정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스스로는 아무 힘과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무력감 속에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어집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5:5)

온유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 없는 덕목입니다. 세상은 저돌적인 사람이 되도록 부추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복을 논한다면 성경에 쓰여진 내용과 정반대 되는 인간의 성품이 복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춰야 할 특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하늘나라를 열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덕목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 때의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전쟁과 다툼이 그치고, 하나님의 의와 진정한 평화 안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땅을 상속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25:34)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6에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된 자들입니다.

이제까지의 세 가지 덕목이 다소 소극적인 특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네번째 덕목부터는 적극적인 특성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율법이 선한 것, 즉 이상론을 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면서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고 말했습니다(롬 :20-24). 이것은 의에 주리고 목말라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음으로써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을 깨닫는 자, 즉 의를 갈망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5:7)

본문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공홀을 입은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공홀을 베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순서를 뒤집어 ‘공홀히 여겨서 남을 용서해 줄 줄 알아야 결국 자신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배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함받았다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5:8-9)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묘사가 여기에서 마무리됩니다. 다음 절부터는 이러한 덕목들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는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영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과 배척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5:11-12)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영접하지 않는다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박해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과 관련된 이러한 덕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의 핍박이 바로 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을 속이고 짓밟을 것입니다. 악을 행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것은 핍박당하는 이유가 ‘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괴상한 일 때문에 경멸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제가 LA 에 있는 성경대학에 다닐 때,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여학생 한 명이 저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그 여학생은 매우 시끄럽게 떠들며 괴상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습니다. 발끝까지 덮는 검정색 옷을 입고 화장은 전혀 안 했는데 전에 오페라 가수였기 때문인지 어딜 가든 큰 소리로 웃고 말했습니다. 그녀로 인해 저는 종종 비위를 상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그 여학생은 시내로 들어가는 전차를 탔었는데, 그때마다 저와 마주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녀는 특유의 큰 목소리로 “형제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워낙 크고 옷차림도 괴상했기 때문에 전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와 저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그녀에게 “전차 안에서 그런 큰 소리로 권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핍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이상한 행동으로, 또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무례함으로 핍박받는 것을 복되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과 의를 추구하므로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앞에 닥치는 핍박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연 이 핍박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온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핍박과 비방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의 자연적 성품은 비방과 핍박을 당하면 슬퍼하거나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의를 구하는 데 주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3 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만나 고쳐줍니다. 이 일로 두 사도는 심문을 받고 두 차례나 감옥에 갇힙니다. 심문하던 자들은 이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핍박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보다 앞서 핍박당하였던 선지자들의 무리에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스테반은 공회 앞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들이 들먹거리는 그 조상들도 선지자들을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예언되었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스테반의 말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영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척하고 핍박한 하나님의 모든 진실한 선지자들의 무리에 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접받으며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잘 지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려 하지 않으므로 생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된 평화와 안전을 전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는 말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선지자는 그러한 말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5:13a)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냉동저장을 할 수 없었으므로 당장 사용하지 않을 고기는 소금에 진하게 절여서 보관하였습니다. 소금은 육류의 표면에 붙은 세균을 죽임으로써 부패를 방지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신 의미는 “너희는 세상을 부패로부터 방지하여 세상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독교는 그 사회를 보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가 강하게 주장되는 사회는 건전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회 역시 쇠퇴해질 것입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미국을 예로 들면, 초창기 나라를 건설할 때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에 의해 기초가 닦였습니다.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것은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스도인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그 영향력도 약해져서 이제는 기독교적 민주주의의 기초가 많이 부식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린 아이들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음란퇴폐물이 버젓이 제작되어 판매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 중에 LA 경찰서에서 어린이 착취에 관해 책임자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분이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경찰이 어린이 음란물 제작소를 수색할 때마다 그곳에는 엄청난 분량의

사단 승배의 글들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살인사건의 장소에서도 종종 사단 승배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변태적 사고를 갖게 하는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원천은 사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주권과 권세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이 싸움에 적절히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육적인 무기를 쓰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일이며, 영적인 부흥을 다시 촉구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며 우리의 대적이 되는 저들의 배후에는 본질적으로 악한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5:13a)

소금이 제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됩니다. 만일 교회가 그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인기 위에 세워진 교회도 쓸모없습니다.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영적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오래되어 그 짠 맛을 잃게 되면 길거리에 버려져 잡초를 죽게 하는 제초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최후통첩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5:14a)

이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으로 그들은 어부였으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천한 배경을 지닌 하류 인생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곳은 갈릴리 지방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지역의 어느 외딴 산 언덕 위에 용기종기 모여 앉은, 보잘것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교회는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다메섹 도상의 사건을 얘기하면서 주께서 이방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자기를 부르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변치 않는 사명입니다.

“산 위에 있는 등불이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5:14b- 15)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으로써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비추어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세우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진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5:16)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육신적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누구나 알듯이 많은 사람 앞에서 영웅이 되는 것은 이름없이 수고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사람 하나 없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것을 알리기 위해 애씁니다.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병든 자나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고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알고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빛으로 인한 영광이 우리에게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지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5:17)

율법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영원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대신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맺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기초가 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5:18-19)

여기서 일점 일획이란 히브리 글자의 모음기호와 같은 아주 작은 표시들을 말합니다. 한 율법사가 어느 날 예수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22:37-39).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요약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롬 13:10). 율법의 대부분이 부정적인 명령, 즉 “하지 말라”는 명령인데 비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적극적인 명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5:19-20)

이 말씀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따를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이 이들의 인생목표였습니다. 이들은 옷에까지 말씀을 쓴 옷술을 크게 하여 달고 다녔으며 기도중에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해보인다든지 하여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들에게 예수께서 “소경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려고 했다는 것은 피 채 먹지 말라는 율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기에서 피를 철저히 제거해서 정결케 한 후에 먹었습니다. 따라서 하루살이가 목 안으로 날아 들어가면 행여나 하루살이를 피 채 먹게 될까봐 손가락을 목구멍에 넣어 토해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이들보다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랐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가르침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는 갈대아어를 썼으며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가 일상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는 학자들만의 언어였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은 율법을 직접 읽지 못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복하여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교훈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말씀하시고, 그 가르침에 담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는 큰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단순히 육적인 관점으로 가르친 데 반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뜻, 곧 영적인 의미를 가르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드러난 행동보다는 마음의 중심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동은 조심하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더러운 채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행동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보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의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는데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많은 자선을 베풀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어떤 행위들을 규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뜻은 사람의 중심, 곧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육신적 안목대로 해석한 행위규범으로서의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비를 구하기는 커녕 스스로 의롭다고 자만하여 자신들처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잘못된 의에 관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눅 18:10-14)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율법을 육신적으로, 즉 외형적 행위의 문제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5:21)

예수님은 22 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살인은 억제되지 않은 무모한 분노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분노의 감정은 우리들이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억제합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미운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에 대하여 이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미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본적인 동기, 즉 미움을 제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형제를 대하여 ‘라가’(헛된 녀석)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5:23-24)

기하학에서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두 점을 잇는 직선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하학의 원리와 다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직접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라나 하나님께 가는 최단거리는 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망들을 만한 형제가 있는지 살펴보며 돌아가는 길입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5:25-26)

여기서 옥이라 하면 옛날에 빚진 사람들이 가던 감옥, 즉 채무자 감옥(debtor's prison)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5:27-28)

바리새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간음은 안했으니 떴פת하다고 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를 살펴보면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의 해석과 예수님의 해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의 참 뜻에 비추어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써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예수님의 의를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는 몽학선생입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5:29-30)

우리는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한쪽 눈으로만 범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오른쪽 눈을 빼내야 한다면 왼쪽 눈도 빼내야 합니다. 오른손이 소매치기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오른손만 잘라야 합니까? 두 발과 왼손도 거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눈을 뽑아 내고 손을 자르는 끔찍한 무서운 예를 드신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요 최대의 소망임이 거듭해서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지가 온전한 것보다, 두 눈이 다 붙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생을 위해 어떠한 것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5:31-32)

오늘날의 높은 이혼율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에게는 권리가 많지 않았습니니다. 남자는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할 수 있었으나 여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즈음도 그렇듯이 법해석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혼에 대한 법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학파들의 양대산맥 중 하나였던 힐렐(Hillel)은 이혼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남자가 여자를 내쫓을 수 있는 경우는 그녀가 처녀로 시집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샴마이(Shammai)라는 다른 랍비학파는 이혼법을 자유롭게 해석하여 이를 테면 아내의 요리 방법이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아내에게는 이것을 거부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생각컨대 이러한 이유로 고전적인 지참금제도가 대중화되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지참금제도는 남편이 아내에게 미리 지급하는 별거수당이었습니다. 이것을 결혼 전에 신부의 아버지가 받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남편이 그 여자를 버리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받아 생활했습니다. 이혼이 다반사인 사회에서는 여성을 보호해 주는 제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이혼법 해석이 만연하던 당시의 사회현상 때문에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9 장에는 이 문제가 자세히 다루어져 있으므로 그 때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회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5:33-37)

마음속으로는 ‘아니오’ 하는데 말로는 ‘예’ 한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하는 행위를 예수께서는 ‘기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말과 생각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맹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에 대해서는 결코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를 잘하는 사람은 평소에 사람들로 부터 진실하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류입니다.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강도 높은 맹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할 일은 ‘예’ 하고,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 아니오’ 하면 되는데 말끝을 길게 늘어뜨려서 ‘그렇게 한다면 기쁘겠지만...’이라든가 ‘형제여,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은 안 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거부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만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5:38)

이 율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 율법은 일반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사사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어진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각 개인에게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질없는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까? 명예까지 들먹이며 우리 가족이, 우리 단체가, 우리 민족이 상대방에게 당한 피해를 동일한 방법으로 갚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대응하지 않는 자는 비겁한 사람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본때를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은 개인적인 복수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5:39)

이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서 복수를 해서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5:40-41)

당시의 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들은 히브리인에게 그들의 짐을 2Km 정도까지는 운반할 수 있도록 강요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와 그 정부를 중요했으며 끝없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이 로마의 이 법을 혐오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5 리를 가자고 하면 10 리까지 가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5 리까지 동행해 줄 것을 요구한 로마 군인이 10 리까지 동행해 주겠다는 말을 들으면 어안이 병병해질 것입니다.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5:42-45)

태양과 비 같은 자연의 혜택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의인에게 차별없이 주십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도 악인에게 잘 대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한 정도의 율법이라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에 따른 해석에 의하면 우리들은 피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며, 또한 나는 도저히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와 구원을 요청하도록 우리들을 이끄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5:46-47)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신자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이나고 묻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불신자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들만큼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은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사랑, 즉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48 절의 말씀을 읽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5:48)

사람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며 온전하려고 해도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6 장을 공부하기 전에 만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들은 그분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직접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엡 2:7). 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그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유 24 절).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앞에 흠이 없이 온전하게 서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골 2:9)라고 합니다. 여기서 ‘충만하여 졌다, 또는 온전하여 졌다’는 말에는 본문의 온전하심이라는 말과 비슷한 뜻의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 졌으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온전하게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온전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도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적이며 율법은 영적인 것이므로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는 육신이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고 로마서 7 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며 영적인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외적인 측면만 보고 스스로 의롭게 여긴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태도를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의 태도를 주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산상보훈 - 선행에 대한 근본적인 원칙

외식적인 선행에 대한 경고

마태복음 6 장을 살펴봅시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근본 원칙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예를 들어 설명하시며 마지막으로 그 원칙을 확대하여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방법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6:1)

첫번째 원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이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행할 때 그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이나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심판날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0)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행위들은 그 이면의 동기에 따라 심판받을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만들었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의 의로운 행위의 동기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나무나 풀이나 짚과 같이 불살라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행했던 모든 행위는 다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주를 위해 했다고 한 일들 중의 많은 부분이 사실은 주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 공력이 불 가운데서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동기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주를 위한 일을 하도록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 또 유일하게 합당한 동기입니다. 사랑 없이도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가령 제가 전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난 후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TV의 토크 쇼에 나가서 점잖은 미소를 띠우며 스스로 이러한 엄청난 구제 사업을 벌였다고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면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서 ‘척 스미스, 그 사람이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대단하군!’하며 칭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저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상급대장을 살펴보시며 ‘어디 볼까? 척 스미스의 상급관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구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니, 하나님,

아무 기록도 없다니요. TV 토크 쇼도 안 보셨나요’ 하며 확인해보려고 해도 ‘척, 너는 그 때 사람들로부터 상을 다 받지 않았느냐’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예수께서 강조하신 부분입니다. 즉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방식으로 선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14 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취느니라”고 하신 말씀과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에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든 선행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 줄 것을 기대하고 어떤 일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급이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상급받을 것을 전혀 바라지 않고 그저 착한 일 그 자체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하기 좋은 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동기가 위장된 발언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착한 사람이로구나. 아무런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다니’ 하며 감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식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상급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급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구원은 상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단순히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 즉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상으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내가 일해서 받는다거나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엡 2:8-9).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분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수행했느냐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상급을 받으려는 기대를 갖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하지 말라는 기본원칙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구제, 기도 및 금식이라는 세 가지의 행위를 실례로 들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하는 데에 옳은 방법과 그릇된 방법을 가르쳐 보이셨습니다. 옳은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한다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상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행위를 있게 한 동기, 즉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함인가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사람들의 칭찬, 즉 사람들이 주는 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가 벌어집니다. 해마다 갈수록 신기한 묘기들이 백출합니다. 로켓으로 쏘아 올린 폭죽들이 오색의

광채를 받으며 순식간에 ‘뿡’하고 머리 위에 터진다거나 공중에서 회전을 반복하면서 다른 불꽃들과 함께 아름다운 무늬를 창공에 그리는 것을 보고 관중들은 매료되어 ‘잘 한다’는 감탄사를 외치며 박수를 보냅니다. 무수한 섬광을 받으며 순식간에 왔다가 사라지는 불꽃들을 관중들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지켜봅니다.

세상의 영광은 불꽃놀이의 폭죽들이 ‘뿡’하고 터졌다가 잠시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는 현상과 흡사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너무도 빠르게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자고 깨어나면 새로운 인기 스타가 등장하여 어제의 스타가 누렸던 영광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스타를 기다립니다. 다니엘서 12:3 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하기 원하는 분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인간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6:2)

저는 어느 부흥사가 설교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 가운데 15 명이 제 사역을 위해서 1 천 달러씩 헌금할 것이라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15 명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1 천 달러를 헌금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자, 그는 “할렐루야, 축복받은 성도여,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라고 외치며 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일어난 성도는 손에 수표를 들고 있었으며 그 부흥사는 그 수표를 재빨리 받아 넣고는 “이 헌금은 제가 하나님 대신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없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그 부흥사는 물론 그 헌금을 바친 사람도 그의 1 천 달러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이미 1 천 달러의 헌금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공포했기 때문에 자신의 상을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훌륭한 자선가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많은 설교자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못한 동기를 유발시켜 헌금하도록 만드는 사실을 매우 슬프게 여깁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헌금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을 그들이 강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죄입니다. 양들은 순진한 짐승이라 이런 것을 잘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으로 헌금을 유도해서 받아내는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들이 하는 행위를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제할 때에 나팔을 불지 말라 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행해지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베풀어야 합니다. 크게 떠벌이며 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헌금할 때에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7 에서 헌금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억지로 서약했기 때문에 아까워하면서도 내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금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선을 많이 베푼다는 사실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헌금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였는데 여기서 ‘즐거 내는’이라는 말은 ‘갈갈 웃으며 낸다’라는 말입니다.

헌금할 때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헌금은 드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금을 원하시지도, 필요로 하시지도 않습니다. 헌금드리는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극히 개인적인 일로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당신의 헌금과 자선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며 자선을 베푸는 일 때문에 사람들로 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6:5)

유대인의 생활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쉼마도 암송해야 했습니다. 쉼마는 구약성경 가운데 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부분은 신명기 6:4 에서 시작됩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이 쉼마를 암송했습니다. 오전 9시 이전에, 밤 9시 이전에 하루 두 번씩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쉬메나쓰’라는 기도문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쉬메나쓰’란 18 개의 독립된 기도문인데(후에는 19 개가 되었음), 모든 유대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암송해야 했으며 하루에 세 번씩 외웠습니다(아침 9 시, 낮 12 시, 오후 3 시). 이들은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의무적으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에 드려야 했으므로, 이것이 그들의 관습과 의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어떤 유대인들은 아침 9 시가 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서 이 장황한 쉼마와 쉬메나쓰를 암송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보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믿음이 매우 깊구나’하며 칭찬했습니다. 이 칭찬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매우 훌륭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단추만 누르면 저절로 입력되었던 기도가 나오는 그런 식이 됩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나오는 기도는 공허한 단어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아볼 수 없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부터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는 한 목회자를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연하게 그분과 제가 같은 여름 수련회의 강사로 초빙되어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가 어떻게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매일 아침 6 시부터 7 시까지 예배당에서 전캠프에 들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명성을 갖기를 참으로 원하실까? 하고 의문을 가져 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더 맞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명성을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동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는 동기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도의 동기가 그릇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동기는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스스로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속는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개인적 동기와 관련하여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시 139:4-6).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결말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오, 하나님, 나는 자신을 속일 가능성이 많사오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깨우쳐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동기를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옳은 방법과 동기로 선행과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이 허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의하여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려는 동기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 드려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갓아주십니다.

기도하는 데 두번째 잘못된 같은 말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정한 시간 이상을 기도해야만 그 기도가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문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대개는 상당히 짧은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을 긴 시간 동안 하려고 하니 자연히 공허한 상투적인 문구들을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기도는 꼭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먼저 앉아서 당신의 관심사를 아뢰고, 당신의 마음을 그분께 솔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있었던 좋고 나쁜 일들의 세목을 일일이 그분께 알려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의미없이 공허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의 경우는 ‘축복받으신 마리아여’ 또는 ‘우리 아버지여’를 계속 반복하도록 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헛된 반복에 불과할 뿐입니다. 단순히 암송으로 읊어대는 주기도문은 가치가 없습니다. 당신의 지성과 의지와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6:9a)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요한복음 9 장을 살펴보면 날 때부터 소경 된 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후, 바리새인들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 되었던 사람을 두번째 불러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예수)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이르자 그 사람은 “그(예수님)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고 다시 묻자, 그 소경 되었던 사람은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요 9:27, 30, 31)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이 나서 열심히 예수를 옹호하는 이 소경 되었던 자에게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하며 화내며 그를 쫓아보냈습니다. 여기에서 이 소경 되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한 말, 즉 요한복음 9:31 은 영적으로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도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는 죄인의 기도 한 가지는 바로 세리가 드렸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하지만 마음에 악을 품고 있으면 주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끊는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관계가 설정되는데, 그것은 어린 아이가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6:9b)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경외한 나머지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감히 그들의 입으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본을 만들던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 모음을 생략하고 자음만 썼습니다. 모음만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웨’라고도 하지만 우리는 확실한 발음을 알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야웨’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확한 발음은 후세에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사본에 옮겨 적었던 서기관들은 이 단어가 나오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 목욕을 하고 새옷으로 갈아입은 후 경건한 마음으로 새 잉크 통에 새 펜으로 자음만을 적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구절을 옮겨 적어야 했던 날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본받을 만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이름이 거룩하고(holy) 지존하시도다(reverend)”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기도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의 이름 앞에 ‘reverend’가 붙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성직자의 명칭으로 영어권에서는 이름 앞에 Reverend 또는 약어로 Rev.로 사용되고 있음-역주). 하지만 제 이름 앞에는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척 스미스는 지존할 만한 데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도 이름 앞에 어떤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 이름과 관련하여 The Reverend Chuck Smith 라고 하기도 하며, 어떤 분은 그것도 모자라서 The Most Reverend Chuck Smith 또는 The Most Right Reverend Chuck Smith 라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의 이름 앞에 여러 가지 칭호를 붙이려는 노력은 헛된 일이며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칭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하시며 지존할 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명칭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명칭의 사용을 엄숙히 반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Reverend’라는 칭호를 상용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결코 높임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첫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인식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렘 32:2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도할 때 자주 자신의 한계를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제한해 버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무게를 짐이요, 불가능한 일이므로 하나님에게도 그러리라는 발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6 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아시고 또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이 계심과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는 기원입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도 기원입니다. 이렇게 처음 세 가지의 기원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도에서 가장 우선적인 기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수단으로 기도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타락된 세상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에 따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모든 것은 이미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부여하신 도덕적인 인격체로 창조하셨으며 이러한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존중하시고 꺾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곧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간절히 원함으로써 참여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 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KJV 에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라고 되어 있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He Shall give it to you)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수 있도록’(He may give it to you)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즉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준 자유의지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자신의 의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이나 순복음계열(Full-Gospel circles)을 통해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설교자들 중에는 이와 관련하여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순복음계열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잡고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기도로써 하나님께 강하게 요구하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이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셔야만 하는 작은 요정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주의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영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부분적이며 표면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가 많음을 시인합니다.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기도하다가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가 알지 못하고

기도한 영역에 대해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속에서 저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즉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온당한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6:11)

이 기도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6:12)

주목해야 할 구절입니다. 11 절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현재를 위한 기도이며, 12 절에서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죄, 즉 과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13 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주님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는 미래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바라는 것은 나의 삶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 사항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납니다.

기도는 세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기도는 경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인식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만을 느끼고 압도당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막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느끼거나, 아름다운 꽃을 보고 창조의 하나님을 느끼고, 또 어린 아이의 출생을 통하여 생명체를 만드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경배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간구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나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내 주변의 타락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입니다. 세 가지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보 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는 간구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즉 경배입니다. 주기도문이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간구에서 시작하여 중보로 옮겨가지만 모범적인 기도는 중보에서 시작하여 간구로 이어집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기도예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와 중보기도,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12 절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다른 간구 내용들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를 근거로 주어진다는 의미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행함으로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서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6:14-15)

제가 이 말씀을 바꿔야 하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이는 베드로의 수학적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상당히 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하고 강조한 듯합니다. 예수님은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우리도 당연히 남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용서에 대한 훌륭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18:23-35)

용서받은 자는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용서하는 자가 용서받을 것이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해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제 본성에 반대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의 성품은 당한 만큼 갚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한번은 누군가가 제 차에 길게 상처를 냈습니다. 저는 그 일을 저지른 자가 누구이든 간에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언젠가는 누군가 제 차에서 양복 두 벌을 훔쳐갔습니다. 세탁소에 가져 가려던 더러운 옷들이었는데 그걸 훔쳐가서 어떻게 할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배가 나온 사람이 입는 양복이 몸에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사람에 대해 용서의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저의 옛 성품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다 썩어질 것들이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미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보일수록 대적자는 많아집니다.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자신을 괴롭게 하거나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오르도록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몸 안에서 화학적 물질들을 분비시켜 내부에서부터 육체를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리체계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해로운 물질을 분비시키는 원인이 되는 미움, 복수심, 분노 등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바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파괴시키고 있는 현실은 진실로 비극입니다. 다음 구절에는 금식이라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데 대한 그릇된 방법과 올바른 방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6:16-18)

저는 목회 초기에 자주 금식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금식하는 동안에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사람들과 가정을 심방하기도 했는데, 마음씨가 고운 주부들이 집에서 만든 과자 따위를 대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참으로 고맙습니다만 저는 금식중입니다’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금식을 깨고 그 과자를 먹었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사람들의 존경심이 그 금식에 대한 상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사람에게보다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애기해서는 안 되므로 이 고민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었는데, 특히 갓 구워낸 과자를 앞에 두고 어디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는 그 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사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재산에 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6:19)

몇 해 전에 사람들이 금과 은을 사기 위해서 소동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유행 구매로 인해 수요를 창출해 내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형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금과 은을 매입하여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줄이려고 하였습니다. 이 금으로 통신판매를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금과 은을 매입하도록 강권했습니다. 그 편지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곧 휴지조각이 될 돈으로 금과 은을 사두라고 재촉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저들은 휴지조각 같은 돈을 받고 자기들의 금덩이를 내준다고 하는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금을 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과 은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은시장이 파산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었습니까? 은사업을 하던 헛트는 수십억 달러나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가 만일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읽었더라면 그러한 엄청난 고통은 면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은이 다시 1 온스에 5 달러가 되었습니다. 금은 1 온스에 300 달러입니다. 예전에 금이 1 온스에 800 달러였었는데 지금은 300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1 온스 당 800 달러나 주고 금을 산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의 보물은 그 가치가 점점 상실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좀과 녹이 슬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해 갑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6:20)

이 말씀 이면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21 절의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진리입니다. 만일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다면 마음도 또한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면 마음도 또한 하늘의 영적인 것에 있게 됩니다. 하나는 일시적이요 또 다른 하나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 장에 나오는 비유인데, 곧 주인에게 해고당하게 되어 있는 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자로서 곧 해고당할 위기에 처한 현실 속에서 약삭빠른 꾀를 부렸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다가 그 빚을 임의로 감해 주었습니다. 기름 100 말을 빚진 자에게는 50 말로, 밀 100 석을 빚진 자에게는 80 석으로 감해 주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이렇게 함으로써 해고당한 후 이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아 나름대로의 생활을 해나가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의 주인이 그를 칭찬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부정직한 것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지기는 현재의 주어진 위치를 자신의 미래를 위해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대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에 주어진 기회들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죽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적 장부에 추가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살아 있을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써버리면 주님의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이용해서 하늘에 우리를 위한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모든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영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6:22-24)

이 말씀도 보물을 어떻게 쓰느냐는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보물 자체를 중히 여기면 그 보물이 주인이 되어 버립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배금주의에 빠져서는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중히 여기다보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되며, 하나님을 중히 여기게 되면 돈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려고 애쓰는 것은 헛된 노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6:25-26)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새들은 일하지도 앉지만 천부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씨를 뿌리지도, 수고도, 수확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오직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새들이 그저 나뭇가지나 전봇대 줄에 앉아서 입만 벌리고 벌레들이 날아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새는 땅으로 내려와 벌레를 열심히 찾아 먹습니다. 결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그저 할 일 없이 돌아다니거나 누워 있으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는 내용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일할 힘과 능력을 주셨으며, 우리가 이 힘과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집세를 어떻게 낼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새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키가 작다고 걱정함으로 키가 자랍니까? 걱정함으로 상황이 변화됩니까? 걱정은 걱정만 일으킬 뿐이며 현실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6: 28-30)

본문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염려를 대조하시면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질책하십니다. 믿음과 염려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서 사라질 들꽃도 그같이 아름답게 꾸며주시거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야 얼마나 잘 입혀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6:31-32)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우리 삶에서 가장 으뜸되는 추구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열정적으로 추구합니다. 이방인들은 이교도라고도 해석되는데, 그들은 먹고 입고 마실 것을 걱정하고 추구합니다. 미식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많이 탐독하는 잡지는 온통 의복이나 음식에 대한 관심사로 차 있습니다. 이런 관심과 열정은 실로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6:33)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옷과 음식을 사는 데, 또한 이것들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얻는 데 얼마나 많은 관심과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유행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압박감을 주어 유행에 지난 옷들은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버리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업주의의 희생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음식준비하는 데에도 게으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사는 데 1 달러 25 센트를 줍니다. 19 센트만 들이면 생밀을 사서 건강에 좋은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데도 만들어 놓은 빵을 삽니다.

우리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오랜 시간 길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6:34a)

우리의 주된 염려가 내일 일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일보다는 내일 일에, 다음 주의 일에, 즉 미래에 대해서 더 염려합니다. 오늘은 이미 우리 앞에 있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은 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6:34b)

야고보서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약 1:22). 예수께서도 산상보훈을 끝내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7:24)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 일들로 인해 근심하며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합당합니다’하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자로서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자와 같이 폭풍우가 불어 닥칠 때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산상보훈을 묵상하며 그대로 실천하도록 합시다.

산상보훈 - 행하는 삶의 중요성

비판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스승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교육방식을 살펴보는 매우 유익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원칙을 선언하시고, 둘째로 이에 대해서 설명하시며, 셋째로 이에 따른 적절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 확고하게 세워진 어떤 원칙들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러한 원칙들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일관성 있게 이러한 원칙선언, 부연설명, 예증의 세 단계를 통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 장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7:1)

1 절은 원칙을 말씀하셨으며 2 절은 이 원칙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십니다. 그리고 3 절부터는 예화입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7: 2-6)

이 구절은 해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개와 돼지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면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KJV 에는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로 되어 있음-역주)는 말씀과 상충되는 듯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죄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형제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 장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무서운 일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얼마나 끔찍해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잔인하고 음란하며 참람하면서 온갖 추악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적한 후에 로마서 2:1 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볼 때에 우리는 ‘저런 행위는 끔찍해. 잘못되었어. 악한 일이야’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되고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남이 저지르는 행위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가 내리는 그 판단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더 잘 알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받는 사람의 잘못과 유사한 잘못을 저지른다면,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우리야를 죽인 다윗 왕을 찾아가서 들려준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한 부자의 옆집에 아주 가난하여 가진 것이라고는 암양 한 마리뿐인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암양을 무척 사랑하여 함께 자고 먹으며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하인에게 명령하여 옆집의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강제로 빼앗아 손님에게 요리를 해서 대접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분노하며 그 부자를 당장 사형에 처하도록 정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이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 놓고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옆집에 우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음모를 꾸며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나단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다윗에게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 악한 자를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을 내렸을 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르는 악행들을 남이 저지를 때에는 열성적으로 그를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 자신도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도 저지르는 잘못을 남들이 저지르면,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러한 일을 저지를 때는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장미빛 유리를 통해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관대하게 평가합니다. 설사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지라도 변명의 여지를 찾아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을 주변 사람이 행했을 때 가장 심하게 그들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비판과

정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면 그 기준에 의해 우리 자신도 판단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잘못을 재는 그 잣대가 바로 나의 잘못을 재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잘못을 찾아내고 쳐주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7:3-5)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자들은 남들에게 약점을 잡히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흠만 찾고 다니면 사람들도 그 사람의 흠을 캐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혼자 손해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을 깎아 내리면 저들 또한 나를 깎아 내리려고 할 것입니다. 원칙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7:6)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갖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조롱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분명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들었을 베드로가 훗날 자신의 서신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온갖 폐악한 행위에 대해서 언급할 때에 개와 돼지의 비유를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벧후 2:22)했는데, 이것은 개와 돼지에 해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원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판단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어도 좋을 사람과 그래서 안 되는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7 절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7:7a)

“구하라”(ask)라는 단어는 우리의 기도생활에 적용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신의 기도생활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결코 “구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다”라는 단어는 간청하다(beg), 탄원하다(beseech)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생활에 관해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는 “묻다”(inquire)로서 “내 아버지께 물으리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생활에 대한 가르침에서 사용하신 단어는 ‘간청하다’, ‘탄원하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진실로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4:3 에 보면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7: 7b)

좀더 강하게 표현된 이 말씀의 헬라어 시제는 현재완료형으로 뜻을 잘 살펴 번역하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아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일회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 생활은 연속적이어야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7:8-11)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제일 먼저 강조하셨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다시 한 번 주목해 봅시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 나아가갈 때, 자기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이 관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그 아이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빠, 나 배고파요 피너츠 버터 샌드위치가 먹고 싶어요’ 한다면 아버지 된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옛다. 여기 돌맹이가 있으니 이거나 떡 삼아 씹고 있으렴!’ 하겠습니까? ‘그래, 저기 냉장고에 있으니 가서 먹으렴!’하던가 아예 꺼내 주겠지요. 아이가 ‘나 참치 먹고 싶어요’하는데 그 아이에게 뱀을 주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기를 원합니다. 빵을 달라고 하면 빵을, 참치를 달라고 하면 참치를 줄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즉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히브리 수사학에서 흔히 쓰이는, 작은 일에도 그러하거늘 큰 일에서야 더욱 그렇지 않겠느냐는 논리의 전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관해서 ‘성령세례를 받으려다가 귀신 들리는 수가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제가 이제까지 들어본 말 가운데 가장 불경스러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이 말로 인해 상당수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받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가 대신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갈 때는 온전한 확신을 갖고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함으로써 내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두려워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허락하시는 일, 보내시는 일, 요구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조심해라, 네 마음에 무엇무엇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꼭 그걸 네게 주신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근심하게 되거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사단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우리 삶에서 최선의 길은 우리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준비해 두신 그 길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유익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최선의 계획들을 이루시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간섭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스려 그분보다 더 잘 아는 척할 때에 실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서 가장 현명하고 바람직한 일은 그분의 손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12 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요약이나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합니다. 버논 맥기(Mcgee)는 우리에게 “그러므로”(therefore)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 때문에”(wherefore)라고 반문해 보도록 충고한 바 있습니다. 황금률로도 불리는 12 절 말씀은 결코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를 빼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인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यो 선지자니라”(7:12)

이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단락의 끝마무리 말씀입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과거의 위대한 스승이나 철학자들을 인용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공자는 “네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으며 소크라테스도 “너를 불쾌하게 하는 일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 표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죽이지 않으므로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거나 ‘나는 내가 내 소유물을 강제로 빼앗아가기를 원치 않으므로 나도 네 것을 강제로 빼앗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라’는 적극적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즉 공자의 말에 따르면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가 됩니다. 또한 공자의 말에 따르면 ‘나는 네게서 흠치지 않겠다’가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네게 주겠다’가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전자는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후자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사랑과 용서는 적극적인 대인관계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이 계명을 준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찾아서 얻고, 문을 두드리 열리게 되는 성경적 해결방법에 의존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얻으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신 교훈들을 이행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7:13-14)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헌신과 성화의 길입니다. 어떤 분야라 할지라도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신앙의 길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공을 얻는 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 장에 기록되어 있는 도마와 예수님과의 대화장면을 생각 나게 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본문에서 예수님이 맨 먼저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15 절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너무 수용의 폭이 좁다고 비난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수용의 폭에 대해 대단히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넓은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길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다 잘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주장인 듯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넓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종교적이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리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좁기 때문에 그 문을 찾는 자도 적다고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당신을 너무 좁다고 비난한다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은 옳은 길을 택했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7:15)

15 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들은 양의 가죽을 입고 나아오지만 사실은 노략질하는 이리들입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경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도무지 늑대같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거짓 선지자라는 표식이 없습니다. 양의 옷을 입어 양같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성직자가 이 길, 즉 좁은 길 이외에 다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경고가 나온 배경을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선한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인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거짓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 중 하나는 그 시대의 대다수가 받아들이는 진리를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거짓 선지자가 도무지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위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은 모든 진리로 위장하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진리입니다. 허버트 암스트롱(Plain Truth 라는 무료잡지를 발행하는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소재의 Worldwide Church of God 의 교주-역주)의 많은 말들은 진리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의 많은 말들도 진리입니다. 요셉 스미스가 한 많은 말들도 진리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들을 모을 때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즉시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진리에 접하여 영생의 문제를 다루게 될 때에,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가 당신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인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이끄는가, 아니면 종교적 제도나 종교적 의식이나 어떤 교회를 믿도록 이끄는가?

어떤 사람이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믿도록 한다거나, 영생의 문제에 관하여 예수님만 완전히 신뢰하면 충분하다는 사실에 의심을 갖게 한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어보기 전에는 식별해내기 어렵습니다. 저들이 많은 진리를 그 교리에 섞어 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를 매우 교묘하게 섞는 재주를 가지고 있으므로 듣고 있다 보면 미로에 빠지듯 미혹되기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에 관한 문제입니다. 좁은 길을 가리키고 그 길로 이끌고 있는냐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양을 먹이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속여 빼앗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모임에 빠지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조직 유지를 위한 기부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그의 단체에 재정적으로 속박당하도록 만듭니다.

베드로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 특징 가운데 하나를 탐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 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좃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훼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1-3)

거짓 선지자들은 양들에게서 이익을 취합니다. 탐욕이 그들의 근본이며 각종 속임수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추종자들이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도록 몰아갑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빈털털이가 아닌데 왜 자꾸 돈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사람들의 후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억지로 내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헌금하도록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동기로 헌금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돈을 강조하며 영리 목적의 사업에 끌어들이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영경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7:16-20)

말로 거짓 선지자들을 식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식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경고하신 후, 이어서 거짓 고백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7:21)
그러나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 자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9 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원받는 데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46 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를 그저 예수님의 이름 정도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첫 이름(first name)은 주요, 가운데 이름(middle name)은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성(last name) 정도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 뒤에 점표(.)를 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라는 단어가 이름이 아니라 나와 그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노예요 종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므로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명하시면 ‘왜요’라고 물을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며 그분은 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거짓 고백이므로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두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눅 6:46)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욥바의 해변가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는 기도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행 10:11-13). 이 명령에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그럴 수 없나니 무슨 말이나? 너는 네 입으로 나를 주라고 하면서도 나의 명령에 불순종하겠다는 말이나?’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와 같은 잘못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저지릅니까?

‘주’는 예수님의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를 정해 주는 칭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모든 인류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7:21 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주께서 나의 주인 되심(Lordship)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꼴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7:22)

주목해 봅시다. 이들은 예수를 주라고 불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7:23)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즉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갖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그분께 순종하지도, 그분의 계명에 따르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들은 자신의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운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원칙을 기억해 봅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동기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 심판받게 됩니다. 그것은 불심판으로서 우리가 한 많은 일들이 나무나 풀이나 짚처럼 불에 타올라서 연기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말이나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것의 동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 불에 타느냐 타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우리의 공력에 대해서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기가 불순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예수님의 이 기준에 비춰보아야 함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험하고 능률적이지 못한 것 같더라도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저는 결코 헛되이 달음박질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생을 달렸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언젠가 한번 물문교인과 대화하다가 영생의 문제에 관해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는 자기가 영생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때 진실을 발견한다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고 했습니다. 죽은 후에 영생의 문제를 알게 되면 너무 늦습니다. 지금 그 길을 확실히 알고 선택하는 것이, 또한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참 영생의 길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즉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용된 판단의 영역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누가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복잡미묘한 존재이므로 때로 자신이 하는 일의 동기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39 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라고 하였습니다. “멀리서도”라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그 근원으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기 전부터 우리 생각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겠나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다윗은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러한 간구를 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까? 성경은 자기 기만에 대해 거듭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러서 그분의 빛으로만 자신을 살피야 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7:24-25)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다는 말씀처럼 견고하고 강력한 기초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항상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 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원리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단은 이 영역을 공격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때때로 너무도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때에는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사단이 우리의 이러한 무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도전하며 의심하도록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의 전체를 볼 수 없고 그 순간 걸음으로 드러난 면들만 보게 되므로 사단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합니다.

제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당시에는 너무도 괴로운 재난이었다고 생각되었던 많은 경험이었습니다. 절망과 낙담에 휩싸여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내게는 이제 더 이상 아무 희망도 없어’하며 절규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렘 20:9)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지 못하는 종들에 대하여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저는 일의 전체를 알게 된 뒤에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혜로우시며 선하시다’고 고백한 적이 많았습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야만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여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시 73:1-5).

악인이 잘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낙담합니까? 삶 그 자체를 우리는 조종할 수 없습니다. 삶은 불가사의한 영역이며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든든한 기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바람이 불 것이며 비가 내릴 것이며 홍수가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갖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 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벧전 4:12)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성경의 약속들 중에는 좋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도무지 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릇 경건하게 사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기쁨으로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까지도 축복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깊이 파고 반석에 기초를 놓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7:26)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읽을 때는 누구나 그 말씀이 옳다고 동의합니다. 마음속으로 그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의하고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여, 주여”하며 따르기도 했습니다. 진리에는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진리를 행하지 않았습다.

화평케 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주리고 온유한 자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러한 성품에 동의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교만하고 건방지며, 이러한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고 동의한 진리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으로만 안심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삶은 모래 위에 그 집을 지은 것과 같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7:28)

저는 무리들이 놀란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가장 놀란 대목은 5:20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들보다 결코 의롭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이들이 여기에서 그토록 놀란 이유는 7:29의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입니다.

서기관들은 가르칠 때 권위를 갖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탈무드나 미쉬나나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했습니다. 오늘날도 이들이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면 ‘랍비 가미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하셨습니다’라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가르침을 인용하지 않고 스스로의 권위로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랍비들이 무어무어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가르침을 서기관들과 랍비들에게서 들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선생도 자신의 권위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정부의 관리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로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도 권위를 갖고 가르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허버트 암스트롱보다 더 권위 있게 가르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갖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직 좁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인도하는지, 아니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에게로 이끄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산상보훈을 마치십니다. 산상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서 심한 폭풍이 불어닥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질병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8:1)

5 장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로 시작하는 그 위대한 산상수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 장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좃으니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행동을 친히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사야 35 장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에는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를 둘러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기록한 의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사람들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던 때의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들에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선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더 알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여 타락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중심으로 온갖 죄악으로 부패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하며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뜻과 힘대로 살겠다는 인간들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8:2)

한 문둥병자가 나아와 예수님께 절하였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끔찍스럽게도 혐오받던 질병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이 문둥병자는 사회에서 추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문둥병자는 길에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문둥병자로부터 바람부는 쪽에 있으면 그 문둥병자는 약 90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 했으며, 바람 부는 반대쪽에서는 약 45 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그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나아와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8:3)

주목할 사실은 당시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다는 것은 위법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손을 대는 사람은 부정할 자로 여겨져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체를 만진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사람들은 몸을 씻는 정결예식을 통해서만 깨끗하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하신 행동은 율법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비난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질 경우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은 더 이상 문둥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두번째는 문둥병자가 “원하시면”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라고 대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 곧 자기를 찢던 사단의 사자로 인해서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히 구했으나 주님은 치료해

주시기를 원치 않으셨고 대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필요에 대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로우면서도 큰 믿음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에 대하여 믿음이 부족한 태도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하는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이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었듯이 우리의 주된 관심 또한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고치기 어려운 많은 질병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어떠한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분께 우리 삶을 맡겼다면, 그분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만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그럴 때에 내가 네게 지극히 큰 여러 계시들을 줄 것인즉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네가 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늘 너에게 상기시켜줄 육체의 약한 것을 너에게 주고 그로 인해 내가 존귀히 되고 영광받으려 하노라”고 하실지라도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감사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원하시면”이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뜻대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불치병인 문둥병의 치료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문둥병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라고 시작되는 레위기 14 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8:4)

레위기 14 장을 통하여 문둥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산 새 두 마리를 가져다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 그 피를 받고 다른 한 마리는 이 죽은 새의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치유된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린 후 들에다 놓아주게 되어 있는데 이는 새로 얻은 자유와 새 생명을 상징하는 매우 의미깊고 아름다운 의식이라 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위치한 가버나움은 후에 예수님의 본 동네로 불리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곳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아와 간구하여”(8:5)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나아와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처음 만나 도움을 준 사람은 문둥병자로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였고, 두번째로 도움을 준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언약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 백부장은 예수께 나아와 간구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겠삽나이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이해한 자였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8:9)

이 사람은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수하에도 사람들을 두고 있었으므로 권위에는 명령계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든지 자신이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남의 수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설사 그가 미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누군가 나보다 더 큰 분의 권세 아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독재자의 출현을 가져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권위, 즉 하나님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 아래 있지 않는 자는 사람을 다스릴 수 없으며 권위의 원칙들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권위의 원칙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만 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좃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8:10)

백부장은 이방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런 역사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8:11)

여기서 동과 서는 이방나라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이방인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반면에 유대인을 의미하는 아브라함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온지라”(8:12-13)

예수님의 다음 기적은 당시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철저하게 차별당했던 한 여성에게 행하셨습니다. 당시에 여인이 임신하여 해산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대한 축하연을 벌이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산파가 나와서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모두 크게 기뻐하며 잔치를 성대하게 벌였습니다. 그러나 ‘딸입니다’라고 하면 모두 혀를 차면서 갖고 온 것들을 꾸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셔서 맨 먼저는 문둥병자를, 두번째는 이방인을 도와주셨던 예수님은 세번째로 멸시받던 여인을 공손히 여기셨습니다.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8:14-15)

병고침을 받은 후에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저물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8:16-17)

이사야 53 장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사 53:5). 오늘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영적인 치유에만 적용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구약 주석인 신약성경에서 마태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묘사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의 육체적인 질병을 다 고치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마태는 이사야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하신 것이 영적인 치유는 물론 육체적인 치유도 포함하는 것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언제 이 떡처럼 부취진 적이 있었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유대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 위에 달려 있지 않도록 뼈를 부러뜨려 빨리 사망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십자가에 다가갔던 병사들은 예수님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이하게 생각하며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시편 22 편에서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으리라’는 예언을 성취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에 쓰인 양은 뼈가 부러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희생양이신 예수님도 뼈를 부러뜨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바쳐져야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쪽에 매달린 사형수들의 다리를 꺾고 난 후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하다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옆구리를 찌를 때 피뿐만 아니라 물까지 흘린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죽음을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39 번의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규정된 수의 채찍질은 관례로서 죄수의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 행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봅시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떤 경로로 주님의 종이 되었고 또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는가를 설명하였습니다. 그 때 ‘이방인’이라는 단어에 격분한 군중들이 소동을 벌이자 곁에 있던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왜 군중들이 바울을 향해 소동을 벌였는지를 심문하기 위해 바울을 채찍질하라는 명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때에는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내세워 채찍질을 면했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40 에서 하나를 감한 때, 즉 39 번의 매를 유대인에게 다섯 번이나 맞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의 유대법에 따르면 로마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재판 전에 이러한 벌을 내릴 수가 없었으나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러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죄인을 심문하던 방법 중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채찍 끝에 납을 달아서 만든 채찍으로 때리기 때문에 온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매를 맞으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채찍질로 인해 주님의 몸이 부서지고 속살이 드러나기까지 찢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은 사람이 제멋대로 저지른 일이 아니고 모두 다 예언되고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사야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했으며 베드로는 이 말을 인용하여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성찬식을 그릇 행하여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과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병든 것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찬식에서 떼어진 떡 조각들이 진실로 무엇을 상징하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고전 11:29-30).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주님이 받으신 채찍질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의 몸을 부숴뜨려 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아픔은 우리가 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영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모든 은혜를 영적인 면으로만 적용하려는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영육간에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선물을 부분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쌌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좃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도다”(8:18-20)

본문에서 예수님은 충동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자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겪게 될 어려움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8:21)

7장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말과 행동이 부합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하면서도 주인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같이 모순된 경우는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운 것입니다. “주여”하면서도 “나로 먼저 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뜻을 앞세우는 태도로서 종의 자세는 아닙니다.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은 언뜻 듣기에는 매우 합당한 요구 같지만 이것은 하늘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좃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그 제자의 부친은 건강에 별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 일을 미루기 위한 핑계로 많이 쓰였던 관용구라고 합니다.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기는 했지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지체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버리고 좃아야 합니다.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좃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8:23-24)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이번 뿐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해면의 표고가 낮은데다 주위의 높은 산 사이의 계곡 때문에 기압의 교류가 생기면서 순식간에 강풍이 일어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잔잔한 때는 평온한 유리 같은 수면이었다가도 갑자기 강풍이 불면 파도가 약 3미터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두려움 없이 평안하셨으며 본문에서도 풍랑중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대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8:25-27)

이 사건은 예수님이 모든 자연현상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꾸짖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저편 게네사렛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으므로 가는 도중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결국은 그 곳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8:28)

다른 복음서에는 이 사건에서 귀신 들린 자가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둘 중에 귀신 들린 정도가 더 심한 자만을 기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했을 때 ‘귀신’이란 단어가 여러 귀신을 뜻하는 복수(devils)로 쓰인 것도 그런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게네사렛 지방의 유적을 발견하였습니다. 골란 고원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하다가 발견한 이 지역은 고고학적으로 가치가 높기 때문에 도로를 옆으로 내고 발굴한 결과 돼지떼들이 내리 달려서 물에 빠져 몰사한 그 비탈 언덕을 거의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8:29)

중요한 사실은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정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 믿고 떠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 예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떨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자기의 때가 다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알고 떨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즉 사단보다 큰 분이심을 알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벌일 때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강하고 권세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귀신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침 멀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8:30)

당시 이스라엘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대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8:31-32)

돼지들이 내리달아 죽은 가파른 이 언덕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게네사렛 시에서 몇 킬로미터 안 되는 곳에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은 사람을 귀신에게 하여 마음대로 주장하는 악한 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던 많은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악한 영의 침입을 받으면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빼앗기게 됩니다. 심지어 이 악한 마귀는 그가 점령한 사람의 입을 통해 자신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 문화권에서 성행하던 미신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종류의 사단의 행동들을 경험한 기록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의 귀신 경험」(Demon Experience in Many Lands)이라는 책에는 전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겪었던 악한 영적 실체들에 대한 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 가운데 현대에 일어났던 가장 전형적인 예는 1947년 필리핀에서 테레사라는 소녀에게 일어났던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소녀가 발작을 일으켜 졸도한 후에 깨어났을 때, 온 몸에 이빨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소녀가 자신의 목 뒤와 등을 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소녀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 감옥에 이 소녀를 감금시킨 마닐라 시장은 그 당시 필리핀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을 불러 이 소녀에게서 일어난 현상을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원인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두 명의 선교사가 이 소녀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밤 맥칼리스터와 레스터 서머럴이었습니다. 레스터 서머럴은 「귀신에게 물어뜯기다」(Bitten by Demons)라는 제목으로 이 테레사라는 소녀에 대한 책을 냈는데, 라이프 잡지가 온 몸이 물어뜯긴 그 소녀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어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두 선교사의 노력으로 그 소녀는 귀신에게서 해방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8:33-34)

이 일이 전해지자 온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날 것을 간청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의 딱한 사정보다 자신들의 이익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같이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알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계산에 의해 오히려 주님을 떠납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권능

육적인 것보다 우선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9:1)

여기서 본 동네란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9:2)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친구들은 아마 예수님의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말씀에 매우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먼저 ‘내가 너를 고치노니 일어나 집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친구들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께서는 그에게 무엇보다도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병고침받는 것보다 죄 사함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일들은 위대한하신 하나님의 기적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들에게 위대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가 하며 불평합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저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하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당연한 표정으로 대답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최대의 기적적인 선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기적이라도 이 구원과 가치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보다 육적이며 물질적인 문제들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실수들을 얼마나 자주 저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관성 있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육적인 것보다 우선되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9:3-4)

예수님이 당신의 생각을 아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분은 당신의 생각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느 쪽으로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는가만을 따진다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더 쉬울 것입니다. 이 말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하신 그 즉시 말씀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를 즉시 알 수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더 부담없이 하기 쉬운 말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정한 이유는 그분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디. 다시 말하여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써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심을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증거하려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에 대하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를 보이시기 위함이었습니디.

예수님은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에 따라 병자가 일어나 침상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 무리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태복음 5:16 을 기억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 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좃으라 하시니 일어나 좃으니라”(9:9)

마태는 세관에서 일종의 통행세를 받던 세관원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는 북부 갈릴리 지방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골란 지역과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세운 세관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9:10-11)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자리를 함께했다는 표현을 보니 마태는 아마 자기 집을 모든 이에게 공개하여 잔치를 벌인 듯합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권에서는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적 신앙에 따르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 둘은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빵 한 덩어리를 조금씩 서로 떼어 먹게 되면 그 빵은 각각의 몸 속에서 동화를 일으켜 각각의 몸의 일부가 되는데 그 빵은 원래 하나였으므로 그 빵을 함께 먹은 사람은 신비한 방법으로 결국 하나가 된다는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기초로 자신이 동화되고 싶지 않은 상대방과는 결코 음식을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잡수신 뜻은 무엇입니까? 죄인들과 하나가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죄인들과 동일하게 여겨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들과 하나되어 동일하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9:12)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6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원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는 감사 드리기 위해서 드려졌으나 호세아 당시에는 형식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9:14-15)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날이 오리라는 예고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개혁의 무가치성을 말씀하십니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되느니라”(9:16-17)

당시에는 요즈음과 같이 빨아도 줄지 않도록 미리 줄어든 상태로 만들어서 나오는 옷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기우려면 현 옷은 현 천을 사용하여 기워야 했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현 옷에 새 옷감을 사용해서 기우면 빨았을 때 새 옷감이 줄어들면서 주변의 현 옷감들을 잡아당겨 헤진 것이 더 넓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또 새 술을 가죽이 낡고 단단하게 굳어진 현 부대에 넣으면 그 새 술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단단하게 굳어진 가죽부대에 균열을 가져와 부대가 터지게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만 술이 발효되는 정도와 가죽이 굳어져 가는 과정이 서로 보조를 맞추어 둘 다 안전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확립되어 있던 종교 체제를 거부하시는 내용이며 동시에 개혁할 수도 없음을 역설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개혁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기우려는 것과 같이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는 이미 조직화되고 화석처럼 굳어버린 옛 종교 체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을 쓰시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도 증명합니다. 전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어떤 교단이나 종파가 진정한 내부적 개혁을 일으켜 재건되었던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대개 위대한 부흥은 완전히 새로운 교단이나 교파가 생김으로써 가능했습니다. 새 술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 부대도 예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는 너무도 단단하게 굳어져서 새 술을 담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계획하는 일을 위해서 새 가죽부대를 오래 전부터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려고 애쓰는 헛수고를 되풀합니다. 그것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지 못합니까?

치유받은 믿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9:18)

이 직원은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겹옷 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9:19- 22)

이 사건에서 지적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이 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나타내 보일 접촉점을 확고하게 세워놓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일으켜 역사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합니다. 믿음을 일으켜 역사하도록 하는 일은 가치가 있으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곧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믿는 것이며 동시에 그 믿음을 일으켜 역사하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는 과정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믿음에 대한 이러한 과정에 꼭 필요한 접촉점을 굳게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접촉점은 다름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겹옷만 만져도 그 즉시로 반드시 내 병이 낫겠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옷 가를 만짐으로써 병고침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구체적인 사실로 변하리라 믿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자 자기의 믿음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손을 얹게 하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14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을 몸에 얹는 행위는 참으로 엄청난 믿음을 일으키는 접촉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장로님이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옷 가를 만진 사실을 아시고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서 피리부는 자들과 환화하는 무리를 보시고”(9: 23)

당시 이스라엘이나 특히 이교도 국가에서는 사람이 죽거나 심하게 아프면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 집에서 큰 소리로 곡하거나 피리를 불게 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악한 영들을 멀리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시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병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9:24-38)

소녀를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은 따라오는 소경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귀신 들려 병어리 된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어떤 고정된 형태에 매이지 않고 다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에 대해 고정된 형태와 시각을 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제한된 생각 속에 가둬놓을까?

습관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나름대로의 테두리를 치며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주장하거나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규격화된 접근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규격화된 하나님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문제를 이야기하면 곧 자신이 그 해결방안을 골라서 이 방법 저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틀에 맞추어지기 시작합니다. 통에 담겨지고 통에 번호가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유형이 연구되고 통계가 잡혀나갑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찌다가 한두 가지 사례가 공식화된 하나님의 사역 유형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 유형은 하나의 비방이 되어 버립니다. 열심히 그 유형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능력에 기인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정된 형식을 거부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그녀의 믿음으로, 그리고 소경들도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고 ‘예수님은 각 사람의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유형을 공식처럼 만들어 냅니다. 그러나 직원의 딸을 고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소녀의 믿음을 보고 고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 적절한 형태로 치유하셨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그 유형을 연구하여 비방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 욕심에서 비롯된 그릇된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개성과 필요에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각 사람의 개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떤 규격화된 유형에 맞추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으니 당신에게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대로 따로 교단을 만들고 나는 나대로 교단을 만듭시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하나님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은 예수님이 한 촌에 들어가셨을 때 문둥병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공황히 여겨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손을 대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의 8:2 에서는 문둥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이 서로 만났다고 합시다.

“당신은 예수께서 어떻게 치료받았소?”

“그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해서 가는데 깨끗해졌소”.

“그래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단 말이오. 거 참 이상하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 교단에 속할 수 없소. 우리 교단 은 ‘손 대신 교단’이란 말이오”.

“네? 그럼 우리 교단은 ‘손 안대고 낫는 교단’이오”.

쉽게 예를 들어본 것이지만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들이 서로 다른 만큼이나 다양함이 허용될 수 있는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일정한 형식으로 묶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겪었던 똑같은 경험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하고 독특한 형태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과 이러한 개인적인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방법들은 그 다양성에 있어 무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

열두 사도의 파송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이제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기도하는 중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일을 제시해 주시며, 이 일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기도중에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주님의 촉구가 있으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일을 할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쓰이기 위해 부르신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도 없지만, 만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계획대로 이루어주시도록 간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사로잡아 저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일에 합당한 자로 다시 빚어주시기를 간구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기도중에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시고 그들이 기도를 마쳤을 즈음해서는 “가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위해 부르실 때에는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2절부터는 보내심을 받는 열두 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사도”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처음 보내실 때 이들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듣고 배우는 자입니다. 이들은 제자, 즉 따르는 자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바뀌었습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10:2-4)

가나안인 시몬은 누가복음에 ‘셀롯이라 하는 시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셀롯(Zealots)은 열광적인 애국자들로서 이들은 생명보다도 자유에 더 가치를 두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는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으며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것도 감수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하여 이들은 로마정부에 계속적으로 항거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마태는 세리로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던 자였습니다. 마태는 증오의 대상이던 로마 정부를 위하여 세금 걷는 일을 했으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배반자였습니다. 만일 마태와 시몬이 다른 상황에서 만나게 되었다면 시몬은 마태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놀랍고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함께 제자로 부르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잘 화합하도록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으며 부자나 세상적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위해 사람을 택하실 때,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평범한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거나 훌륭한 사람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택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탁월하고 유능한 사람들만 도구로 쓰신다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능력과 재능에 감탄하여 그들을 쓰시는 하나님보다 그들의 능력과 재능을 더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정도에 따라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나타내시기 위해 세상에서 지혜롭고 위대하고 저명한 사람들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 열둘을 사도로 보내시며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의 사역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쪽 사마리아로도, 서쪽 두로와 시돈으로도, 북쪽 다메섹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갈릴리 근방의 유대인 지역으로만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처음 파송할 때에 그들이 사역할 지역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따라 갈릴리 각 마을로 가실 계획이었으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일종의 선발대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후에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우물에 물길러 온 한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복음이 맨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첫번째 제자 파송시에 그들의 사역지가 유대인 지역으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명령에 따라 그들은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가로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10:7-8)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파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여기서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사실 너희 ‘안’이라기보다 너희 ‘사이’라는 의미입니다(눅 17:21). 실제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요 왕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 속에 왕이 되셨다면, 당신은 이미 천국의 시민이며 이에 따르는 엄청난 혜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외 여행시에도 미국의 시민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현지에서 만일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언제든지 대사관으로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들은 현지의 미국인들을 돕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 시민권이 부여하는 혜택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므로 미국 정부는 마땅히 제가 누릴 권리들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시민이지만 동시에 천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제가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은 미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혜택들보다 훨씬 더 많고 좋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습니다. 천국의 권세가 제 뒤를 돌보아 줍니다.

우리는 이사야 35:5-6 에서 천국의 여러 면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천국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행 26:17-18).

바울의 사명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에 귀기울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흑암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동시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의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생명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왕국 안에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 가운데 미와 지혜에 완전하며 기름부음을 받은 한 천사가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같이 높이하고자 했습니다. 몰몬교의 시초인 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몰몬교의 믿음은 여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무슨 말로 유혹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교만해진 천사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신의 왕국, 즉 우주의 두번째 왕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이 왕국은 첫번째 왕국과 정반대의 속성을 지닌, 곧 첫번째 왕국에 대한 반란으로 인해 생긴 죽음과 흑암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에는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왕국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빛과 생명의 왕국과 그것에 반란을 일으키며 사단이 세운 흑암과 사망의 소왕국입니다.

창조되던 때의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빛과 생명의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아름다운 교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흑암의 왕국을 지배하는 사단의 미혹을 받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동시에 사단에 대한 순종이므로 그들은 빛과 생명의 왕국에서 나와 사망과 흑암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죽음과 흑암의 왕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 즉 빛과 생명의 왕국에 있었던 거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로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죄악중에 출생하고 죄중에 잉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본질상 죄인이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누구라도 그 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인 빛과 생명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의지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선택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임무는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죄인들에게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전하는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사망과 흑암의 왕국에 묶여 있는 자들,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주와 속박의 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자유의 왕국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 아담을 비난합니다. 아담의 잘못 때문에 이 세상에 죄와 온갖 악한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아담이 어리석게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따 먹지 않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오늘날에도 그 두 가지 나무가 다 우리 곁에 있으며 우리에게도 같은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으로 당신은 지금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여 이 세상의 열매를 따 먹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죄로 인한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아담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생명나무로부터 영생을 얻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의 복음 전파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친구를 갖고 있는 관광 안내원인 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 깊이 알기 위해서 그 유대인과 저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얘기 내용 가운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은 유명한 부흥사들이 성지순례를 인솔하면서 그리스도인 여행자들을 속여서 돈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자신의 컴퓨터 편지 수신자 명단에 포함시켜 여러 가지 기도를 해주겠다고 여행자들이 귀국한 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 관광 안내원도 계속 컴퓨터 편지를 받고 있는데 심지어 그는 복음사업을 일종의 사기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셨으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거저 주어야 합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10:9-10)

이 말씀은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후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므로 복음 전하는 자는 돈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10:11-13)

그 당시에는 축복을 빌어주는 행위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만일 멀리서 오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와 그대의 자손에게 임하소서’라고 빌었다가 그가 이방인인 줄 알게 되면, 즉 그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는 그 축복을 도로 가져 가겠소’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10:14-16)

어떤 사람들은 뱀이 지혜로운 동물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한 생물학 교수가 강의 중에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비난하면서 뱀은 지혜롭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생물학적인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 한 학생이 일어나 ‘교수님은 팔과 다리없이 얼마 동안이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구나 사막과 같은 환경에서 말입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이 학생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한 상태에서 생존하는 것에 관해서는 뱀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 하겠습니까.

박해에 대한 교훈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10:17-20)

이러한 상황에서는 말할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10:21-22)

“나중까지 견디는 자...” 여기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 교리는 때때로 도덕률 폐기론자(antinomians: 구원받기 위해서는 도덕이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신앙지상주의자들-역주)라든가 믿는 자들의 안전에 대한 극단론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인용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이 동전의 한 면만 강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10:23)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동네들을 곧 친히 여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과 관련시켜 해석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갈릴리 주변 마을에서 하신 그분의 사역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10:24-25)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같이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였으니 그 제자들도 욕하지 않겠습니까? 바알세불이란 ‘파리들의 왕’(Lord of the flies)이라는 경멸조의 호칭입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10:26-27)

이제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소그룹으로 배운 것들을 세상에 나가 큰 소리로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10:28)

사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당신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는 당신을 죽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이 육신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은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앓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10:29)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참으로 보잘것없는 부류에 속하는 것이 참새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고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머리카락 수까지 헤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밀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어려움에 처하고 쓰러져 죽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이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10:32-33)

참으로 심각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척 스미스는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구원자의 능력을 압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저를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어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 안에서 완전케 하실 줄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때,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부인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 때에 그들이 예수께 달려가 아무리 다급한 목소리로 ‘주여, 주여’ 외친다 하여도 그분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10:34)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하나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반로마 열성 당원을 함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나뉘게도 합니다. 하늘 나라에 속한 자들과 흑암에 속한 자들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하나되게도 하시며 분리하게도 하십니다. 한가족 가운데서도 아들은 빛의 나라에 속해 있고 아버지는 흑암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분리가 일어나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10:35-36)

예수님은 개인적 경험을 근거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때에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께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10:37)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때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버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10: 38-40)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를 보낸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행해야 합니다. 또 그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제자들 영접하기를 주님 영접하듯 해야 합니다. 다음 구절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10:40-42)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 하듯이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행해야 하며 주님께 드리듯이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증거와 초청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11:1)

예수님은 10 장에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제자들을 앞서 보냈던 동네들을 차례로 찾아가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11:2-3)

당시에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감옥에 갇힌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보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즉각적으로 건설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때까지 자신의 능력을 선포하지 않았고 로마정부의 압제를 무너뜨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 “빨리 일을 시작하시지요” 하면서 재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11:4-6)

이 말씀은 요한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시기보다는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요한은 14 장에서 그때의 일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으라”(요 14:10-11).

예수님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 메시아 되심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일이야말로 합당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1:4-5 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된 약속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소경이 볼 수 있게 되고 앉은뱅이가 걸으며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문둥병이 나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는 것은 바로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예언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왕국을 세우시지도 않고 로마정부의 압제를 해결해 주시지도 않음으로 해서, 즉 물리적, 가시적, 세속적 왕국을 건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11:7-11)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지위가 구약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특권은 구약시대를 능가합니다.

우리는 가끔 ‘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러한 관계는 얼마나 멋있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과 갖는 교제는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권능을 주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가치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세레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suffers violence, 폭력으로 탈취되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the violent take it by force,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KJV)”(11:12)

세레 요한은 감옥에 갇혀 곧 목베임을 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제로 취하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11:13-14)

흥미롭게도 예수님은 세레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 17 장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누가복음 1 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라가 성전에서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였으며 나이가 많으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또 그 아들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언을 인용하셔서 세레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관심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두기 쉽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는 문제와 같이 본 가지에서 벗어난 지엽적 사건들에 관심을 집중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기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11:15)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초청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11: 16-19)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책망받은 갈릴리 바다 주변의 도시들은 오늘날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지명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장소였다고 생각해왔지만 고고학자들은 최근에 벳새다의 터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도시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가 있을진저 벳새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11:21-23)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버나움과 그 주변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곳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가장 많이 행해졌던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지역을 저주하셨습니다. 음부, 곧 지옥에 던져지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건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11:24)

왜 그렇겠습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말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그 사람이 받게 될 심판은 더 큼니다. 그 사람의 받은 은혜의 분량이 그 사람이 받을 심판의 분량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라신과 벳새다와 가버나움의 회개치 않음과 영접지 않음을 인하여 책망하신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11:25)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소박하며 평범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드러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웁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11:26)

이 얼마나 감사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적인 지혜나 학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11:27)

기도 후에 하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며 아들과 그 아들이 알려준 자들만이 아버지를 안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알게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틀 속에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자의적 숭배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사람들을 모두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11 :28)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수고를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관련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때까지는 쉬이 무엇인지, 안식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로 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부르시는 초청이며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 깊고도 아름다운 평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처럼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우리의 불안과 초조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로 인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소가 쟁기를 끌 수 있도록 소에게 씌우는 기구입니다. 이 말씀은 ‘네 인생의 고삐를 나에게 다오. 내가 계획한 대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자신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를 위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약 30여 년을 봉사한 후에 그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꾀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현재도 여전히 분발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들의 삶의 고삐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 주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으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버지를 알게 되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는 의미입니다. ‘내게 배우면 너희들은 아버지의 참된 성품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며 너희에게 크고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세밀히 너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즉 너희들의 삶의 세부적인 모든 영역에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스스로 자기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 진 짐 때문에 삶을 혼란 속으로 이끌어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멍에가 아니라 스스로의 짐을 지고 힘들어 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11:30)

사람의 짐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욕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짐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12세 때 그 부분을 처음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자신을 찾던 부모님께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하여야 할 일, 사명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며,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짐이었습니다. “내가 항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부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인간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이면에 깔려 있는 가장 큰 욕망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자신을

들여다 보면 가장 큰 욕망은 물질적인 영역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안락하게 살기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욕망은 명예이기도 합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존경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나는 유명해지고 싶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짜릿한 흥분과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일을 하는 이유도 충분히 돈을 벌어서 즐겁고 재미있는 삶을 즐기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말을 고대하며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늘 계획하며 지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짐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면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를 위해서 돈을 가지려고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좋고 멋진 것들을 원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을 위한 삶, 즉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보면 언젠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짐으로 바뀔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라고 탄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때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명예를 떼고 내게 배우라...이는 내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만이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은 없습니다. 10장에서 살펴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의 짐은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이 더 쉽고 가벼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으로는 도무지 만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 장에는 만물이 지음받은 목적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즐거움을 위해 있고 (KJV-역주)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들이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산다면, 우리의 삶은 공허하며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산다면, 즉 더 가벼운 짐을 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고 온전해져서 다윗의 말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살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미 율법에 대한 당시 바리새인들의 해석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을 육신적인 안목에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본 뜻은 행위 자체의 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마음속의 미움에 대한 언급이었음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되는 행위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의 원인이 되는 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율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잘못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영적 교만을 말합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신들만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고 경멸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갈 때 옷자락을 몸에 바싹 당기고 다녔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의 옷자락이 죄인들의 몸에 스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꾸짖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규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어떠한 짐도 져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은 ‘짐을 진다’는 내용의 구성요건이 무엇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에 따르면 한쪽 다리를 잃고 목발을 사용하는 사람은 안식일에 그 목발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발로 걷는 것이 짐을 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치를 한 사람도 안식일에는 빼야 했습니다. 의지도 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의 해석은 율법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태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즉 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반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범하지 않나 하며 계속적으로 살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히 하려고 오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 맨 처음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는 개종하여 교회의 일원이 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로 와서 교회 안에 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결정을 위해서 몇몇 형제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율법은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을 위해 의도된 것이 아니며 이방인들의 구원에 필수조건도 아니다’라는 결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은 율법과 관계없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단지 이방인으로서 믿는 자들은 우상을 버리고 목매어 죽인 것들을 삼가라는 교훈만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보낸 편지는 이렇게 행하면 잘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로 끝맺고 있습니다.

이방인 교회는 안식일에 관한 율법의 모든 부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부과받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입니다. 안식일은 휴식을 위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쉬도록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분명코 우리의 몸은 휴식하는 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12 장 서두에는 바로 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부딪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12:1 - 4)

그 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부하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매우 고팠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도 진설병을 먹고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 필요에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더 고상한 법이 있습니다. 배고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된 더 차원 높은 법이 있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12:5)

사실 저는 일주일 중 그 어느 날보다 주일에 더 열심히 일합니다. 5 절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했으며 그것은 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12:6)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 일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무죄로 인정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진실로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님과 더불어 안식일에 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12:7)

이 구절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면서 두번째로 인용한 구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돌아왔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진에서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는 어쩐이니까”하며 사울에게 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라고 변명했습니다. 이 때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경책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희생제물로 제사만 드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의 마당만 더럽히는 자들이라 하시며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제물에 진절머리가 나고 그 냄새도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들을 외면하면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습관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러한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들을 죄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12:8)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안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모든 믿는 자에게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그 곳에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기 위하여 예수께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들의 해석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상을 당하여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그를 치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야 제대로 치료를 할 수 있었으며, 안식일에는 죽지 않도록 응급처치만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12:10)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비록 안식일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옳으니이까?”라는 그들의 질문에 ‘합법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경우에 예수님을 고소할 작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12:11)

예수님은 이어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곤경에 빠진 짐승을 돕는 것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일이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데 누가 비합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꼬 의논하거늘”(12:13-14)

‘이것은 너무 지나치군. 그는 우리의 전통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사기마저 떨어뜨리고 있어. 그는 우리의 모든 의를 모두 무너뜨리고 있는거야.’ 아마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정면대결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12:17-21)

이 예언은 복음이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며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 묘사된 이스라엘을 주께서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을 훼방하는 바리새인들

“그 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매 그 병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들이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12:22-23)

여기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함은 다윗의 씨에서 나오리라고 예언된 메시아를 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함입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12:24-26)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능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능탈하리라”(12:27-29)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자, 즉 사단을 결박하시는 분입니다. 만일 사단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것은 사단 스스로의 분쟁이 되므로 어찌 타당한 주장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12:30)

30 절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양쪽의 입장을 다 포용하는 중간지대의 여지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글쎄요, 저는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애매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배척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고한 결정을 못 내린 것은 이미 하나의 결정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중간적인 태도 표명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위한 삶이 아니면 그분을 대적하는 삶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며, 사단의 힘으로 사단을 쫓아내는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비난함으로써 결코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12:31-32)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은 당신의 삶 속에서 거듭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청종치 않고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은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줍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직 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분의 독생자 안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계속적으로 부인한다면, 즉 성령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거부한다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에 관하여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가지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죄 사함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에서 죄 사함을 받을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믿기를 거부하는 것, 성령의 증거를 받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을 훼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들 앞에서 그 증거들을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2:38-40 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12:33-38)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신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방금 목격한 이 표적들을 부인하고 또 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러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12:39-41)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대한 예수님의 이 짙막한 답변에서 예수님은 소위 고등비평가라고 불리는 자들에 의해 가끔 부인되는 세 가지 성경적 사실들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어느 부분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양 착각하여, 어떤 부분은 원전 그대로이고 또 어떤 부분은 조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부분은 영감으로 쓰여졌고 어떤 부분은 영감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니며, 어떤 부분은 역사적 사실이지만 또 다른 부분은 신화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많은 기사들 중에서 고등비평가들에 의해 가장 크게 비판되고 있는 기사들 중의 하나가 요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요나의 이야기에서 갖는 유일한 문제는 요나가 정말로 큰 물고기에 의해 삼켜졌느냐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진짜 문제는 그들이 갖는 하나님에 관한 개념의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믿는다면 요나의 이야기에서 전혀 문제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가 아니라 새우로 하여금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다 하여도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문제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신을 만드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역에 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측면에서 살펴볼 때,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개념과는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우주를 다스리며, 어떻게 인간을 만들며, 어떻게 도덕문제를 다루며, 어떻게 선택의 문제들을 다루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다루었던 이 모든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계시를 무시하면서 자신의 판단을 더 선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숭배입니다.

앞에서 다루었듯이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짐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짐은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짐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신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무겁게 느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습니다. 이교도들은 나무를 새기거나 금이나 다른 것들로 신의 형상들을 만듭니다. 그들은 그 형상들을 세우고 그 주변에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우고 절하며 기도합니다. 그 우상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인 셈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들을 보고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우상숭배자들이 하나님을 자신과 같게 만들어 버렸음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눈이 있으니 눈을 달았으며 귀가 있으니 귀를 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그들보다 못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 우상들을 만든 사람들이 그 우상들처럼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못한 신을 만든 자는 못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본 적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자신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 자신이 거짓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의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닮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고후 3:18).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섬기고 경배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요나의 기사에 대한 신빙성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두번째로, 예수님이 확증하신 것은 죽은 지 삼일 후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고등비평가들에 의해서 거부되어온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실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세번째로, 예수님이 확증하신 것은 모든 사람의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니엘서 12 장에 예언된 것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부활 사건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계 20:11-13).

심판과 부활의 날에 관하여 예수님은 니스웨 사람들이 부활하여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니스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불만과 증오로 가득 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의 메시지를 니스웨 사람들에게 전하면서도 그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온갖 궁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강요하시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그 일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요나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밤낮 삼 일 동안 그 뜨겁고 습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한 후에 그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해초에 얽히고 물결에 휩쓸리며 화씨 98.6도나 되는 포유동물의 뱃속에서 부대끼고서야 그는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변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전히 니스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스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한 가지의 단조로운 메시지만 선포했습니다. 즉 “40 일 후에 멸망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스웨의 왕이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조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서 재에 앉아 회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지 누가 알랴”하면서 니스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에 즉각 반응하여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을 피해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심판 때에 니스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 어머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 어머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변명이나 구실도 댈 수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과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마디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한 니스웨 사람들에 비해 수많은 증거와 말씀에도 회개치 않고 믿지 못한다면 그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제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12:43-45)

이제 예수님은 악한 영의 세력을 쫓아내시는 문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귀신을 쫓아내려고만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사람을 돕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으로만은 온전치 못합니다. 그 영이 나간 자리에 무엇인가 채워주지 않는다면 그 악한 영은 다시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속이 비고 청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보다 더 악한 영들을 데리고 들어가 그 사람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강한 능력이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최선의 방법은 불을 켜는 것이지 캄캄한 곳을 돌아다니면서 어둠아, 나가라고 소리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을 켜게 되면 어두움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면 그 속에 있던 온갖 더러운 악의 세력이 더 강한 빛의 세력에 의하여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나쁜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에게 그 빛을 가져다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빛 되신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며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12:46-50)

예수님은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라는 말을 듣고 “누가 내 모친이며...”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친에게로 달려가 ‘오, 나의 어머니 마리아여, 하나님의 모친이시며 여자 중에 당신이 복이 있으며 그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총을 구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가 우리들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암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의지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볼 때, 마리아를 의지하려는 태도는 예수님이 결코 원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이 본문은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라는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 외에도 13:55 이후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본문과 관련하여 주목할 내용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즉 예수님을 통해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은 혈육의 형제자매들과 갖는 관계보다 더 가깝고 밀접한 교제를 예수님 안에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가족이 되며 더 깊고 넓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관계가 다른 어떤 친밀한 관계보다 더욱 친밀하고 영원한 관계임을 가르쳐줍니다.

천국의 비밀에 관한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13 장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예수님이 비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비유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핵심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는 우리에게 “목회생활을 최소한 30년 정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비유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제는 저에게도 자격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던 때에 비유에 대해 가르쳤던 것을 되돌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도 비유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공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3 장의 비유를 살펴보면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미하신 내용이라고 확신 있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단지 제가 이해하게 된 부분과 제가 믿게 된 것뿐입니다. 앞으로 비유에 대한 저의 이해가 계속 깊어진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이해에 이르게 되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비유에 대한 이해를 완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비유에 대해 정리한 것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음을 확신합니다.

산상설교와는 달리 이제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놓고 해변가에 있는 작은 배에서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13:3-9)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이 18 절부터 나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여 혹 백 배 혹 육십 배 혹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13:18-23)

여기에서 받은 이 세상이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세계에 주님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이 중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습니다. 새는 마귀를 의미한다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말씀은 마귀가 즉시 와서 뽑아버리는데, 이 상태에서는 말씀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가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 즉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므로 말씀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공허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두번째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감격하며 큰 감정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시련이 닥치고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들은 곧 넘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깊숙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한 연구도 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아마도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어야 될 비극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그들의 삶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가시떨기가 함께 자랍니다. 결국 가시떨기가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합니다. 가시떨기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리고 다른 것들을 위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위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 외의 세상적인 영역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말씀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들을 우리가 맺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인한 짐이 너무 무거워 넘어짐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결실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해석의 불변성’이라고 불리는 법칙이 나옵니다. 이것은 비유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해석학에서 쓰이는 신학적 용어로서 이 법칙에 따라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말씀에서 어떤 특징을 상징하는 것은 다른 말씀에서도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서 밭이 세상을 나타내는 데에 쓰였기 때문에 또 다른 주님의 비유에서도 밭은 세상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씨앗은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일과 관련이 있는 다른 비유에서도 씨앗을 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이 ‘해석의 불변성’이라는 법칙을 세우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도된 원래의 의미와 다른 뜻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후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3:10)

확실히 이것은 새로운 방법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13:11-16)

예수님은 왜 비유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실을 숨기려 하고 있다든지 단지 그의 제자들만 알 수 있도록 속이려 하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은 진리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것은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을 때 우리들은 흔히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내용을 예로 들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함으로써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곧 그들의 귀를 막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유로 사용되는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끌며 그 내용이 전해지는 동안 진리가 전달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예로 든 비유와 전하고자 하는 진리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비유의 목적은 결코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를 드심으로써 그들이 알아야 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향한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분노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귀는 둔하고 눈은 소경 되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진리를 숨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더욱 밝히 드러내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13:17)

가라지 비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13:24-25)

여기서 뿌려진 것은 좋은 씨였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씨가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13:26-30)

이 비유는 교회가 하늘 나라의 완전한 모형이 되지는 않으며, 교회 안에서도 진리 아닌 것, 즉 거짓이 일어나서 곡식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함께 자라서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라지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을 뽑아버리지 말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놔두라고 하였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곳간에 들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모형인 교회 안에도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은 가라지로 인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뽑기를 바라지만 주인은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그때 불사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13:31-32)

대부분의 나물은 매우 작습니다. 창가에 조그만 상자를 놓고 키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자라면 모든 나물들 중에서 가장 큼니다. 사람들이 기르는 나물들 중에서 가장 큼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특별한 겨자씨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라서 나무가 되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어떤 해석자들은 이것이 천국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비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맨 처음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과 미약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복음이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여 큰 나무를 이루게 되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동지를 틀게 된다는 식으로 해석합니다. 작은 겨자씨에서 큰 나무가 된 것처럼 복음의 영광스런 영향력도 전파됨에 따라 큰 나무에 이를 정도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해석의 불변성’이란 법칙에서 볼 때, 새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들은 악한 자, 즉

사단으로서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말씀을 뽑아버려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자입니다. 해석의 불변성의 법칙에 따라 이 주해적 일관성에서 새들은 언제나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의 비유에서 하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 가라지가 있으며 이것은 곡식과 함께 자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똑같은 것을 좀더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것이 비정상적인 성장을 하여 진정한 천국의 모습으로 이루어져가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비정상적인, 즉 인간이 억지로 조작한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국 이렇게 형성된 것이 모든 악한 의도를 지닌 것들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가 종종 악한 목적의 피난처로 이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13:33)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천국이 누룩과 같이 적은 분량만으로도 전체의 덩어리에 스며드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밀가루 반죽과 함께 섞을 때에도 이전 반죽의 마지막 한 조각만 있으면 되는데, 이 한 조각은 이미 발효되었기 때문에 새 반죽에 넣으면 덩어리 전체에 누룩이 퍼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도 비록 시작한 미약했으나 서서히 그 영향력이 커져서 전세계에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서서히 퍼져 전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전세계를 뒤흔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교회의 영향력으로 세계가 크게 변화되었다고 기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병들고 매일 더 타락해가는 것만 같습니다. 따라서 앞의 해석에 동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부정적 의미, 즉 죄악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 다시 말해서 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갈 5:9)고 경고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해석의 불변성의 법칙에 따라 누룩은 언제나 죄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란 것, 그 자체가 실제로 썩어 변질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덩어리에 스며들어 부패하게 하며 썩게 합니다. 해석의 불변성에 따라 두번째 해석을 해 보면, 예수님이 일련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줄곧 같은 진리를 예증하시며, 또한 같은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이며 결국 전체에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누룩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이 누룩의 영향이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교회에 들어오게 된 바빌로니아 종교의 영향을 말합니다. 그 당시 콘스탄틴 황제는 이교도의 세계를 기독교에 들여와 통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교도의 명절 의식과 축제들을 당시의 교회에 들여왔는데, 이것은 상당 부분이 고대 바빌로니아의 신비주의적 종교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기독교와 융합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변질시키는 사례는 역사상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13:34-37)

해석의 불변성에 따라 다음 구절들을 살펴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입니다. 다음 구절을 주목하여 봅시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있는 자는 들으라”(13:40-43)

가라지들은 함께 자랄 것이며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변질시키는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모두 뽑혀 불살라질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악한 세력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네 가지 비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13:44-46)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천국은 영광스러운 보화와 같고 한 번 발견만 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밭을 삼으로써 보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심각한 결점이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나 값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살 필요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해석불변성의 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밭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세상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보화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구약의 룯기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밭을 무르는 당시의 전통적인 규례가 나타나 있는데 보아스가 신부를 얻기 위해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네가 무르려면 무르려니와 내가 무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룻 4:4)라고 말하며 밭을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 밭을 사는 자는 룯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잇게 하여야 하기에 그는 보아스에게 “네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고 함으로써 보아스가 그 기업을 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화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며 “만일 내게 앞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즉 ‘이것들은 내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관해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값을 치르시고 사심으로써 세상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절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서 구속의 값을 치르심으로써 사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13:45-46)

이 비유에서도 진주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포함하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진주를 발견했을 때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취하는 장사꾼의 비유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사야 하는 진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파신 분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13:47)

여기서 바다는 역시 온갖 사람들이 섞여 사는 세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13:48-52)

우리는 오래된 진리 속에서 새로운 경험들을 발견케 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앎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앎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13:53-58)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죽음

“그 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14:1-12)

본문의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 불리는 헤롯대왕의 아들입니다. 분봉왕은 일부분을 맡아 다스리는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헤롯대왕이 죽자 그의 많은 아들들 중 세 명이 헤롯대왕이 한 때 통치했던 지역의 지배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티안 왕의 딸 아리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필립의 아내, 즉 형의 아내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아내 아리타와 이혼을 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문제로 세례 요한은 헤롯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내를 연고없이 버린 것이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모두 다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헤롯의 성미를 건드린 탓으로 헤롯의 미움을 산 요한은 감옥에 갇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여겨졌으므로 헤롯은 그를 죽이는 일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대 유대인에 관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헤롯은 세례 요한의 인기를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헤로디아는 헤롯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녀는 몹시 잔인하고 사악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침 세례 요한이 그들의 결혼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그녀는 복수의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생일잔치에 자기 딸인 살로메로 춤을 추게 하였습니다. 살로메가 16, 17 세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로디아가 그런 춤을 추도록 시킨 것을 보아 그녀는 도덕적 관념이 없는 여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 춤에 만족한 헤롯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헤로디아가 미리 지시한 대로 살로메는 쟁반 위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헤롯은 근심이 되었으나 이 요구를 들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나중에 칼리굴라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 헤롯에게는 또 다른 아들 아그립바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스라엘 몇 지역을 골라 그에게 통치권을 주었고 그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헤롯 안티파스가 왕의 칭호를 받아야 한다고 부추겼습니다. 여왕으로 군림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로마로 보내 황제에게 왕의 칭호를 내려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그립바가 이 사실을 먼저 알고 칼리굴라 황제에게 전갈을 보냅니다. “황제여 안티파스는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언젠가는 당신에게 반기를 들 소지가 있는 자입니다. 높은 자리를 얻으려는 것이 그의 목적인 뿐입니다.” 이 보고가 믿을 만한 것이라고 판단되자 결국 칼리굴라 황제를 돈으로 매수하여 왕의 칭호를 얻어내려던 안티파스는 돈을 빼앗긴 채 옛 불란서 땅(Gaul)으로 추방당하고 맙니다. 헤롯이 추방당할 때 칼리굴라 황제는 헤로디아에게 머물러도 좋다고 하였으나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있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한 일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함께 불란서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불의에 대해 용감히 대항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처형했던 헤롯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6:16 을 보면 예수님이 행한 일들에 관해 헤롯이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목 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이 말만 보아도 헤롯은 세례 요한이 참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음을 알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좇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14:13-14)

빈 들이라는 것은 버려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사람이 살지 않는 호젓한 장소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이 소식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좇아왔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건너편까지가 13Km 정도 밖에 안 되는 작은 호수였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벳새다나 게네사렛 같은 곳까지 건너가더라도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작은 배 한 척이 이 곳을 가로질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을 향해 출발했을 때 사람들은 쉽게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었고, 사람들은 호수의 이편저편에서 보고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잔인한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조용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며, 사태를 정리하며, 또 생각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라앉히려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바라며 나아온 많은 무리를 보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 온갖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예수님은 항상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나무라지 않으셨고 다가가서 치료하시며 아무 조건 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무리들의 끼니를 걱정하며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14:19-20a)

여기 배불리 먹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게걸스럽게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14:20b-21)

어떤 이들은 이런 기적에 관한 말씀을 접할 때 그대로 믿지 못해 기적적인 요소는 빼버린 채 그럴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낚시를 입었고 손목에 긴 소매자락이 있었는데 이 소매자락 속에 빵이나 생선을 넣어가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파지만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소매자락 속에 넣어둔 자기 음식을 나누어 먹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소년이 나아와 예수께 자기의 음식을 드리자 모두가 이 아름다운 장면

감동을 받았고 각자의 소매에 넣어 둔 음식을 꺼내어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 이것이 너무도 풍족해서 열두 바구니나 남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럴 듯하나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는 사실과 다른 거짓입니다.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때 거기 혼자 계시더니”(14:22-23)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날은 아주 힘든 하루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당한 일을 듣고나서 어쩌면 꼭 필요할지도 모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좇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병자를 치료하시고 함께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통해 다시 힘을 얻어야 될 필요를 느끼셨다면 우리와 같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아, 좀 쉬어야지, 내일 늦게까지 좀 자야지, 그래야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나’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저녁을, 아니 그 밤을 기도로 보내셨습니다. 기도는 진정 그분의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 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 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14:24 -25)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중간에서 역풍으로 말미암아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가로질러 가버나움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지중해로부터 갈릴리 바다로 연결되는 계곡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이곳을 지날 때면 보통 폭풍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마침 제자들이 탄 배가 이 폭풍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곡을 거쳐 빠져나오는 이 바람과 채찍질하듯 매서운 거센 파도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심한 파도로 배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는 거의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14:27-31)

베드로는 자기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킨 동안은 잠깐이지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결이 그를 덮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위를 돌아보았을 것이며, 이로 인해 그는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즉시 구해 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받을 교훈은 우리의 눈을 항상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의 주위를 둘러싼 성난 파도와 같은 문제들, 그리고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상황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종 깊은 물에 가라앉는 듯한

절망적인 환경과 만나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바다와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전능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이기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그분에게서 떠나는 순간 그 상황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눈을 그분께 고정시키는 한, 문제를 딛고 일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치유되는 믿음의 접촉점

“저희가 건너가 케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사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14:34-36)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옷을 입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자들이 예수의 옷 가를 만지고 병고침을 받은 것은 그들 각자의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표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런 일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그치는 수동적인 믿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실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고 의심치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병원에 가게 되면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상태가 심각해서 의사들도 포기한 사람들에게 저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말합니다.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으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뿐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일으켜 역사케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고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순간, 즉 믿음이 실행되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병자들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옷을 만지는 것이 그들 자신들의 믿음을 실행하게 만드는 접촉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얻으리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은 현실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음을 아는 데 그치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치유하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신약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접촉점을 가져다 주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장님의 눈에 진흙을 발라 주시고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장님은 씻는 순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고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을 역사하게 만드는 접촉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 강 깊은 곳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고 나오면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것도 그의 믿음을 역사하게 만드는 접촉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머리띠 혹은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을 때 사람들은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나 요 위에 누우고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힐까 하고 바랐습니다. 이것도 믿음을 일으켜 역사하도록 만드는 접촉점이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가 나를 지나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들은 믿음을 일으켜 역사하도록 만드는 접촉점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실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마음속의 확신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믿음대로 실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유전에 따른 외식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장로들의 유전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15:1-2)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도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일주일이 넘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성문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문법 위에 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유전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유전은 유대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그 어느 규범보다도 구속력이 강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그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냈던 수많은 주석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전에 권위를 두고 철저히 지키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유전을 도무지 따르지 않는 사람들로서 용납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특별히 제자들의 손이 더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법에 의하면 많은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에서 보는 더러움으로써 이런 상태로는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더러운 것에 닿은 것을 만진 사람은 더러워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도 더러운 존재입니다. 만약 이방인이 지나간 길을 지나가게 되면 이방인이 밟은 먼지가 묻게 되므로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정결례에 대한 규정은 까다롭고 우스울 정도로 세밀했습니다. 그래서 씻는 일은 그들의 유전이 되었고, 또 씻더라도 규정된 방법에 따라 씻어야 했습니다. 모든 먼지와 흙시라도 접촉되었을지 모를 불결함에서 스스로 깨끗해졌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먹기 전에는 반드시 씻어야 했습니다. 씻지 않고 음식을 손으로 그냥 먹게 되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손 씻는 의식은 씻는 사람이 똑바로 선 자세로 손을 앞으로 내밀고 있으면 한 사람이 물을 손 위로 부어 줍니다. 그러면 손을 앞과 뒤, 그리고 위 아래로 문지르며 씻는데 중요한 것은 물이 손목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씻은 물이 다른 곳에 닿으면 그곳 또한 더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손을 계속 내밀어 이 물이 씻는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해야 하며 팔 부근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서서 손 위에 물을 부어 씻고, 또 물을 부어주면 약간 구부린 자세로 손을 문질러 씻게 되며 마지막으로 위에서 부어주는 물로 손가락을 함께 문질러줌으로써 더러운 것을 모두 씻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의식을 하지 않고 바로 떡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장하는 식으로 손을 씻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의한 이런 유전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의식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전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너희 유전을 범하느냐’ 대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정한 의식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경우는 오늘날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한 부인이 갈보리 체플에 친구의 초청을 받아 방문을 하였는데 그분은 미주리 주의 한 루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예배 후에 제게 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기도할 때 제단을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녀는 정말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몰라서 ‘뭐라고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녀는 “당신은 기도할 때 돌아서서 저 제단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그랬죠?”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저,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제단에 살고 계시지 않아서 안 보았나 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기도할 때는 돌아서서 예수님 상을 보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지경에까지 유전을 만들고 지켰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르셨도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15:4-6)

성경은 부모를 훼방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반드시 죽을’ 죄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유전에 의하면 만일 부모를 위해서 그리하는 것이라는 서두만 달면 그 후에 어떤 나쁜 말로 부모를 훼방해도 무방했습니다. 때로는 ‘고르반’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돌렸다’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면에서 사실상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유전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거짓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직선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가야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15:7-9)

오늘날 교회들이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참으로 많은 독단을 행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공경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15:10-11)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사람의 교훈인 유전의 거짓되고 외식적인 본질을 비판하셨습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단지 잘 요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십시오. 기생충 따위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만 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드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15:12)

예수님의 직설적인 비난으로 인해 저들이 화가 났다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심은 것마다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라고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모두 뽑힐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두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15:16-20)

음식은 먹고 소화되어 배설됩니다. 그런 음식으로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것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입으로 토해내는 것, 즉 미움과 쓴 뿌리, 정욕과 욕심,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입으로 나와 참으로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15:21)

여기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은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지방을 완전히 떠나셔서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투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15:22)

이방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해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간청하기를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에서 ‘주님, 저 여자가 우리를 방해하니 주님께서 가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자가 듣는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15:25-28)

본문에는 예수님이 몹시 차갑고 냉담히, 심지어 모욕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위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미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요한복음 2:24-25)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아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드러나도록 참으로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반응은 단지 침묵이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제자들이 귀찮아서 ‘주님, 좀 말아주십시오’라고 청하기까지 끈질지게 달라붙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데도 주님은 계속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그녀를 물리치셨습니다.

‘개’라는 말이 의미하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최악의 경멸어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쌍소리나 욕이 없습니다. 히브리어로 욕을 하는 것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유대인이 욕을 할 때는 영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에 욕이 없기 때문인데,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심한 말로 사람을 부를 때는 “개”라고 부릅니다. 특히 그들은 이방인을 그냥 이방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방인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두 가지 인데, 하나는 떼지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몹쓸 들짐승을 의미하고 또 다른 단어는 식탁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노는 작은 강아지를 뜻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쓰는 것과 같은 식사 도구가 없었습니다. 즉 나이프나 포크가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식사 예절을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손으로 집어 먹었는데 식사가 다 끝나면 한 조각의 빵을 집어 손을 닦습니다. 손에 묻은 기름과 소스들을 닦아 이것을 식탁 아래 있는 작은 개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이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 답변은 예수님의 침묵, 즉 냉담하게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반응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승리를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딸의 어머니는 참으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태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녀는 도움을 받기 전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여자가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병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 주시니 병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는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사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흠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더라”(15:29-39)

마지막 절에 마가단 지경이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인데, 그곳 갈릴리 바닷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태어난 막달라 도시의 유적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주의깊게 읽지 않고 우연히 거기 막달라에 교회를 세우고는 주님이 빵과 생선으로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곳에서 떨어진 산에서 무리를 먹이신 이후에야 그곳 마가단 지경으로 오셨습니다.

수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16:1-3)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보고서 천기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참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했다라면 이 때가 그들의 메시야가 올 때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분명히 메시야가 오실 때에 관한 표적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다니엘서를 통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조서가 있는 날부터 483년이 지나고

나면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나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알아야 할 것, 분명히 드러난 표적을 무시하고 분별치 못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16:4)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결국 예수님은 12 장에서 하셨던 말씀대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 하였도다 하거늘”(16:5-7)

우리는 이미 누룩이 언급될 때는 항상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는데 이 경우에서는 외식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우리가 떡을 잊고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아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생각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직접적인 설명을 듣고야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떠나 갈릴리 윗쪽 지방으로 갔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16:13-18)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을 뜻하므로 ‘바요나 시몬아’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해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며, 또 하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셨을 때의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로서 ‘작은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큰 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11 에서 “이 닦아 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베드로라는 터를 주장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교회의 터가 아니었다는 것은 말씀에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곧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진정한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목할 사실은 이같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고백은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때로 자연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 천사들의 노래가 울려 퍼지며 그런 가운데 나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씀하시며 우리들을 자연스럽게 인도하십니다. 자연스러운 것 속에 바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 감수성이 너무나 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무딘 탓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실망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떤 신비주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은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을 찾아내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어렵고 더 중요한 일은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분별해 낼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나의 환상인지? 이것을 분별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만날 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의식에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 영이 우리 의식에 증거할 때 마치 한 생각이나 의식이 우리 속에서 생겨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안에서 한 영감이 발생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로부터 온 것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16:19)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실체, 즉 어둠의 세력들을 이길 권세를 주셨고 또한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야 할 날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21 장을 살펴보면 주님의 때에 맞추어 예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분은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멩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시며 나귀의 등에 타셨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이었으므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시도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 이유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멩에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16:22-23)

베드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한순간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계시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베드로는 육적인 생각을 드러내고야 맙니다. 즉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자신을 보존해야 합니다 쉬운 길을 택하십시오 십자가를 저서는 안 됩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피해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는 결코 구속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단은 항상 십자가를 피해 쉬운 길을 택하라고 종용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인생을 즐기라고, 너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 사람, 옛 성품은 이미 십자가에 못박혔으므로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네 자신을 아끼라, 십자가를 피해 육체를 따라 살며 즐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므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자기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먼저 성경말씀에 견주어 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가 살펴보고 무엇이든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관성이 있으시며 무슨 일을 하시든 그 말씀에 어긋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피하라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령을 좇는, 예수님 안에서의 새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육신적 삶은 십자가 위에서 못박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육체를 좇아 살면서 동시에 성령을 좇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좇던 옛 사람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므로 이 둘이 서로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또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하는 바를 자기도 이해할 수 없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인간의 절망에 대해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성한 이상형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저것이 올바른 삶입니다. 내가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 가야 할 삶입니다'라고 동의는 하면서도 우리 육체의 연약함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것들은 하지 않고 내가 결코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말씀을 깊이 살펴봅시다. 로마서 7장 후반에서 바울은 어떠한 자아구제책도 소용이 없음을 토로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더 이상 그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간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외부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내 힘으로는 도무지 되지 않는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한 몸부림을 더 이상 칠 수 없을 때, 즉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을 시작하게 될 때, 바울이 스스로의 질문에 대답한 고백에 우리도 이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에 속박되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에는 "내가"라는 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장에서 성령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 영광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즉 자신의 옛 성품, 옛 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힌 것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삶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16:25)

만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서 혼자 힘으로 생명을 얻고자 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을 얻으려면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16:26)

만약 우리가 얻을 수 있고 달성할 수도 있는 어떤 것이 우리의 영혼을 앗아가는 것이라면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에 동참할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은 전세계보다도 귀합니다. 만약 전세계를 자기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래에서 전세계를 택하는 대신 목숨을 내어 준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영혼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바꾸는 것은 어리석은 거래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영혼을 주고 다른 무엇을 구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자주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어떤 것과 바꾸는 데에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을 참으로 가치없는 헛된 것과 바꿉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것들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비해서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실에 놀랄 뿐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16:27)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박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16:28)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17 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절 구분이 잘못된 곳들 중 하나로서 28 절 내용이 17 장 1 절 이하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6 장을 끊으려면 27 절에서 끊는 편이 훨씬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변화산상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산상변화

사실상 17 장은 16 장 28 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많은 질문들이 제기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으심과 다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심에 대하여,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틀린 예언을 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죽었고 아직도 예수님은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 잘못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6:28 에서 멈추지 않고 17 장과 연결하여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17:1-3)

16:28 은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었고(가이사라 빌립보는 다메섹 남서쪽 80Km, 그리고 헤르몬 산은 다메섹 남서쪽 48Km 쯤에 위치했음-역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서 오르셨던 산은 헤르몬 산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이 일어났던 장소들을 선정하는 일에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직접 관여하여 그 대부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녀가 어느 장소에서 서서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동굴임에 틀림없다. 여기가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케 될 것임을 말했던 장소이다. 난 여기서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면 그대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성스러운 장소, 즉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장소들을 결정하여 그곳들을 기념하기 위해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말씀을 잘 알지 못했고 또 관광적 편리함을 고려해서 이 변화산의 장소를 이스라엘 한복판, 갈릴리 바다에 가까운 므깃도 지역에 위치한 다불(Tabor) 산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곳이 바로 예수님이 변형되었던 장소다’라고 말하면서 이 다불 산 꼭대기에 큰 교회를 건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무리를 먹으신 장소도 벳새다 근처의 갈릴리 호수 북단 근방이었지만 당시 그 곳으로 통하는 길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관광객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훨씬 더 아래쪽 도시 막달라 근처에 오병이어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옛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 안에 예수님이 못박히신 곳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웠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성벽 문밖으로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박히신 장소에는 동산이 있었고 그 안에 당시 무덤으로 쓰였던 새로

판 동굴이 있었다고 기록되었음에도 그들은 다마스쿠스 문 안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뭏든 이런 식으로 그들은 관광적 편리함을 위해 예수님과 관련된 성스러운 장소들을 사실과 다르게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다불 산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길보아(Gilboa) 산보다도 높지 않았습니다. 헤르몬 산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무려 2,743m 나 되는 산입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다불 산까지 6 일은 족히 될 길을 서둘러 내려와 오로지 다불 산 꼭대기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시려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치에 잘 맞지 않습니다.

감람산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관련 있다고 하는 세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자신들의 교회가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난 정확한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바위 위에 남긴 발자국을 보여주니까지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베다니까지 가서서 그곳에서 승천하셨다고 나와 있건만 그들은 그 복음서를 읽지 않았는지 감람산 위에 그런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셨을 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예수님의 수난, 곧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하시게 될 죽음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 율법서나 구약을 의미했던 모세와 선지자 중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던 엘리야,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던 인물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율법과 예언의 완성이신, 즉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림자에 불과했던 모든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는 모세 오경을 썼을 때보다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그분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이야기하던 엘리야 역시 그런 경험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충동적인 성격을 지닌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17:4)

우리는 때로 자기도 모르게 무언가 말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느끼곤 합니다. 도무지 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말을 하게 됩니다. 충동적인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라고 말했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17:5)

구약에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구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 빛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회막이 완성되어 제물을 드릴 준비가 되자 이 빛난 구름이 온 백성 위에 나타나 여호와와 영광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백성들에게 알려 주고 지성소 안을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이 빛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역시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들었고 또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도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 장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해 오셨던 바를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증거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온전하고, 진정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나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리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17:6-10)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까지 이 일을 전과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구약의 선지서 중 마지막인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라기 4:5)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여기 한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며 메시아 되심을 고백했던 베드로는 그분이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이 오셨는데도 그것을 숨겨야 한다면 어찌하여 굳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백성들을 그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사역을 먼저 해야 한다고들 합니까”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17:11)

예수님은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그분의 나라를 즉시 세울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의 기간이 아주 오랜 세월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은 교회의 일들이 있고난 뒤, 미래에 되어질 부분을 다루면서 11장에서 두 증인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 이백 육십 일을 예언하리라...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요한계시록 11:3-6). 이처럼 이 증인들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 중 하나는 분명 엘리야일 것이며, 그때에 주님께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초림시의 증인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잉태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두려워하는 사가랴에게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세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던 예언이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세레 요한은 태어났고 그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와서 그에게 세례받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자 유대인들 사이에 큰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세레 요한이 어디서 이러한 권세를 받아 일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네가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라고 묻자 세레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세레 요한이 성경에 오리라고 기록된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앞서 왔던 예표적 엘리야로서의 세레 요한은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지 못하고 고난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전에 먼저 올 참된 엘리야는 주님보다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입니다.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어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lunatic-KJV)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17:14-15)

간질의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달에 해당되는 헬라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문자적으로 ‘달에게 맞았다’(struck by the moon)라는 뜻입니다(간질에 대한 헬라어의 뜻은 미치다라는 의미로도 쓰임-역주). 그 당시 사람들이 미치게 되는 것은 보름달 아래서 자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미쳤다는 뜻인 루네틱(lunatic)의 루너(lunar)는 라틴어로 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도 수백년 이상 지속되어온 생각으로 정신병은 달과 관련이 있다는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음력 보름달을 전후하여 모든 정신병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더욱 그 증세가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뭏든 여기 한 아버지가 제 정신이 아닌, 즉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17:16)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파송한 후에 “그들이 기뻐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그 후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7 장에서는 제자들이 병을 고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후에 그 영적 체험의 정점 너머의 내리막 길,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경험 후에 사단에게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단은 즉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영광스러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빼앗으려는 사단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무장해야 합니다. 받은 영적 축복이 아무리 엄청난데 할지라도 사단의 공격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은 후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혼란케 하고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 때부터 나오니라”(17:17-18)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환자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꾸짖으심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이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17:19)

아이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그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17:20)

예수님은 간단하게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이 이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컨대, 아버지가 이 소년을 먼저 제자들 앞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귀신은 필경 자기 자신을 과장되게 포장된 어떤 극적인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드러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 힘에 놀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사단의 힘과 능력을 대하게 될 때 단순히 그 상황만 보고 위압당해 불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게 됩니다. 사단의 힘에 놀려 훨씬 더 위대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도 주목할 만큼 사단의 능력이 엿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필리핀의 빌러빕 교도소에 보호감금되어 있는 테레사라는 소녀에게 사단이 들어 몸을 물어뜯는 사건입니다. 그녀의 목과 등에, 그리고 몸 전체에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부딪혀도 상처가 나지 않는 쿠션 시설을 갖춘 정신병동에 홀로 수감되어 있었고 상처난 곳은 도저히 스스로는 상처를 낼 수 없는 부위였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병 전문 의사들이 초빙되어 와서 치료에 나섰으나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미국인 선교사를 데려와 치료해 보자고 제안했으며 그때 레스터 서머털 목사와 밥 맥칼리스트 목사가 이 소녀를 치료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왔을 때 사단은 다시 이 소녀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이 두 선교사들은 소녀가 발작을 하며 몸에 붉게 물린 자국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장면을 보았다면 사단의 끔찍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선교사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테레사가 낫게 된 후 그 소녀는 이 두 선교사들에게 그 악령이 어떻게 그녀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는지 말했습니다. 어떤 남자든지 그녀에게 가까이 접근하기만 하면 미칠 정도로 질투를 하면서 이 악령들이 그녀를 공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그녀에게 이 악령들이 다시 돌아와 그녀를 다시 속박하려고 할터인데,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승리에 의지하여 싸워 이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이 악령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소녀는 다시 발작하는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완전한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괴력 앞에 힘을 잃고 그 악마적인 행위로 인해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사단을 능히 이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힘에 대해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흑암의 모든 세력을 과할 능력을 우리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참으로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살피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17:21-KJV)고 하셨습니다.

두번째 수난예고와 세금을 지불하시는 예수님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17:22-23)

예수님은 다시 앞으로 있을 고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르는 길로 접어드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갈릴리에 있으나 곧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여행하게 되고 십자가를 질 것이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경고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부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당시에는 그 충격으로 인해 들뜬 상태가 되어버린 채 그 소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무척 당황이 되고 놀라서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은 제대로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제 삼 일이 되었을 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그분을 찾으려고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뉘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17:24 -27)

세금을 낼 필요가 있었을 때 예수님은 ‘가서 나무 밑을 파 보라 그러면 돈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부가 지렁이를 찾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땅파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늘 하던 일, 즉 낚시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입니다.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깨 위에 무겁고 어려운 짐을 지워주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자녀들을 위해 좋은 것을 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우리도 자녀를 위해 좋은 것들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 드리며 전적으로 헌신을 고백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겸손과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

겸손의 중요성과 실족케 하는 일에 대한 경고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나이까”(18:1)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적인 권세를 기대했습니다. 즉 더 나은 자리를 얻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그들의 동기가 그다지 순수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주 ‘누가 큰 가’에 대해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18:2-4)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너무 틀렸습니다. 즉 진정한 위대함은 낮아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는 자가 큰 자입니다. 참으로 위대해지는 길은 바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18:5)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주님 보시기에 귀했던 순진함과 단순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18:6)

예수님은 100-200Kg 이나 나가는 큰 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18:7)

조심하십시오. 실족케 하는 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족케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조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918:8-10)

범죄케 하는 손을 찍어 내버리라는 말씀은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일들은 끔찍한 일입니다. 자신의 손을 자르고 눈을 빼는 일들은 생각만해도 혐오스러운 일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손을 자르고 눈을 뽑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몸 전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사향쥐(musk rat)가 뒷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뒤로 돌아 자기의 발을 잘근잘근 물어 뜯어 뒷에 낀 한 쪽 발을 남긴 채 도망을 갑니다. 이것 역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향쥐에 관한 한,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네 다리를 지닌 채 뒷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판자 위에 붙잡혀 있는 것보다 한 쪽 발을 버리고라도 목숨을 건진 것이 사향쥐로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결정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즉 “네 삶 속에서 너를 넘어지게 하고 네게 문제를 일으키는 그 무엇이 있다면 잘라버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제게 생기리라고는..., 정말 괴롭습니다. 제 아내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하며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끊어버리십시오. 내일 말고 지금 당장 관계를 끊어버리십시오.” 이에 대해 그분은 “하지만...”하며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만약 제가 의사였고 당신이 내게 와서 겨드랑이의 혹을 보이면서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했는데도 내가 조직 검사를 통해서 임파선암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단지 암일 수도 있겠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고통스러운 수술이니 그냥 아스피린이나 먹고 통증을 잊으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저에게 미친 의사라고 말하면서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두고 봅시다. 어떻게 되나 보게...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암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어떻게 다른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가 있는데도 신경쓰지 않으며 그냥 가만히 두고 있다면 예수님은 단호히 그 죄를 잘라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신이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성한 몸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1 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십니다(개역한글성경에는 11 절이 없으나 KJV 에는 기록되어 있음-역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18: 12-15)

이것이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증참게 하고”(18:16)

이렇게 다른 사람 한둘을 데리고 가서 그로 하여금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18:17-1)

여기서 매고 푸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풀고 사단의 역사를 묶는 일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일, 즉 기도로 일치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대부분 은밀한 중에 행해집니다. 그러나 함께 일심으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두시기를 적극 권해 드립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짐을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일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18:20)

가장 작은 교회의 형태는 두 사람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넷이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아, 오늘은 사람이 너무 적게 왔으니 나가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갖는 모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아, 내가 만약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손을 내게 얹게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소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십니다.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분께 나아간다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과 믿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그분 앞으로 지금 가지고 나가면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원리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18:21)

베드로가 일곱 번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후하게 붙여서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필경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앞에서 칭찬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18:22)

예수님은 용서해 주는 일이 수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때마다 그 수를 세다가는 결국 몇 번이나 용서해 주었는가를 잊어버리게 되고 ‘이것은 수학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라고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18:23-24)

한 달란트가 일억원 정도되므로, 일만 달란트는 이 금액의 일만 배나 됩니다.

“값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없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18:25-28)

백 데나리온은 약 200 만원 정도입니다.

“그 동관이 없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나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18:29-35)

여기서 ‘중심으로’라고 하신 말씀에 유의하십시오. 이 말씀은 진정한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여줍니다. 용서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저지른 보잘것없고 별 것 아닌 말이나 행실을 용서해 주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은 험문할 것입니다. ‘조건이 있는 용서가 아닙니까?’ 즉 예수님이 행위에 의한 구원을 말씀한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려는 말씀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용서해 준다는 말만 하는 것 이상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요, 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상 우리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용서하는 영을 주십시오. 제게는 쓴 뿌리가 있고 그들이 내게 행한 일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분노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만큼은 용서할 수 없고 꼭 앙갚음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것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제게 용서하는 영을 주십시오. 이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용서의 영을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원한다면 주님이 제게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자 해야 합니다.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먼저 용서가 앞서야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의 태도

결혼의 본래적인 목적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 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좃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19:1-2)

예수님은 남쪽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19:3)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 즉 유도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텃을 놓으려는 질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여 계속 함께 살기를 원치 않으면 그로 하여금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랍비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아내의 '수치되는 일'은 남편에게 아침을 지어주지 않았거나 달걀을 너무 오래 끓여 노른자위가 딱딱하게 되었다든지 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라도 남편이 '이혼을 해야 겠다'고 생각하여 이혼서류를 작성하면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는 할 수 없이 이혼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이혼하고 싶으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랍비들은 이 '수치되는 일'은 도덕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결혼 당시 처녀가 아님이 밝혀진다는지 결혼서약을 깨뜨리는 행위를 '수치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이에서도 그들이 각기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대체로 아내의 '수치되는 일'에 대해 협의적이고 도덕적 관점에서 보았던 힐렐(Hillel)학과와 광의적이며 포괄적으로 다루는 샴마이(Shammai)학과로 나뉘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꼬투리를 잡기 위해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은지 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오”(19:4)

여기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즉 창조 당시의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심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질서를 바꾸어 보려는 경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19:5)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결혼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몸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로 인해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스물세 개의 염색체가 각각의 부모에게서 나옵니다. 그리하여 새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아내에게 ‘당신 아기니까 당신이 돌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아니라 한몸이 된다는 사실의 완전한 설명이 됩니다.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19:6)

그 당시 여자들에게는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합치셨으니 헤어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어찌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19:7)

그들은 모두 모세가 준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지만 모세의 율법은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도 이 모세의 율법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에 의하면 이혼은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모순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한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셨는데 어찌하여 네가 그럴 수 없다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19:8)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모세가 나타나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오”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다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며 원하셨던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19:9)

모세는 그렇게 말하였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라고 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외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예외는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 가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대”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분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일생에 한 번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어 자녀를 낳고 자녀들은 부모의 보살핌 속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회전체가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전체의 붕괴와 질서의 몰락은 남편과 아내가 갈라짐으로써 오는 가족관계의 붕괴로부터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불화와 갈라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예외, 즉 이혼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간음의 경우에 한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무고한 쪽은 재혼이 허락됩니다. 예수님은 매우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바로 음행이 이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19:11-12)

이 부분은 예수께서 고자인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받을 만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해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19:13-15)

제자들은 아이들이 주님을 방해하는 줄로 알고 막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하시며 손을 그들의 머리에 얹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한(KJV)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19:16)

예수님께 한 도덕주의자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행위를 통해 구원의 선물, 즉 영생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또는 금식과 봉사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에 대해 주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26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사람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됩니다. 따라서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얻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KJV)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을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9:17)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선하지 않다’는 뜻이든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는 이 사람의 의식을 일깨워,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한 참된 이유는 비록 내가 확실히는 깨닫지 못했더라도 뭔가 내게 다른 것이 있음을 느끼고 있음이 아니냐?”라고 하신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즉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선생님께서 찾아볼 수 있는 저 영원한 생명, 영원토록 변치 않는 참 생명을 얻으리이까?”라는 말은 혈육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영적 진리에 상당히 가까이 접근해 있구나.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이렇게 묻게 된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19:18-19)

주의할 것은 모세의 십계명 중 처음 부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은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도덕주의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믿고 그런 일을 찾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고 그의 삶은 선한 일을 하는 데 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19:20)

여기에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도덕주의자요 어릴 때부터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율법을 지켰던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자신의 생애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우고 어긋남이 없는 일만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 속에 영생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는 단지 선한 삶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좃으라 하시니”(19:21)

예수께서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은 내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나를 좃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이 말씀 외의 다른 부분을 일반적인 적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21 절의 말씀은 그 청년에게 하신 개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좃아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진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으로 적용시켜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 예가 있는데, 재정적 재난과 또한 개인적 몰락으로 끝을 맺곤 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흥분했으며 주님께서 곧 오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아나니아가 그것을 베드로 앞에 내려놓았을 때,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재산의 전부를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부부는 재산을 팔도록 강요받지도 않았고 판 돈을 가져오도록 요구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유 의사대로 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을 좇아 영생을 얻기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와서 나를 좇으라.”

예수님을 좇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부딪히는 모든 장애 요소에 대해서는 주님이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이 젊은 청년의 경우에는 주님을 따르는 것을 가로막았던 요인은 그의 부요함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짓 신이 있다면 지금 즉시 없애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참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19:22)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근심도 컸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19:23-26)

이스라엘에는 예수 강단 교회(Church of Nativity)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로 통하는 문 아래쪽에 작은 문을 바늘귀라고 부릅니다. 여러 도시들로 들어가는 문들 아래에는 항상 이 바늘귀라는 작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타가 이 문을 통과하려면 짐을 모두 내리고 몇 명은 뒤에서 밀고 또 몇 명은 앞에서 끌어당겨야만 했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문을 의미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쓰고 노력하면 구원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 발상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전적으로 틀렸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애쓰면 통과할 수도 있는 그런 작은 문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바느질할 때 쓰는 바늘의 귀를 의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너는 노력해야 한다. 끙끙거리고 몸부림쳐라. 최선을 다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역사로 각 사람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단순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19:27)

베드로는 항상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19:28)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주위에 있는 스물네 보좌를 보았으며 그 위에는 스물네 장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스물네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열두 보좌는 열두 제자들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해석상의 문제로 몇 가지 견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19:29)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나 더 주시는 것뿐 아니라 영생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 아내가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이 못마땅하게 여겨 갈라기를 원하면 사도 바울은 헤어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여러 배나 받게 되며 영생의 선물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19: 30)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고, 그 후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즉 이방인들이 먼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 후사로서 하나가 되어 영원히 영광스러운 나라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 분별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시민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종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성품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나의 본래의 기질인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래 기질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십자가 위에서 옛 사람과 함께 죽었습니다. 묵은 기질을 더 이상 지니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마태복음 20 장은 품꾼들이 포도원에 들어가는 비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20: 1-2)

하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또 제 삼 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쉰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20:3)

주인은 아침 6 시에 장터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습니다. 그런데 삼 시, 즉 9 시경에 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5 절에 보면 “제 육 시와 제 구 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즉 정오와 오후 3 시에도 마찬가지로 고용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말씀입니다.

“제 십일 시에도 나가보니 쉰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쉰노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20:6-7)

오후 5 시에도 이와 같이 놓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본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저물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샅을 주라 하니 제 십일 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므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20:8-16)

마태복음 19 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와 연결되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27 에는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았사오니”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포도원에서 일할 때, 즉 그분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포도원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품꾼들은 스스로 원해서 포도원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냈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인과 이야기한 대로 품삯을 받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전생애를 통해 예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언뜻 보기에 매우 불공평해 보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 전체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은 제 십일 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도, 즉 삶의 마지막 때에 주께로 돌이켜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영생의 축복에 관한 한 우리와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에 대해 주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시간이든 열두 시간이든 간에 맡기신 일에 대한 신실함을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빌리 그래함 목사 같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룩한 엄청난 사역의 열매들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빌리 그래함 목사가 받게 될 상급과 같은, 또는 더 큰 영광을 얻게 될 사람들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한 번도 관심을 끌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일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밀실에서 중보 기도를 한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 참으로 신실하게,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섬긴 이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실상 돋보이고 남들 앞에 자주 드러나는 사역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생각보다 작은 상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그들이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가가 즉시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서 이미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주님이 선하게 행하신 것에 대해 사람들은 못된 마음으로 불평하고 감사치 않습니다.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에 대한 세번째 예언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20:17)

분명코 가시는 길에 큰 무리가 따랐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 하리니 제 삼 일에 살아나리라”(20:18-19)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완결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의 삼 년이라는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정확히 아신 예수님은 그곳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을 때부터 제자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열둘 중 하나인 유다에 의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박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만 보아도 채찍질에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병정의 채찍질은 참으로 고통스런 것이었습니다. 기둥에 묶은 후에 등은 쪽 퍼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채찍은 가죽에 사금파리나 납 등이 박혀 있어서 등에 닿았다가 떨어질 때 살점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채찍질은 로마인들이 했던 방식의 독한 고문이었습니다. 이 고문의 목적은 채찍질당하는 사람이 로마에 대해 지은 잘못을 자백하게 만드는 데 있었습니다. 자백을 하는 것에 따라 채찍질하는 사람은 점점 그 강도를 낮추어 줍니다. 그러나 채찍질당하는 사람이 지은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채찍질은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이사야 53:7).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도 채찍의 강도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떤 잘못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려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했으며 왜 고난을 당해야 했는지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별 필요도 없이 고난당하도록 허락하셨겠습니까? 고난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가치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분명하게 말했듯이 주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8 장에 보면 예수께로 오는 병자들을 주님께서 모두 고쳐주셨는데, 이러한 사실들은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벧전 2:24)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죄를 위해서 몸이 깨어지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사건을 기억하며 행하는 애찬을 잘못 행하고 있음에 대해 경책했습니다. 그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가지는 가벼운 태도와 좋지 못한 습관에 대해 질책했습니다.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이 성찬을 대했던 사람들에게 이 일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broken-KJV)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채찍질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뼈는 부러뜨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흠이 없는 것, 즉 부러진 것이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한 시편의 예언도 그분의 뼈가 보호를 받아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부서진 내 몸이니 할 때에 내 몸이란 떡을 떼듯 떼어진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신 채찍질로 인해 그분의 몸은 처참히 찢어졌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채찍질은 너무도 혹독하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형벌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채찍질 그 자체를 견디내지 못하고 피를 흘린 채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 채찍질로 몸이 지치셨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채찍질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질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찢어진 그분의 몸을 기억하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와 성령의 역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분이 준비하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경책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영적인 의미로는 누구나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단지 영적인 것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8장은 이것이 육체적인 치유에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육체적 문제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찬식에는 육체의 고침을 위한 예배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조각난 빵을 집어서 가지고 갈 때 우리를 위해 찢기셨던 그분의 등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몸에 그분의 손길이 닿고 있음을 얼마나 확실하게 느끼고 있으며, 우리의 약함을 고치시기 위해 그분이 당하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치유의 역사를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20:20)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 최고의 수준을 기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20:21-22)

이 두 아들들은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께 구하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했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할 수 있나이다”라고 말했다는 사실로 봐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박히실 것과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20:23-24)

예수님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을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종의 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유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20:25-27)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데 요구되는 종의 도에 관해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원칙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전임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종종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에 대해 대우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권세를 부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고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며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70 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한 풍조 중 가장 회한했던 운동 하나는 소위 ‘목양교리’(Shepherding doctrine)라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은 목자(Shepherd)로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스스로 권세를 부리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대언자로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 차를 사는 문제에 관해서까지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나 소위 목자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크고도 무거운 속박의 교리이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는 정반대 되는 원칙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노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대우를 받고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 위해서, 즉 섬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대우받기를 기대하고 섬김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좇더라 소경 둘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좇으니라”(20:29-34)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소란스러워지자 길가에 앉았던 두 소경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고통받고 상처입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멀지 않은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 소경은 이 때를 그들 생애에 단 한 번 주어지는 절호의 기회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볼 수는 없었지만 무리들이 가는 방향을 향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주위에 몰려 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려는 두 소경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개의치 않고 결사적으로, 더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어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 온 소경들에게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히 여기서 눈을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뜬 그들은 무리와 합세하여 예루살렘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무거웠을 것입니다. 배반과 능욕과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박힐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목사들은 종종 그들의 사역이 확장되어 가면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접촉을 제한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개인적인 필요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사역이 섬기는 주인보다 더 커져버린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주인이요 내가 돌보는 양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일일이 돌볼 만한 시간이 없어졌다면 자신의 목회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 두 소경은 영적인 장님들, 즉 죄인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태도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는 장애가 있으나 새로운 삶을 소망하며 끈질기게 예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만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은 이루어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21:1-5)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려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종려 주일’(Palm Sunday)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 주간 동안에 예수님은 배반당하시며 채찍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이 일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된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서는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겹옷을 길에 퍼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퍼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21:6-11)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 뒤에서 시편 118 편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118 편에서 다윗은 메시아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이 날에 그들은 히브리어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원어로 된 25 절의 첫 단어, 즉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어로는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시편 118:25-26). 이렇게 그들은 구원의 주를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적합한 말씀이며 외침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날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앉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21:12-13)

예수님은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매매하는 자들은 로마돈을 성전에 바치는 세겔 주화로 바꾸어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주화는 성전에 바칠 수 없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화폐였던 세겔만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 바꾸는 자들은 그곳에 상주하면서 편의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화폐를 성전화폐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폭리를 취했던 것입니다. 성전 화폐를 얻기 위해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비둘기는 길거리에 나가면 약 이삼 백원 정도의 적은 돈으로 한 마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내에서 파는 비둘기는 제사장의 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마리에 사 천원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제사장들에 의해 인정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비둘기를 사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제사장은 비둘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자기의 인이 있는지 확인한 후, 하나님께 흠있는 것이니 다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찾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간교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는도다”고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셨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21: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야 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습의 성전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물품을 사라고 외치거나 분주히 움직이는 상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곳이 아니라 각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은 것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젓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21:15-17)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지 않고 베다니에 가셔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성전에서는 아이들이 “호산나”라고 소리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해 하였고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해서 “어린 아기와 젓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21:18-22)

주님은 기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뜻이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네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는, 즉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주를 좇아가는 사람은 자신보다 주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러한 사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든지, 즉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캐딜락이나 벤츠 자동차를 구하더라도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 주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는 예수님이 그 능력을 심판하시는 데에 쓰신 최초의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축복하고 고치고 도와주시는 데에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심판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아뭏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그분이 심판하시는 능력을 처음 쓰신 일이었으며 이것은 제자들을 몹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실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저주가 참으로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에는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사월, 즉 유월절로서 열매를 맺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였기에 예수님이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저주하신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무화과나무에는 조기열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2월에 그곳에 가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는 없고 큰 무화과 열매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잎사귀가 나오기 전에 열매가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열매를 ‘첫번째로 익은 열매’라고 부른답니다. 심지어 늦은 2월에도 아주 잘 익은 열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삼월 하순이나 사월이 되어야 비로소 잎사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를 길러 본 분은 아시겠지만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잎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무화과나무에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첫번째로 익은 열매가 있어야 했다는 뜻이 되며, 이 무화과나무에서 정상적인 결실을 위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도 볼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로 상징하여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는 무화과 열매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담긴 바구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나쁜 열매가 담긴 바구니는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려집니다. 요엘서와 호세아서에도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에 비유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저주받아 시들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21:23)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신 다음날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나 사람에게로서나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21:24-27)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였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고 증거했던 예수님을 당연히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두 비유를 통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그들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실제적인 상황으로 이끌어 내어 대답하게 만드십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울무에 걸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킴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도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21:28 -32)

물론 이 비유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기들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싫소이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 가운데 살며 그들의 등을 하나님께 돌렸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나아와 주님을 섬겼습니다. 한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라고 대답한 자들이었으나, 가지 않고 단지

말로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즉 가지 앗겠다고 했으나 나중에 뉘우치고 간 자나 아니면 가겠다고 했으나 가지 앗은 자나는 말씀입니다.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겉치레만 하는 종교적 의식은 많지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는 등 겉치레적인 행동만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가장 큰 슬픔의 표현은 자기 옷을 찢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심하게 상한 감정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정적인 표현을 원치 않으시며, 참으로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겉으로만 드러나는 겉치레는 원치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둘째 아들이니이다”고 말하였을 때 예수님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즙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21:33)

이 비유는 그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비유하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짜는 술틀을 파는 등의 묘사를 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들포도만 맺히자 그 포도원 담을 헐어내고 포도원을 황무케 했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과 때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21:34-41)

그들은 또 한번 자승자박을 하고만 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시 그들에게 시편 118 편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예루살렘 입성 때 백성들이 외쳤던 바로 그 시편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시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체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앎이었더라”(21:43-46)

예수님은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일은 속히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으나 그들이 거부함에 따라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요한복음 15:1-4)

그러므로 주께서 찾으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고 깨끗케 하십니다.

44 절의 말씀은 예수님과 맺을 수 있는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구원의 주요 주님으로서 섬기는 관계냐, 아니면 심판자로서의 관계를 갖게 되느냐 입니다. 회개하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물론 깨어지겠지만 새롭고 온전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자기 위에 떨어지는 자는 심판자로 그분을 맞게 됩니다. 즉 가루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

혼인 잔치 비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22:1-3)

이 비유에는 먼저 임금님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22:4-7)

이 비유는 예언적입니다. 제일 먼저 종들은 이 잔치에 손님으로 청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으나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제 잔치는 준비되었고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종들이 가서 오라고 하였으나 초대받은 이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으로, 시장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사도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전하지만 그들이 거부한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디도에 의해 불태워지고 사람들이 몰살될 일을 예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어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22:8-14)

이제 주인은 종들에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합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복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예복 없이 혼인잔치에 참석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주인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올 때 그들은 영접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울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 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 한대”(22:15-17)

그들은 여러 궁리 끝에 이 질문을 생각해 냈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교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다고 한다면 모든 유대인들이 그분을 마워할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며 반역자라고 비난할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로마와 작당하고 있다고까지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직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노라고 한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에 종속되어 있었으나 자신들을 로마의 노예로 여기지는 않았습다. 당연히 그들은 세금 바치는 일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들은 로마의 관리에게 세금을 거부하는 반란을 주도한다고 보고하여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도록 만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의 질문에 숨겨진 의도를 아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하시며 동전을 가져오도록 명하셨습니다.

“셋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테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뉘 것이냐”(22:19-20)

그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었습니다.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22:21-22)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그들은 흠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 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22:23)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와 영혼을 믿지 않았습다. 그들은 물질주의자들이었고 그들 시대의 이성주의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 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장가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끼쳐두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뉘 아내가 되리이까”(22:24-28)

그들은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알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활이 허황된 개념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처럼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심장이식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심장을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둘 다 믿는 사람이라면 부활 때 이 심장은 어느 쪽으로 가겠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죽어서 넓은 들판의 땅 속에 묻혔습다. 이들의 몸은 분해되어 흙 속에 섞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자라는 풀의 뿌리가 땅 속의 성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소들이 이 풀을 뜯어 먹습다. 이 소들에게서 나온 우유를 우리가 다시 마시게 되며, 한 때 다른 사람의 몸을 이루었던 화학적 요소가 우리의 몸 안에서 동화됩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는 어느 몸으로 이 화학적 요소들이 가게 됩니까? 이런 식의 생각으로 그들은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예수님께 나아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몰라서 오해합니까?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장래에 새로운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장막집이 무너질 때 우리는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하늘에서 오는 새 형체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문제 거리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22:30)

결혼의 목적은 건강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그 안에서 자녀들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선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풍성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감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체로 변화되어질 것인가에 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므로 그때 가서야 우리는 알게 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상상에 불과하며 별 가치가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22:31-32)

하나님께서서는 출애굽기 3:6 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적으로 죽은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22:34-40)

바울은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하였고,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있으며 그 안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율법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나타냅니다. 이 두 계명이 구약의 전체 내용이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22:41 -42)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야로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야에 관한 그들의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나?”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요한복음 10 장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때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들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고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고 대답했습니다.

36 절에서도 그들은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니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쉼마를 인용하셨습니다. 이 쉼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고 시작되는데, 이 말에서 히브리어 ‘에하드’라는 단어는 하나를 의미합니다. ‘에하드’는 집합적 단일체(compound unity)를 의미하는데 비해, 하나를 의미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야키드’는 절대적 단일체(absolute unity)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이루어진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비해서 ‘에하드’는 집합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우리는 한 회중으로 여기 모여 있다’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우리 각인이 한 개체로서 모여 있지만 전체가 하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에하드’라는 단어가 ‘한 회중’의 ‘한’에 해당하는 말로 쓰일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 단일체를 의미하는 ‘야키드’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되어 홀로 사용됩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에서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가 ‘야키드’로 쓰여졌다면 오늘날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가 성립될 기초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합적인 단일체인 ‘에하드’가 쓰여졌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하드’는 하나 이상을 뜻하지만 여전히 하나 안에 일치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세 분으로 나타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해서 둘로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니이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좌에 영원히 앉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일반적 호칭으로 쓰였습니다. 여리고에서 소경들이 예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붙잡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으나 그 이상 되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마리아에게서 출생된 그분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돌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22:43-45)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하여 노래한 시편 110:1 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메시아를 그의 주라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아들이라면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주로 칭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로 부르느냐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그들 사회의 문화 관습에 전적으로 상반되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아버지가 자식을 ‘주’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주’라 부르는 것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가에 관한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에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성경이 다윗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바로 다윗이 선지자요 하나님의 대언자였음을 증명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22:46)

요한복음 5 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만약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형되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구약에도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내용은 많습니다. 시편 2:7 에서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무엘하 7:14 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중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6 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한 아이가 태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냐”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은 나사렛의 어느 남자의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성경의 증거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

22 장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묻는 질문들에 답변하시다가 바리새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능히 대답하지 못하고 그 날부터 감히 예수께 묻지도 못하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23:1)

지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을 받고 또한 질문을 하시던 예수님이 이제 그분의 제자들과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 절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맹렬히 책망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이 무리와 하시는 말씀을 주의깊게 살펴봅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23:2)

헬라어로 자리는 ‘카테드라’인데, 이것은 직위나 임무를 가리킵니다. 즉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않느니라”고 교훈하십니다.

21 장에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저들을 겨냥한 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저들도 그 비유가 자기들에 관한 것임을 눈치챘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싫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은 이 비유를 상기시키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명목상 기독교 국가의 국민들이 ‘나는 기독교 국가에 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중대한 착각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23:3-4)

이스라엘 성지에 가보면 아주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짐을 너무 많이 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저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사진들 중에도 엄청난 크기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사진이 있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리만 보여 마치 큰 짐에 다리가 달려가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 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엄청나게 큰 짐을 실은 당나귀의 모습입니다. 짐이 옆구리까지 내려와 이것도 마치 네 다리가 달린 짐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기들은 까딱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짐을 진 광경들을 일상적으로 보았던 사람들에게는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는 비유였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여 옷술을 크게 하고”(23:5)

저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보훈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의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식할 때에도 슬픈 기색을 하거나 얼굴을 찡그리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23장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교훈을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하여, 그들의 모든 경건은 외식적이며 그들의 유일한 목적과 동기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영적인 지도자로 우러러 보게끔 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자신이 입었던 옷과 그들이 개발했던 허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참으로 영적이고 의로운 자들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진정한 경건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 청년이 저녁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저에게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저는 혼자 일어서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앉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앉으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요?”하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앉아 있는데 당신 혼자 일어서게 되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성도님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기울이려고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온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께 경배 드릴 때 또 주님을 섬기는 어떤 일을 할 때 당신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우리 자신의 옛 성품은 완전히 부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활동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 곧 옛 성품은 언제라도 자신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영적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는가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읽는 데 들이고 있는가를 알아주기 원합니다. 실제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주 실제의 영적 상태보다 더 영적인 상태로 비쳐지기를, 또한 실제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 것보다 더 헌신하는 상태로, 그리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으로 남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상을 남들에게 주려고 애쓰고 있을 때에 위선자가 됩니다. 외식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구제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특별한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은밀한 곳에서 만나주시는 주님께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5 절 하반부에 보면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문이란 보통 기도하는 동안 유대인들이 그들의 이마나 왼 팔에 묶어둔 조그만 상자로서, 출애굽기 13:9 에 나오는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어떤 짐도 저서는 안 되었으므로 안식일만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에 이 경문을 차야 했습니다. 팔에 차는 작은 가죽상자 안에는 구약에서 따온 네 구절의 성경말씀을 한데 적은 초미니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고, 이마에 묶은 다른 가죽상자 안은 네 칸으로 나누어져 같은 성경말씀을 각 구절별로 따로 따로 적은 작은 두루마리 네 개가 한 칸에 하나씩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을 넓게 만들어 찻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저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로구나’하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옷술을 크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옷술이란 유대인 남자의 위에 입는 겂옷의 네 끝에 있는 가 장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민 15:38)고 하였고, “입는 겂옷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신 22:12)고 명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서쪽 벽에 가면 그곳에 나와 기도하는 유대인들 중에 기도를 시작하기 전 이같은 경문을 꺼내 이마와 팔에 차고 또 네 귀에 술을 단 기도수건을 꺼내어 머리를 덮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옷에 술을 다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와 명령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며 그분의 뜻에서 멀리 떠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보여 존경을 받으려고 그들의 옷술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은 것을 좋아하느니라”(23:6-7)

예수님은 그들이 잔치의 상석과 회당에 앉기를 좋아하는 태도를 지적하셨습니다. 회당의 상좌는 존경받는 위치로서 건물의 정면에 위치해 있어서 회중들과 마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앉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그를 참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당의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온갖 경건한 태도와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박사’라 칭함받기를 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계급구조라는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형제들입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높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잔치의 말석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의 자리는 저기 상석입니다. 저리로 가서 앉으십시오’하는 것이 낫지, 처음부터 상석에 앉았다가 ‘자네 자리는 거기가 아니네, 저 밑으로 가서 앉게’ 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인 목회자와 장로들은 높은 자리와 명예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23:9)

여기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는 예수님에 의해서 금지되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직자 모임에서 성공회나 천주교의 사제들과 함께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줘야 할지 참으로 곤란했습니다. 저는 결코 그들을 신부(Father)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23:10)

예수님은 호칭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저들이 호칭(title)을 너무 좋아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호칭을 갖게 되면 그것으로 그 사람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계급구조를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을 높이며 남의 시선을 끌기 위해 거저된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격한 어조로 꾸짖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화를 내고 떠든다면 그 사람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어느 때 갑자기 울분을 터뜨리게 되면 모두가 ‘어찌된 일인가’하면서 놀라고 당황하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특히 주목을 끄니다. 철저하게 죄인 취급을 받던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와 소위 영적 지도자들과 자처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일 그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다면 그 상대방 남자도 잡아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여자들만 회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저들의 살기등등한 질문에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온유하게, 관용과 자비와 친절한 태도로 그 죄인이었던 여자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 장에는 다섯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또 새 남자를 맞아 결혼식도 없이 살고 있던 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태도로 그녀에게 영생과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모든 죄인들에게 부드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결코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에게 오는 자들을 항상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의인으로 자처했던 자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기를 좋아했던 자들에게는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불행스럽게도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의 많은 영역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목회자들은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에 빠져 자신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자들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KJV 23:14)고 선언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 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에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나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나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나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나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나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23:15-22)

예수님은 저들의 전통적인 규례와 가르침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맹세할 때 ‘성전에 대고’ 하면 그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성전의 금에 대고’ 맹세하면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는 식의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전통이 저들의 신앙체계가 되었고 교의와 교리의 일부가 되어 백성들을 옳아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23:23)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향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음식에 아주 소량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아주 주의해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십일조를 드렸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들, 즉 의(justice)와 인(mercy)과 신(faith)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일조에 관하여는 예수님도 분명히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의와 인과 신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소경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23:24)

그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우선 천으로 한 번 걸러 냅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 하루살이를 특별히 걸러내어야 하는 이유는 저들의 율법에 하루살이는 부정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그 속에 피가 들어 있으므로 피째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에 철두철미한 자들이

부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약대는 통제로 삼키고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세밀히 신경을 쓰면서 더 중요한 것들은 놓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3:25)

속이 아주 더러운 컵이 겉은 아주 아름답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겉만 보고 그 잔으로 마시려고 하다가 그 속의 온갖 먼지와 벌레와 찌꺼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겉은 얼마나 깨끗하고 경건하게 보입니까? 그러나 속 마음에는 탐욕과 방탕과 온갖 더러운 죄의 욕망이 가득했습니다.

“소경 된 바리새인이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23:26)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동일하게 내면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전 4:5).”

여기에서 마음의 뜻이란 쉽게 말해서 동기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각 사람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드러내시고 그에 따라 칭찬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의와 경건이 없으면서도 외적인 종교적 의식을 행하여 얼마든지 의로운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드러난 행동보다도 내면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의로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중히 여기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23:27-29)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기드론 계곡에 있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덤들을 얼마나 보기 좋게 꾸며놓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다윗의 무덤이라고 부르는 곳에 가보면 은으로 된 관이 있고 그 속에 다윗의 유해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무덤 앞에서 무릎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주변을 잘 장식해 놓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그렇게 다윗의 무덤 장식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조상들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상의 무덤을 돌아보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때 있었다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박고 그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23:34-36)

예수님은 이들을 정죄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지상최대의 전무후무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조상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이제 그 후손들은 선지자들이 말하던 대로, 메시아를 죽이려 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23:37)

그들이 행한 그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23:38)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23:39)

박해가 아주 심해질 때까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환난이 너무 커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며 예수님을 갈망하며 그분에게 간절히 부르짖을 때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을 방문하여 ‘예루살렘 평화회의’라는 모임에서 연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임은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들과 교회 대표들이 모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사랑과 지지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연설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보니 미아 샤림지역에서 한 랍비가 보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 분은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건국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일부 극단주의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편지를 통해 이스라엘은 국가로서 존립할 권리가 없으므로 내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연설을 한 것은 타당치 않다는 특이한 견해를 피력하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예루살렘 평화회의’를 준비하고 그 일을 추진했던 유대인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편지를 보여주며 ‘여기 귀한 감사장이 왔습디다’했더니 그들은 그 편지를 보고 ‘척 목사, 이 친구들은 극단 과격주의자들이니 신경쓰지 마십시오. 광적인 사람들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분은 랍비인데요’ 했더니 그들 말이 ‘랍비들도 광적인 극단주의자일 수 있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때 제가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랍비들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천년 전에 몇몇 랍비들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한 몇몇 랍비들이 오늘날 내게 이 편지를 보낸 이 극단주의자 랍비와 같은 광적인 사람들이었으며 아직도 그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종말에 관해 예언하시는 예수님

종말적 사건과 대환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24:1)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성전 건물에 쓰인 돌들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물었다고 되어 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 엄청난 크기의 돌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약 120 톤이나 되는 돌들이 너무도 완벽하고 꼭 맞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돌과 돌 사이에 칼날도 넣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그 큰 돌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쪼아서 딱 들어맞게 짜 맞추었는지는 오늘날에도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헤롯이 그 거대한 돌들을 이용하여 서쪽 용벽을 지은 공법은 오늘날에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서쪽 벽 뿐만 아니라 용벽 위 성전 대지(Temple Mount) 위에 헤롯이 재건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성전을 가리키며 예수님께 감탄의 말을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24:2)

예수님의 예언은 그로부터 약 40 년 후에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A.D. 70 년에 디도가 로마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입하여 예루살렘 성의 최후의 요새였던 헤롯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사실 디도는 그 성전을 보전하려고 했지만 술취한 군인들이 디도의 명을 어기고 불화살을 쏘으로써 성전에 불을 질러 그 성전 안에서 저항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는 동안 거대한 돌들의 틈 사이로 금이 녹아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로마군인들은 그 금을 얻기 위해 돌들을 하나씩 떼어 놓아 마침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의 서쪽 벽(The Western Wall)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성전 대지(Temple Mount)로 들어가는 입구의 동쪽 오른 쪽 아래를 내려다 보면 골짜기 아래에 옛 로마의 도로들이 발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돌들이

밀려서 떨어진 모양으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 돌들 중 몇 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전을 지탱하던 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운 채로 그 골짜기 아래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24:3)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 감람산으로 가서서 거기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도 성전에서 동문으로 나와 기드론 계곡을 통과하여 감람산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감람산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사오리이까?” 이 일은 물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여기에서 세상 끝(the end of the world)이란 물리적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역의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있을 인간의 허물과 죄의 시대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때 나타날 징조를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24:4-5)

사실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자신이 세상의 구세주라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 것도 사실입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추종자들을 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교 집단의 우두머리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버그는 하나님의 자녀들(The children of God)을, 문선명은 통일교도(Moonies)들을 이끌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24:6)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대체로 평화로운 시기가 1 년이면 13 년간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국지전은 말세의 징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헬라어로 세계대전을 의미하며 세상 끝의 징조를 가리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24:7-8)

이런 것들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세계대전은 우리가 두 번 겪었습니다. 제일차 세계대전은 1914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기근에 관해서 살펴보면 오늘날 세계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년 천오백만 명이 굶어 죽거나 영양 실조에서 비롯된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진은 현재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the beginning of sorrows)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재난(sorrows)이란 분만의 진통을 의미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24:9)

분명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과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하였습니다. 존 폭스(John Foxe)의 「순교자들의 책」(The Book of Martyrs)에 보면 역대 순교자들의 이름들과 그들이 순교당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24:10-12)

오늘날 우리는 불법이 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24:13)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24:14)

가까운 미래에 예수께서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족속들이 많이 있다는 현실을 들어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 교회가 설립된 지 약 30년 후에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썼는데, 여기에서 “온 천하”라 함은 온 세계를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시대에 이미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거의 대부분의 민족들이 이미 복음에 접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 온 세계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반드시 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 구절을 해외 선교 사역의 기치로 내거는 많은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기까지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 없다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선교의 팔을 온 세계에 뻗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요한은 한 천사가 하늘 중앙을 날아가는데 그가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6). 여기에서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천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7). 그러므로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며 이것은 대환난기의 끝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교회가 아니고 천사입니다. 어쨌든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를 의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을 날며 적그리스도를 삼키지 말 것과 그의 표를 받지 말 것을 경고하며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모든 자들이 받을 임박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기록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겹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젓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24:15-19)

예수님은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해 말씀하시고서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한 기사는 다니엘서 9장에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여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언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언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다니엘 9:24-25)

다니엘에게 임한 예언은 이스라엘 민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 칠십 이레(490년)의 기한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5 절에 보면 예루살렘 증언에 대한 명령으로부터 메시아가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7×7=49)와 육십이 이레(62×7=434)가 지난다고 했으니 모두 483년이 됩니다. 그러한 명령은 실제로 주전 445년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예루살렘 증언에 대한 명령이 있는 지 483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6 절에 의하면 천사는 다니엘에게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로 메시아가 끊어져 왕국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흩어질 것이며 성읍과 성소의 종말이 홍수처럼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육십구 이레(69×7) 후에 유대 민족이 흩어지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 서두에 이스라엘 백성과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70×7)로 기한을 정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한 차례의 7년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483년 후에 오셨고 그는 끊어졌으며 왕국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군이 침입하였고 유대인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7년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장차 백성 중에 한 왕이 일어날 터인데 그가 이 최후의 세계제국의 지도자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세계 제국이란 유럽의 10개국 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지도자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짐승 등 성경 안에서 몇몇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일반적으로 적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한 언약을 세울 것입니다. 이 언약을 통해 그는 메시아로 열렬히 환호받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에는 틀림없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대망하는 메시아는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는 자이며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킬 자라고 공공연하게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인정받으려면 이런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예언에 따르면, 그는 7년 기간의 전 3년 반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 들어가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함으로써 그곳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4에서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의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20 절에는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유대 백성에게 하신 유대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짐승이요 불법의 사람인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주어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3년 반을 양육받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 용은 이스라엘이 자기로부터 도망한 것을 알고 군사를 보내 그들을 추격할 것이나 땅이 입을 열어 그 군대를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년 반 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일을 두고 이사야서 26장에서 요르단 땅 곧 페트라에 대해 이르기를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라고 한 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이 같지어다 네 밀실이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노'라 함은 구약의 용어로 신약에서는 '환난'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24 장에서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는 때'라는 것은 이 7년 기간의 두번째 3년 반이 시작되는 때를 말하며, 유대인들이 급히 그곳에서 도망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갈 시간이 없으니 그냥 그대로 쉬지 말고 페트라로 달아나면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면서 자기에게 예배할 것을 요구할 이 멸망의 가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최후의 반역이며, 이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비할 데 없이 견디기 어려운 '야곱의 환난의 때'로 휩쓸려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 기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넘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한 대환난 기간으로 1290 일간 지속될 것입니다. 이 일은 요한계시록 6 장부터 18 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될 일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남아 있을 필요가 없도록 조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청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다시 경험하지 못할 대환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환난이 이미 지나갔다고 하며,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 일은 디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성전을 파괴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이후로 대환난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 사건 이후에 계시록을 기록하였으며 그것도 명백히 장차 일어날 일로 대환난을 묘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4:1 의 "이 일 후에"는 2 장과 3 장의 일곱 교회에 관한 일 이후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계시록 4:3 이후로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묘사하고 있으며, 5 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언급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받으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6 장에서는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의 일곱 인 중에 첫번째 인을 떼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나온 흰 말을 탄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그가 세상을 이기고 그 세상을 차지하려 하며 그 뒤를 전쟁과 흉년과 사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대환난으로 진행되는데, 이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날들에 관하여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24:22)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택하신 자들이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때에는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환난이 극심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24:23-24)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있는 자들로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를 섬기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 장에 거짓 메시아와 거짓 선지자가 온 세계로 하여금 거짓 메시아를 믿고 경배하도록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큰 이적들을 일으켜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 장에도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기적과 기사와 표적들을 더 믿는다면 그는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모든 종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속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반복해서 “믿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심지어 선택된 자들까지도 속여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24:25-26)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께서 1917 년에 골방으로 재림하여 지금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미 천년 왕국 시대에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은 성경이 이 기간 중에 사단이 결박되리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24: 27)

이 말씀이 골방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여겨집니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비밀한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24:28)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는데 해석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해석들이 서로 정반대로 대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해석은, 주검은 므깃도 계곡에서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 살육당할 모든 시체들을 가리키며 독수리들이 와서 이 시체들을 마구 뜯어먹을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아난게 아니라 계시록 19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불러 왕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 등 모든 고기들을 먹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두번째 해석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주검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독수리들은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 17:37 에 있듯이 제자들이 동쪽 하늘 끝에서 서쪽 하늘 끝까지 번개가 번쩍이듯 예수께서 임하시리라 하신 말씀에 의문을 갖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맞으리이까’ 한 말에 대한 대답으로 시체 주변에 독수리들이 모이듯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곧 성도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이 얼마나 다양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 대한 표징과 예수님의 훈계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24:29)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등 온갖 천문학적 이변들이 대환난의 마지막 표징이 될 것입니다.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24:30)

여호와와 그의 증인들은 이 구절을 아주 싫어하며 이 구절에 이르러서는 교묘하게 혼동시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말로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골방에 계시는데 그들의 지도자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하니 이 구절이 틀리든지 그들의 주장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신정(theocracy)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말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완전한 거짓입니다.

“제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24:31)

환난 후 예수 재림설(Post-Tribulation Theory)은 예수께서 대환난이 끝나기까지는 교회를 끌어올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주요 근거 구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항상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의하면 교회가 영광 가운데 들림받을 때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과 요한계시록의 일곱째 천사의 나팔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부르는데, 계시록의 일곱째 나팔은 계시록의 마지막 나팔이기 때문에 혼동하는 모양입니다. 계시록에는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번의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일곱째 천사의 나팔은 화를 부르는 나팔이요 하나님의 나팔은 교회를 영광 가운데 불러 상 주시려는 나팔이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이 특별한 구절(31 절)은 예수님이 구약의 세 구절을 하나로 모아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구약의 세 구절에 따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분의 왕국을 확고히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만방에서 다시 한 번 그들의 땅으로 불러모아 그들을 한 번 더 영화롭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0:3-4 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흠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 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특별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와 마태복음 24:31 의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 27:12-13 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부르실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그 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사야 27:13 의 큰 나팔 소리는 바로 마태복음 24:31 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그 나팔 소리입니다. 또한 이사야 11:12 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예언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도 ‘사방에서’라는 말이 마태복음과 유사하게 쓰인 것에 유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성경 구절들에 의하면 택한 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24:32-33)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때, 즉 세계 대전, 전염병, 지진, 거짓 그리스도, 환난 등을 자주 보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2 절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표징으로서 이스라엘의 건국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러한 표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24:34)

이 말씀은 이러한 표징들이 나타나는 세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24:35-36)

재림의 정확한 날과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 마태복음 24:36 부터 계속적으로 일관성있게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과 그 시각을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비성경적인 가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24:37 -39)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직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은 홍수가 와서 그들을 쓸어버릴 때까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바로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알지 못할 것입니다. 강조점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의 당하게 될 놀라움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쓸어가버리기까지 그들은 알지 못하였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사실입니다.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24:40-41)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첫번째 해석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심판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려감을 당한 자는 불행한 자요 남겨진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데려감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끌려 올려감을 가리키며 남겨진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해석입니다. 이 상반된 두 견해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되어 어느 경계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24:42-44)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실 때까지 그 시각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42-44 절에서 예수님은 이중으로 강조하시며 명령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매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24:45-46)

무엇을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십니까? 주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일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돕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앓으리라”(24:47-51)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만일 예수님이 이리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만 교회를 부르러 오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즉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보고 또 대환난을 겪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 역시 예수님이 더디 오시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주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코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진정한 자극제가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나태함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심판에 대한 비유

깨어 있을 것을 가르치시는 비유

24 장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23 장 끝에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주님의 재림에 관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재림에 앞서 재림이 임박했음을 나타내 주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 어느 때인 줄을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있어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일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1-4 에서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롭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깨어 있어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25 장에서 몇 개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의 강조점은 모두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모르니 깨어 있어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미리 준비하지 못할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국 어린 양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들어 갈 수 없게 됩니다.

열 처녀 비유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라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 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라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25:1-13)

우선 유의해서 관찰해야 할 점은 이 비유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하라고 권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므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이 열 처녀 비유에 대한 해석은 무척 여러 가지입니다. 이 다양한 해석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비유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비유에서 열 처녀는 전체 교회에 해당하며,

따라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세계에는 광대한 교회 조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작게 심겨졌지만 자라고 커져서 큰 가지들을 내고 공중의 새들이 여러 교회의 가지에 깃들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새들은 아주 좋지 못한 새들입니다. 오늘날 전세계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많은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29-30에서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많은 목회자들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는 불신앙과 회의를 한번 보십시오.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불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불신, 죄 사함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불신을 표현하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목회자라고 부르며, 주요한 교과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온갖 불경한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교리들 중에는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들이 많은데, 복음주의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혼합된 교회는 아주 다양한 범주의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듭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않은 채로 교회의 일원으로 활약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일곱 교회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경고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저들에게 속히 임하셔서 저들을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불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불행스럽게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대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 보아도 그렇고 오늘날의 세계 교회 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를 보아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조직 안에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신실한 자들을 남겨 두셨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들이 남아 있으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는 복음과 사역을 육체만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거창한 계획들을 추진하기도 했고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천재성을 발휘하여 교회의 재정과 확장 등의 계획을 잘 짜서 그 힘으로 온 세계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성령을 좇아 행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오직 교회를 이끄시고 세우시는 성령께 의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은 있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었다는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밤중에 갑자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났을 때에 비로소 모든 사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때까지는 열 처녀들이 모두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간에 그들 사이에 크나큰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자기들이 참 빛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힙니다. 어리석은 여인들이 돌아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하며 애원했지만 주인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약성경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달란트 비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두 달란트를 하나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변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으리라 하니라”(25:14-30)

이 비유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 늘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더 풍성하게 할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단지 보존하기만 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각각의 능력에 따라 주어졌지만, 두 달란트를 받아서 또 두 달란트를 남긴 자는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긴 자와 똑같은 칭찬과 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세우실 때 그 나라에서 우리의 위치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충성에 따라 결정되리라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주인이 충성스러운 종에게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 하며 다스리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들에게 이긴 자들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에 대하여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것을 맡기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그 맡은 것들을 사용하여 늘려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삶을 심각하게 점검해 볼 것을 촉구합니다. 우선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가를 힘써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충성스러운 자인가, 나태하여 맡은 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하여 더 생산하기는 커녕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25:31-33)

예수님이 영광중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대환난에서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결정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의 기간 중에 그리스도 앞으로 불러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환난에서 살아남고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같이 각각 분리할 그 시점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12 장에서 다니엘은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삽나이까”하고 주께 물었습니다. 주님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이백구십 일이 지나야 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기다려서 일천삼백삼십오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5 장에서 언급하고 계신 특별한 기간이 아마도 45 일간 지속되리라는 사실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40 은 성경에서 심판의 수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40 주야 동안 비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 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상 45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1335 일에서 1290 일을 뺀 숫자입니다. 다니엘은 1335 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는 쫓아내 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25:34-36)

‘양’은 누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가서 베풀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25:37-40)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틴 업투란이라는 사람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시내로 들어가려는데 누더기를 걸친 한 거지가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가진 돈이 없어서 입고 있던 군용 외투를 벗어 반으로 잘라 그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외투였으나 마틴은 기꺼이 그 옷을 거지와 나눠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 날 밤 꿈에 마틴은 주님이 하늘에서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광중에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주님은 자신이 나눠준 반쪽 짜리 군용 외투를 입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다 주께 하듯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만드시 그것에 대해 보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곤경에 관심을 갖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마음을 단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기독교를 실제적인 측면에서 다루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 2:15-16). 야고보는 믿음을 실제적인 적용의 문제로 다루며 곤경에 처한 자들에 대해 동정심을 가질 것과 실제로 도움을 손을 펼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옆집의 누군가가 밥을 굶고 지내는데 어떻게 우리의 몸에 사치품을 장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 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25:41-46)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하십니다. 이들이 곧 ‘염소’로 판별되는 자들로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을 위하여 지옥(Gehenna)을 예비한 것이 아니고 사단과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스스로 사단에게 미혹되어 사단과 함께 지옥에 들어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실 것이며 또 최선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대안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단의 반역에 동참한다면, 그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영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변경되지 않을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수난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을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더라”(26:1-2)

예수님은 24:3 에서 시작하셨던 감람산 강화를 마치셨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이 이 감람산 강화를 월요일에 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에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 날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즉 월요일에 예수님이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아와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하면서 예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나와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월요일에 예수님은 감람산 강화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월요일에 하셨다면 유월절은 물론 수요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마도 수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하신 것이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학자들은 그 기간을 일요일에 일어났던 부활로 따져서 도출해 내느라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서 일요일에 부활했다면 삼 일 밤 낮이 되지 못합니다.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아문에 모여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26:3-5)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와 안나스, 두 사람이었는데 가야바는 로마 정부에 의해 임명을 받은 자요 안나스는 이스라엘 종교인들에 의해서 인정된 자였습니다. 이들은 모여서 예수를 궤계로 잡아죽이려고 의논했는데 민요가 날 위험이 있으니 명절에는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유월절에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예표를 이루시기 위해 다른 날이 아닌 유월절 축제일에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축제일을 피하고자 온갖 애를 썼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유월절 희생양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26:6-9)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한 제자는 가롯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는 수 천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유다는 분개하여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하고 물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는데, 요한은 유다가 이렇게 말한 동기를 그 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 께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흠쳐감이러라”(요한복음 12:6).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26: 10-13)

예수님의 꾸중 섞인 말씀에 다소 감정이 상한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자 가롯 유다는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은 삼십은 구약성경 스가랴 11:12 에서 예언된 가격입니다. 그 돈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리라’는 스가랴 11:13 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은 삼십은 또 자기 소가 이웃을 받아 죽었을 때 물어주어야 하는 배상금의 액수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게 됨으로써 민요를 두려워하여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기로 결정했던 대제사장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유월절 희생양으로 바치는 일에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 아무에게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26:17-19)

유대인들은 자정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는 일몰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안식일 만찬을 토요일 밤에 하지 않고 금요일 밤에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일몰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몰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때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일몰 후의 저녁이었습니다. 물론 이 유월절은 그 다음날의 일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첫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유월절은 우리가 빵 한 조각과 포도주스 한 모금을 들면서 성만찬이라 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의 축제였으므로 어린 양 하나를 통째로 구워 먹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아가페 만찬, 즉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 것입니다. 그 날 밤에 가롯 유다는 겻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 다음날 아침, 즉 유월절이 지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저희가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니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세계 좋을 뻔하였느니라”(26:20-24)

이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이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26:25)

유다는 이미 예수를 넘겨주기로 대체사장들과 약속을 한 상태였고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만찬 제정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26:26-29)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성만찬’ 또는 ‘성찬’이라고 하는 의식을 처음으로 제정하십니다. 우리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옛 언약은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린 후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세우고 계십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고 선언합니다.

옛 언약은 매년마다 되풀이 되어야 했습니다. 옛 언약에 따라 제사장들이 드렸던 제사가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였다면 매년마다 되풀이할 필요도, 같은 제사를 거듭해서 드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새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므로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히 7:27). 언약을 기초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구약의 유월절 축제 행사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려 하나님과 새 언약을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대하며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아름다운 새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26:30)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부른 찬송은 시편 136 편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36 편은 유월절 끝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부르던 찬송이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 절까지 계속되는 찬송에서 시편 136 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오게 하신 것은 모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26:31-35)

베드로는 육체 안에서 자랑하는 죄를 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자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여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늘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고 장담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혹시 당신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진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틀린 것은 항상 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이 말이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이 순간 정말로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헌신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으며 주님을 위해 목숨도 바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능력에 근거한 맹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후에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원하고 확신해도 실제적인 문제는 “육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절실히 느끼고 있는 육신의 약함이라는 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 욕망이나 신실함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육체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체질이 진토임을 아셨습니다. 나는 내 몸의 체질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실제보다 더 강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보다 더 현명하고 실제보다 더 능력 있는 자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자신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약함을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육체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는 자라면 우리의 힘은 스스로에 의해 제한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약해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무제한의 힘, 무제한의 잠재력, 무제한의 능력을 소유하는 경지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26:36-38)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했습니다. 세 명의 제자는 평소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변화산에 올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하였으며, 특별한 사명을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지명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후원을 부탁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였습니다. ‘할 만 하시거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거든, 이 피의 잔을 마시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만약이라도 있다면이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묵상해 볼 때 우리는 죄사함이 인간의 선행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 이상의 불경죄란 없을 것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만일에 사람의 죄사함과 구원이 성실함이나, 선함, 도덕적 행위나, 종교적 행위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복종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거나 어떤 특별한 것을 간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열심히 요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들어줄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그러나 저는 제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는 내용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다른 길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대안을 주셨을 것입니다. 만일 선하거나 도덕적인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덕이나 법 따위를 제정하여 당신이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항상 우리에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뿐이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26:40-41)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제자들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깨어 기도하며 예수님께 용기와 힘을 주어야 했지만 너무 피곤하여 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며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주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26:42)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기셨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터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26:43-44)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롱이나 책망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이 말씀 뒤에 몇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에 피곤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던 제자들을 내려다 보시며 예수님께서 속으로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며 깨어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가 오기를, 즉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거기에 앉아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위해 사랑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는 기다리시는 바로 그 몇 시간 동안에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녁식사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는데 그 당시 저녁식사는 보통 6 시 전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신 후 유다가 오기까지는 몇 시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계실 때에 닭이 울었으므로 그 때는 아마 새벽 5 시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게 될 혼돈과 방향을 미리 아시고 저들을 위해 ‘아버지여, 저들을 강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며 말씀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는 군사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난당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하였는지라 곧 예수께 나아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26:47- 49)

헬라어로 입맞춤을 나타내는 단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남편이 집을 나설 때 아내의 볼에다 하는 입맞춤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열정적인 입맞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유다의 입맞춤은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48 절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잡으라”고 했을 때는 전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입맞춤의 단어가 사용되었지만, 49 절에서 유다가 실제로 예수께 입을 맞출 때에는 후자의 입맞춤, 즉 열정적인 입맞춤에 대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저희가 나아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26:50)

다른 복음서에는 “유다야 (열정적인)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검을 뽑아 자가 베드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의 그의 성급함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26:52-53)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한 천사가 저녁 한 때에 앗수르 진영을 다니면서 십팔만 오천 명을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천사 열두 부대는 오죽하겠습니까?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26:54)

예수님은 능히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으셨지만 그렇다면 ‘성경의 예언이 어찌 이루어지겠느냐’시며 구속을 위한 수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즉 우리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주님은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26:55-56)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되셨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좇아 대제사장의 집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숙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증거를 찾았대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언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26:57-62)

물론 성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의미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요 2:18-21).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26:63-67)

이사야 50:6 에서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해 예언하면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동양문화권에서 침뱉는 행위는 철저한 경멸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냥 침을 뱉는 것이 아니라 목구멍 아래에서 끌어내어 뱉는 것이 그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얼굴을 가리고 쳤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맞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신기하게도 뛰어난 반사작용이 있어서, 만일 주먹이 얼굴을 향해 날아오는 것을 보면 몸은 그 주먹에 본능적으로 반응하여 얼굴을 뒤로 뺨으로써 그 충격을 완화시킵니다. 미식축구에서 쿼터백이 가장 큰 부상을 입을 때는 부딪치는 사람을 못보고 넘어질 때입니다. 덩치 좋은 상대방 선수가 온 몸으로 태클할 때 그 태클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동적으로 몸을 부드럽게 하여 함께 구르며 넘어지게 됩니다. 권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이 들어올 때 그 주먹과 함께 몸을 뒤로 빼면 그만큼 충격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은 모든 반사적 충격 흡수 행동을 차단한 것으로 더욱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희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이사야 52 장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하여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은 그 얼굴이 너무도 비참하게 변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수염이 뽑히고 얼굴을 가리운 채 난타당해 통통 부어올랐을 것이고 피와 멍으로 뒤덮였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하면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사 53:3-4).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여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네 말소리로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답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 올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26:69-75)

우리는 베드로를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보았을 것입니다. 맹세코 하지 않으리라던 일을 하고, 결코 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에 대해서 실패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실패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행동을 저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위안을 주는 사실은 베드로가 나중에 변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랍게 들어 쓰셨습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았고, 충동적이었고, 칼을 함부로 휘둘렀고, 자주 책망을 들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압력에 못 이겨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놀랍게 사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다면 우리 같은 자도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쓰실 자들을 미리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그 일에 대한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으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분의 선하신 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죽음

가롯 유다의 자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여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27:1-2)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미리 심문한 것은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기 전에 혐의를 만들어 씌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붙인 죄목은 불경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는 로마정부가 유대인들로부터 사형집행권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라도 사형에 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다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경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가 그것은 너희들의 종교문제이니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법정에서 통할 죄목을 조작해 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정부에 대한 반란죄였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는 것과 스스로를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것으로서 증거도 델 수 없는 죄목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재판관이었던 빌라도는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뒤 그런 죄목에 대하여 아무 혐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에 예수를 관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27: 3-5)

어떤 사람들은 유다와 관련된 그럴듯한 이론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즉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꺾으려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를 빨리 건설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왕 되심을 선포하도록 상황을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계획이 자신이 의도했던 방향대로 전개되지 않자 자신의 한 일을 뉘우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증거가 없는 하나의 흥미로운 추측에 불과합니다.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도소 죄수들은 대부분 저지른 일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붙잡혔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즉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한 뉘우침과 그 일이 자기의 의도한 바와 반대되는 결과를 낸 데 대해

뉘우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다의 뉘우침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베드로의 경우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을 깨닫자 뉘우치고 밖으로 나가 심히 울었지만 유다는 목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에 대하여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고 말하였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심문한 후에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고 하였으며 후에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운명 후에 로마의 백부장은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뉘우침에 대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고 일축해 버렸습니다. 이에 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가서 목매어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불의의 값으로 받을 사고 후에 몸이 끈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비참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은을 거두며 가로되 이것은 피 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둬서 옳지 않다 하고”(27:6)

이들이 이같이 율법의 작은 규정에는 충실하려고 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재판한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이 체포된 그 날로 재판받게 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갓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그 즉시로 끌고가 재판하였습니다. 또한 62 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비일 다음날, 즉 안식일에 빌라도에게로 가서 “저 유혹하는 자가 살았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업무상의 방문이요, 저들은 예수님을 고소한 가장 큰 죄목 중의 하나인 안식일을 범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저들은 필요할 때마다 율법을 아랑곳 않고 어기면서도 겉으로는 작은 세부사항에까지 율법을 따르는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발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발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27:7-10)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예언을 한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아니고 스가라입니다. 마태가 구약을 인용함에 있어서 실수를 범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성경을 옮겨 쓰던 중에 스가라 대신에 예레미야를 써넣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예언이 스가라서 11 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는지라”(27:11-12)

예수님은 이후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소하여 떠들어대는 죄목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일체 그 입을 여시지 않았습니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27: 13-14)

빌라도는 명백한 거짓 고소를 당하면서도 아무런 자기 변호를 하지 않는 이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당시에는 명절에 로마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니다. 이는 로마정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의를 과시하기 위한 관례였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로마정부에 호감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니다. 대체로 명절에 석방되는 죄수들은 정치범이었는데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었고 보통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던 용감한 정치범이 선택되었습니니다. 당시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그는 반란과 살인죄로 복역중이었습니니다. ‘바라바’는 참으로 흥미로운 이름인데, 그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바’(abba)는 ‘아버지’를 뜻하고, ‘바’(bar)는 히브리어로 ‘누구 누구의 아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야곱’하면 야곱의 아들을 뜻하며 ‘바디매오’는 디매오의 아들을 뜻합니다. 시리아 페쉬타 사본에 따르면 바라바의 이름은 ‘예수 바라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라?”고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해서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의 히브리 이름은 ‘야슈아’인데 이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그리스도 예수를 분명히 다른 예수라는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나사렛 예수’, 또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등의 호칭이 쓰여졌습니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아러라”(27:17-18)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이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기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는데, 왜냐하면 만일 큰 무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다가는 그들의 권위가 위태로워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니다. 이것을 안 빌라도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석방을 요구할 줄로 생각하였습니니다.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27:19)

정경이 아닌 책들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 포르쿨라(Claudia Porcula)라고 하며 팔라투스(Palatus)라는 작은 아들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이 아들은 예수님에 의해 병고침을 받았고, 따라서 클라우디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전체의 이야기에 하나의 부가적인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는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라고 빌라도에게 간청했는데, 그녀는 예수님을 ‘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무죄함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27:20-21)

이에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빌라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제기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질문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처럼 우리 각자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개인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간적인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위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고백하든지 부인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이는 창세전부터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야 하지만 그 결정이 예수님의 운명에 하등의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 그 실체가 바뀌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내린 그 판단과 결정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재판하는 셈이 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절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질지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 짓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 혹은 예수님을 만나 본 적이 없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증거들을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해볼 수만 있다면 누구나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심한 내면적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이며, 따라서 그가 의로운 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군중들의 외부적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그로 하여금 그의 양심에 반하여 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비슷한 압박을 종종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고 알고 있는 결정이나 행동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판결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이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27:22-23)

모든 군중 소요가 그렇듯이 여기서도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런 때는 제일 큰 소리가 먹혀들기 마련입니다. 정의나 판단력은 설 곳이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죄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피살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그 피살한 곳에서 사면에 있는 각 상읍의 원근을 쫓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상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던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신 21:1-9)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빌라도는 전통적 유대인의 법에 따라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27:25)

빌라도의 선언에 백성들은 모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데 이로 인하여 예로부터 무시무시한 저주가 유대인들에게 끊이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면, 이 말의 대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파괴와 함께 시작된 유대인들의 고난은 20세기 중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의 유대인이 대학살당하기까지 너무도 끔찍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죄로 인하여 또는 부모가 자녀의 죄로 인하여 고난받거나 벌받지 않고 모두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과 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자녀들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날 부모들의 죄로 인해 고난받는 자녀들은 많습니다. 만일 부모가 마약 또는 알콜 중독자이거나, 어린이 학대자라면 자녀들은 부모의 죄로 인해 고통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아이는 부모가 저지른 죄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으며 단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모는 자식의 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질 사람은 자신뿐입니다.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박히게 넘겨 주니라”(27:26)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채찍질하는 것은 로마에서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죄수는 알몸으로 낮은 기둥에 등을 구부린 자세로 묶입니다. 가죽채찍에는 간격을 두고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덩이가 박혀 있었으므로 이것으로 맞으면 살이 찢겨 묻어나옵니다. 죄수들은 채찍질당하는 중에 두세 번씩 기절합니다. 이 채찍질의 목적은 미해결 범죄를 해결하는 데 있었습니다. 죄수가 한 가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형집행자는 채찍질의 강도를 조금씩 내립니다. 그러나 그 죄수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형집행자는 그 채찍질의 강도를 점점 더 세게 하여 결국 혹독한 고통에 못 이겨 죄를 실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수 옆에는 항상 서기관이 대기하고 있다가 죄수가 자백하는 내용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문으로 로마 정부는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털썩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고백해야 할 죄가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원래 채찍질 40대였는데 그것은 40이 구약성경에서 심판의 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수에게는 39대의 채찍질만 가해졌습니다. 39라는 수는 자비의 수입입니다. 물론 큰 자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로마정부는 이러한 정책으로 이스라엘에 관용을 베푼다는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40대라고 해도 39대만 때렸습니다. 죄수들은 종종 채찍질로 인하여 피 흘리며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살이 갈라져서 뼈가 드러나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수들은 끌려나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양 손에는 못을 박지만 발에는 못보다는 끈으로 묶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못박힌 손에 파리와 벌레들이 달라붙어 죄수의 온 몸은 파리와 벌레들로 뒤덮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실로 비인간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같은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우리의 구속으로 인해 이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27:27-30)

한 역사가는 예수께서 이러한 희롱을 당하시기 이전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어떤 바보가 자기를 왕이라고 하자 로마군병들이 순전히 재미로 그에게 붉은 천을 둘러 씌우고 머리에는 왕관 모양을 만들어 씌우고 손에 막대기를 쥐어 주고는 그 앞에 절하며 “왕이여 평안할지어다”하며 놀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조롱을 예수님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는 가시들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가시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시는 예수님이 가시로 된 면류관을 머리에 쓰셨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더라”(27:31-32)

십자가의 세로 막대는 보통 미리 땅에다 박아 두고 죄수는 가로 막대를 지고 가야 했는데 예수님을 대신해 십자가를 졌던 이 시몬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수 년간 돈을 모아두었다가 그 돈으로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군사들은 차고 다니던 칼을 식민지 백성의 어깨 위에 가볍게 올려놓는 동작만으로도 이것저것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무거운 짐도 억지로 지고 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누구든지 너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이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27:33)

골고다는 다메섹 성문 밖에 있던 언덕 지역으로 많은 동굴들 때문에 해골처럼 보였던 곳입니다. 동굴들이 많은 이유는 그 일대에서 돌을 많이 캐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메섹 성문의 유적이 예루살렘에서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그 위치는 현재의 다메섹 성문 아래쪽입니다. 그런데 이 발굴된 다메섹 성문은 로마 시대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통과했던 바로 그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27:34)

쓸개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약으로 고통을 덜 느끼게 하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형을 받은 죄수에게 베푸는 일종의 자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 처형이란, 십자가에 못박힌 상태에서 온 몸의 기력이 다하여 근육이 힘을 잃고 나면 관절 부분이 탈골되어 서서히 죽는, 그야말로 혹독한 고통을 주는 처형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쓸개 탄

포도주는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취로 인해 정신을 잃거나 고통을 잊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27:35-36)

이것은 시편 22 장의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는 예언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27:37)

당시에는 죄수를 십자가에 매단 후 그의 죄목을 적은 죄패를 붙여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의 위엄을 식민지 백성들에게 나타내보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 죄패를 곧바로 십자가에 붙이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 보도록 거리로 가지고 다닌 후에야 붙였습니다. 보통 십자가를 진 죄수는 여러 명의 로마 군인들이 그 주변을 사각형으로 둘러싼 채 형장으로 갔는데 군인들 중 계급이 가장 높은 병사가 이 죄패를 들고 앞장서서 갔습니다.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27:38-39)

머리를 흔드는 것은 비웃음과 조롱, 즉 모든 악의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면서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27:40-43)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뜻으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들은 조롱 가운데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를 증거했는데, 42 절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라는 말과 43 절의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라는 말들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정죄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셋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어 휘둘렀을 때 예수님은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 자신을 구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참으로 꼭 맞는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못박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옳은 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27:44)

본문에는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함께 욕했다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중의 한 명이 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제 욕 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 시까지 계속하더니”(27:45)

제 욕 시는 정오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오전 9 시에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세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고 다시 세 시간이 지나서 제 구 시, 즉 오후 세 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오에서 오후 세 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코 일식과 같은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월절이요, 유월절은 만월 때이기 때문입니다. 만월 때는 달이 태양의 반대쪽에 있으므로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습니다.

“제 구 시 즘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27:46)

우리는 이 구절이 시편 22 편의 서두에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기 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2 장에 이 모든 것이 예언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일어나는 일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22:2의 “내 하나님이며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는 말씀은 다가올 어둠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18 절에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는 예언이 나옵니다. 또한 15 절에는 “내 혀가 잇틀에 붙었나이다”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겪을 극심한 갈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4 절의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라는 말씀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시편 22:1의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말씀을 외치심으로써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절규를 들을 때 갓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고뇌를 생각해 줍니다. 예수님이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했을 때,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셔야만 했던 쓴 잔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일체시며 단 한 번도 그분과 떨어져본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분리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분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영원히 분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절규가 당신의 마음속 깊이 울려오니까? 확신하건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경험을 맛본 사람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과 우리 대신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유를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27:48)

그는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통증을 가라앉혀 주는 신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여전히 냉소적으로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27:50)

예수님은 요한복음 10 장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50에서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은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즉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속이 완성되었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말씀 후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27:51)

바로 그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습니다. 아래부터 위로가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음을 나타냅니다. 성소의 휘장은 죄 많은 인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이제까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그것도 많은 제사를 드린 후 일 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가능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의 휘장을 통해야만 했는데 어떤 기록에 의하면 그 휘장의 두께는 자그마치 45cm 나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소의 그 무거운 휘장은 인간에게 있어서 ‘통행금지’라는 의미를 상징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깨우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한 열린 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 휘장이 둘로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음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먼저 그리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형제 살해였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자살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는데도 아담이 그것을 먹었을 때는 이미 그는 자살 행위를 한 것입니다. 두번째 죄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형제 살해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저지른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살해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였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27:52-53)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로서, 바울은 에베소서 4 장에서 시편 68:18 을 인용하여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음부(Hades)가 두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암시하셨는데, 그 중 하나는 아브라함이 죽은 의인들을 위로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관계 없이는 완전하게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수소와 염소의 피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오직 잠시 동안 죄를 덮어 둘 뿐으로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완전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온전한 상태로 들어갈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 이루어짐으로써 온전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십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좇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27:54-56)

여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 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27:57-61)

여자들은 충실하게 남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무덤을 마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이른날은 예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27:62)

예비일 다음날이라는 것은 유월절이자 안식일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의 충격 속에서 부활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하라 하거늘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27:64-66)

부활하신 예수님의 지상명령

부활하신 예수님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달음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28:1-9)

저들의 흥분과 기쁨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먼저 만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요 20:17)라고 말씀하셨는데, 본문에서는 어떻게 여자들이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겠습니까? 그 답은 헬라어에 있습니다. “나를 만지지 말라”는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나를 붙잡고 매달리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이때 분명히 마리아는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붙잡듯이 주님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생님, 이제 다시는 어디도 못가십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붙잡지 말라. 너는 지금 곧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고 분부하였습니다.

“여자들이 갈 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도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28:11-15)

가서 가르치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28:16-18)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즉시 이어서 “너희는 가라”고 하신 것은 그 말씀이 절대적인 명령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즉 상상할 수 없는 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가라”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믿음직한 주인의 명령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세계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며, 이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28:19-20)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오직 예수’(Jesus-only)라는 교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헬라어에 따르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가르치라’고 명하십니다. ‘가서 가르치라’는 명령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예수님께 절대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빌라도의 보고서

초대교회의 교부들 중에 유세비우스, 이레니우스, 순교자 저스틴 등은 빌라도가 로마 정부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관련된 일들에 관해서 보고서를 올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가이사에게 보낸 빌라도의 편지에는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그의 역할과 로마의 입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편지는 ‘악티 필라티’라고 불리는데, 그것의 진정성에 관해서는 이론이 많으나 매우 흥미로운 읽을거리를 제공합니다. 저는 「산헤드린의 고고학적·역사적 문서들과 유대인의 탈무드」(The Archaeological Historic Writings of the Sanhedrin and the Jesus)이라는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책에 ‘악티 팔라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부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발췌된 부분은 아가페 출판사에서 번역 발행된 빌라도의 보고서에서 요약하여 인용하였습니다-역주)

로마의 황제, 디베료 가이사 각하에게

각하께 문안 드립니다. 제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최근 수 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은 너무나 독특한 일이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 나라의 운명까지 변하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건이 일어난 대로 각하께 소상히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생한 사건은 모든 다른 신(神)들과는 조화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발레리우스·플라슈스를 계승하여 유대 총독이 된 날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부임한 이래로 제 생활은 불안과 근심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속해서 빌라도는 그가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직면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빌라도는 그 나사렛 젊은이에게 거의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런 자유를 주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허용된 무제한의 자유는 부유하고 권세 있는 유대인들을 자극하였습니다. 예수가 후자들에게 가혹하게 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그 나사렛 젊은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정략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너희들은 회 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음이 가득하다.” 또 한 번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내고 뽐내는 것을 보고 한탄하며 가난한 자의 한 푼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예수의 오만한 언동에 대한 항의가 날마다 총독청에 줄을 이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선지자로 불리는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으며, 예수에 대한 진정서가 가이사에게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처사는 원로원에게 재가를 받은 것이었으며, 파르티안 전쟁이 끝나면 저에게 증원군을 보내주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폭동을 진압하기에는 우리의 군사력이 너무도 미약한 고로, 저는 힘없이 물러섬으로써 총독청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용히 성의 평온을 되찾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에게 서신을 보내어 총독청에서 한 번 만날 것을 청하였습니다. 황제께서는 제가 로마인의 피에 서반아(西班牙)의 피가 섞여 흐르는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두려움 따위의 유약한 감정은 모르는 사람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나사렛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을 때 저는 접견실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다리는 쇳덩이로 된 손으로 대리석 바닥에 붙여 놓은 것처럼 꼼짝할 수가 없었으며, 그 나사렛 젊은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용히 서 있는데도 저는 마치 형사범처럼 사지를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으나 제 앞에까지 다가와 서는 것만으로도 “내가 여기 왔도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저는 이 비범한 사람을 존경과 두려움으로 응시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신들과 영웅의 형상을 그린 수많은 화가들이 아직 그려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모습에 어떤 특이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그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지난 3년 동안 나는 그대에게 연설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였소. 그러나 이 일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후회가 없소. 그대의 말은 현인의 말이오. 그대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을 읽어보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기에는 그대의 설교는 다른 철학자들의 그것을 능가하는 단순하고도 장엄한 힘을 가진 것 같소. 이에 대해서는 황제께서도 알고 계시며, 그를 대신하여 이 나라에 와 있는 나는 그대가 훌륭한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을 스스로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소. 그러나 나는 그대의 설교가 강력하고도 원한 깊은 적대자를 만들고 있음을 알려 주어야 겠소. 이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오. 소크라테스에게도 대적이 있었으며 결국에는 그들의 희생물이 되었다오. 그대의 설교가 그들에게 매우 가혹하다는 것과 내가 그대에게 자유를 허락한 것으로 그들이 나를 반대한다는 것 때문에 설상가상으로 시끄러워지고 있소. 그들은 로마 정부가 그들에게 허용한 작은 권리마저도 나와 그대가 은연중에 손을 잡고 그들로부터 빼앗으려 한다면서 내게 항의하고 있소. 내가 그대에게 지금 말하려는 것은 명령이 아니라 부탁으로서, 이제부터는 그대가 설교할 때에 좀더 신중하고 온화한 말로 하며,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어리석은 군중들을 충동하여 그대를 대적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나로 하여금 그대를 제재하는 법의 도구 노릇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오.

그 나사렛 젊은이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이 땅의 지배자여 그대의 말은 참된 지혜자의 말이라 할 수 없도다. 계곡을 흐르는 물더러 멈추라 해보라. 그리하면 그 멈춘 물로 인해 산의 나무들이 뿌리채 뽑히리라. 물은 그대에게 말하리니

나는 오직 자연과 그 창조의 법에 순종할 뿐이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어디로 흘러가는 줄 아시노라 하리라. 진실로 내가 그대에게 이르노니 무궁화 꽃이 피기 전에 의인이 피를 흘리리라“

이어서 계속되는 편지 내용 중 흥미로운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있었던 일에 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과 슬픔에 차서 총독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나사렛 사람의 피가 아직 얼룩져 있는 계단을 오르다가 저는 한 늙은이가 무엇을 탄원하는 듯한 태도로 서 있는 것과 그 노인 뒤에서 몇 명의 로마 사람들이 눈물을 지으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 발앞에 몸을 굽히고 크게 통곡하였습니다. 늙은 노인이 울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으며, 비록 외국사람이기는 하지만 함께 있는 로마 사람과 같이 제 마음은 슬픔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제가 본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율배반적인 감정의 표현을 목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여 판 사람들이나 그렇게도 반대 증언을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그의 피 값을 우리에게로 돌리시오” 하고 소리쳤던 무리들도 비겁한 똥개같이 쑥 들어가버리고 시침을 떼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대로 예수가 죽은 후에 부활하리라는 그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면 이 가르침은 바로 이 많은 군중 가운데서 실현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제하고 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며 요구가 무엇이요?”

“저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데 나사렛 예수를 장사 지내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오.”

그리고 저는 부관인 만류스에게 명하여 병정 몇 사람을 대동하고 가서 매장하는 것을 감독하고 불경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으며, 그의 제자들은 각처로 다니면서 예수가 자신이 말한 대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제 나름대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황제께서도 제 대신 헤롯에게 직접 물어보시면 저에게 잘못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묘실에 예수를 매장하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부활을 예상했는지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는 또 다른 묘실을 준비하려 했던 것인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가 매장된 다음날 제사장 한 사람이 총독청으로 와서 제게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그의 시체를 숨긴 후 그가 생전에 예언한 대로 살아난 것처럼 꾸미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제사장을 친위대장인 말커스에게 보내어 무덤을 지키기에 충분한 수대로 유대 병정들을 데리고 가서 배치하라고 한 후, 만일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들의 책임이지 로마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소란이 일어났으며 저는 더 큰 근심에 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커스를 불렀는데 그는 제게 벤이삼이라는 부하 장교와 100 명의 군사를 무덤에 배치했었노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저들 자신도 매우 놀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벤이삼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었는데 그는 제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연상할 수 있도록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병사들은 제 4 시경이 시작될 무렵 그 무덤 위에서 부드럽고 아름다운 빛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여자들이 그들의 풍속대로 예수에게 바를 향유를 가지고 왔는가 하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여자들이 파수꾼을 통과할 수 없으리라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이러한 여러 생각이 그의 마음에 스쳐가는 동안 이상하게도 온 주위가 환하고 밝게 비취고 거기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의(壽衣)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와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차고 넘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듣는 동안 그는 토할 것 같았고 힘이 없어 일어설 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대지는 그 아래서 헤엄치는 듯하여 그의 감각은 마비되고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돌아왔을 때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밝은 빛이 혹시 동이 트는 것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는가 물었으나 잘못 본 것이 절대 아니며 바로 돌 던져 닿을 만한 저 너머에는 칠혹같이 어두웠으며 시간 역시 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그의 현기증이 잠에서 갑자기 일어남으로 흔히 있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아니었는가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잠든 것은 결코 아니며 임무수행 중에 잠을 자면 사형당한다는 것을 잘 아는데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병정들은 교대로 잠을 잤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광경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약 한 시간쯤 되지 않았나 짐작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정신이 돌아온 후 그 무덤에 가보았느냐고 물었으나 못 갔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유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가 교체병이 오자마자 숙소로 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심문을 당하였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제사장은 밤에 일어난 사건이 지진이었으며 파수꾼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제사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한 사람의 제자도 보지 못하였으며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누군가의 말을 듣고난 후에야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화한 제사장들의 예수에 대한 견해가 어떠한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제사장이 더러는 예수는 사람이 아니며 마리아의 아들도 아닐 뿐더러 베들레헴의 처녀의 몸에서 탄생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이 예수란 사람은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있기도 했으며 그 후에도 여러 곳 여러 때에 걸쳐 존재했던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일 유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와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듯이 모든 자연이 그 사람의 손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따르는 자들이나 배척자들에 의하여 공히 알려지고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살아 생전 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바다를 잠들게 하고 폭풍을 멈추게 하며, 고기를 잡아 그 입에서 은전을 얻어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일 유대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가 했다고 하는 이 많은 일들과 그 이상을 그가 할 수 있었다면 그에게 많은 적들이 있게 했던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는 어떤 법을 어김으로써, 또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써 재판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그를 지지하였던 사람뿐 아니라 그를 대항하였던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의 모든 행적과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십자가 옆에서 만류스가 말한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초대교부들이 증언한 것처럼 빌라도의 보고서가 진짜인지 아니면 위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읽은 모든 내용은 사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그분께로 영접하기 위하여, 또한 그분의 나라와 통치를 땅에 견고히 세우기 위하여 재림하시리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그 나라의 일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개인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들이십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 얼마나 영화로운 날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고통과 갈등과 문제들이 산을 이루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요한계시록 22:20 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즉시 응답한 요한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